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17세기 전반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전공

고 지 용

17세기 전반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연구

지도교수 이 주 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 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전공
고 지 용

고지용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 월

위 원 장 박 정 호 (인)

부위원장 이 주 형 (인)

위 원 송 은 석 (인)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전반에 조성되었던 <김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하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김제 귀신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이하 <귀신사상>), <고창 선운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이하 <선운사상>)의 의례적 기능과 도상 선택의 이유 나아가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여 세 불상의 조성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앞서 삼신불, 약사불, 미타불의 5불 구성이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타불의 구성과 동일한 개념임을 전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비로자나 삼방불상의 의례적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불상은 17세기 초에 조성되어 주불전 내에 봉안되었다. 불상이 의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상의 도상과 의례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주불전 내부에서 설행되었던 의례를 검토하였다.『운수단가사』,『영산대회작법절차』는 16세기 중반에 간행된 공양의식집으로 주불전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설행되는 의례를 보여준다. 이 의식집들은 15세기 공양 의식집과 달리 축성(祝聖)의례가 공양 의례 안에 포함되었고, 별도의 축성의례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공양의례와 축성의례의 대상이 곧 주불전 내부에 적합한 도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의식집을 살펴본 결과 이 의례에 요구되는 도상은 방위를 나타내는 제불(諸佛)이었다. 특히 석가 삼방불은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시되었으며, 동시에 방위를 나타내는 여래였기 때문에 17세기부터 유행할 수 있었다.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은 여말선초부터 공간적 차원의 여래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귀신사상>, <선운사상>도 명종대 변화된 의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개념을 가진 석가, 약사, 미타의 석가 삼방불이 유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일대에 위치한 세 사찰에서만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 사찰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해명될 수 있다. 양식적 분석을 통해 금산사-귀신사-선운사상의 순

서로 조성되었음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도상이 금산사를 시작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귀신사, 선운사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금산사는 세조와 덕원군에 의해 15세기 후반에 중창되면서 비로자나 5불상이 조성되었다. 이 불상군의 의례적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동시기에 제작된 15세기 비로자나 삼방불, 5불 도상의 의례적 기능을 검토한 결과 비로자나 5불 도상이 축성의례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세조대 조성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도 동일하게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17세기 초 금산사 재건역 때 비로자나 5불 도상이 조성되었다. 이전에 조성되었던 도상을 그대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조성된 불상의 의례적 기능을 인지하고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쟁으로 소실된 후 3년 만에 금산사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점, 형식적으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 17세기 통례와 다르다는 점, 축성의례의 공간인 대웅전에 봉안되었다는 세 가지 사실을 통해 이전에 조성되었던 5불상의 존재와 의례적 기능을 인지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17세기 초 조성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도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귀신사와 선운사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진 도상의 불상이 조성되었다. 조성의 선후관계를 보아 금산사의 영향 하에서 동일한 기능을 의도하고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이를 해명해 보았다. 첫째, 귀신사와 선운사는 재건 이전에 존재했던 전각과 존상을 복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의 선택이 외부적 요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금산사가 도내 수사찰이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 불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귀신사와 선운사 재건역에 참여한 금산사 승려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귀신사상>, <선운사상>의 봉안공간과 두 사찰의 가람배치를 통해 금산사와 동일한 의례적 맥락을 고려했던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근 사찰에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존상이 요구되었을 때 금산사 승려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도상을 적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불상의 조성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자면 축성의례

의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세 불상은 모두 대형으로 조성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귀신사의 경우 무경자수의 「귀신사 사적기」에 인조의 친부 원종대왕이 재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필자는 해당 구절을 원종에 의한 귀신사 절수로 해석하였다. 즉 <귀신사상>의 조성 배경에는 궁방의 절수원당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작용하였다. 금산사와 선운사는 조선 초기에 원당으로 지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대형불상을 조성한 다른 사찰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모두 15-16세기부터 왕실과 관련되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 전후 대규모로 빠르게 재건되었던 것이다. 그 원인으로 왕실과 원당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명종대 내원당 정책과 내원당전의 분급은 왕실과 사찰 사이의 경제적 유착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관계는 전후 재건역 당시에도 반영되었고 왕실 관련 사찰의 이른 시기 대규모 재건으로 이어졌다. 금산사와 선운사의 이른 재건과 대형 불상 조성은 왕실과 원당의 경제적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 사찰에 조성된 불상의 의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축성의례의 대상인 삼방불상의 조성은 충의 실천이자 왕실, 관료의 재건역 허가와 후원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삼방불상의 조성은 국가와 불교계 사이의 공생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주요어 : 歸信寺, 禪雲寺, 金山寺, 비로자나 삼방불, 祝聖의례, 願堂, 17세기
학 번 : 2017-25548

목 차

I. 서론 ····· 1

II.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의 의례적 기능 ····· 9

III. 도상 선택의 배경 ····· 32

IV. 조성의 경제적 배경과 의의 ····· 56

V. 결론 ····· 76

참고문헌 ····· 81
도판 목록 ····· 99
삽도 목록 ····· 102
도판 ····· 103
부록 1 ····· 119
부록 2 ····· 130
부록 3 ····· 135
부록 4 ····· 137
Abstract ····· 138

I. 서론

조선시대 불교에는 상반되는 두 측면이 공존하였다. 조선이 유교를 근본으로 성립한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탄압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찰 문화재는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가 불교를 탄압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불교를 존속시켰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존의 연구는 불교가 가진 종교적 위무(慰撫) 기능에 주목하였다.[1] 즉 유교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은 불교가 채워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전몰자 추모를 불교가 담당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남희숙은 조선 중·후기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망자를 추복하는 수륙재(水陸齋) 의식집이 다수 간행되었던 사실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중의 차원에서 불교를 믿는 분위기가 존재했더라도, 조선의 사상적 방향은 언제나 유교를 향해 있었다. 과연 국가가 정책적 방향과 반대되는 현상을 계속 방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어 시선을 끈다.[2]

김용태와 오경후는 17세기 이후에 불교의 존재 양태를 승역(僧役)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7세기 이후 불교의 존재가 승역의 부담이라는 측면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탁효

---

1)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를 논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교문사, 1988)와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연구-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a); 남희숙, 「16-18세기 불교의식집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국문화』 34(2004b), pp. 97-165.

2)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신구문화사, 2010);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오경후,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문현, 2015).

정은 왕실 원당 연구를 통해 불교계와 왕실이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탁효정은 조선시대 전체 원당을 분석하여 유교사회에서 불교계의 존립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손성필은 16-17세기를 거치며 공적(公的) 영역 내에 안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승려라는 집단이 호적에 등재되는 현상을 파악하였고,[3] 승려가 관(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불교 측 자료에 기반을 두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경제사 자료에 눈을 돌림으로써 조선 사회의 구성원이 불교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불교가 조선에서 어떻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규명하였다.[4] 조선시대 불교계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존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교미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5]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김제 금산사 목조 비로자나 5불상>(17세기 초, 도 1, 이하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김제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620년대 후반, 도 2, 이하 <귀신사상>), <고창 선운사 목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633, 도 3, 이하 <선운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6] 여기서 삼방불(三方佛)이란 방위를 나타내는 불상의 조합을

---

3) 이와 관련한 사례연구는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2006), pp. 255-302가 있다.

4) 김용태는 유교사회에서 불교의 존립과 관련한 다수의 논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본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김용태, 「조선시대 불교의 유불공존 모색과 시대성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49(2009), pp. 5-34; 김용태, 「유교사회의 불교의례-17세기 불교 상례집의 五服制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76(2016a), pp. 169-196.

5) 임영애와 주수완이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한 바 있다. 임영애, 「完州 松廣寺 木牌와 17세기 조선시대 불교」, 『講座 美術史』 13(1999), pp. 165-175; 주수완,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 의미 연구」, 『강좌미술사』 38(2012), pp. 205-234.

6) 김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에 대한 개괄은 세한건축문화연구소, 『김제금산사 실측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1987), p. 232가 있다. 홍윤식도 간략하게 금산사 대적광전에 대해 논하였다. 홍윤식, 앞의 책(1988), pp. 414-417. 귀신사에 대한 사적과 비로자나 삼방불좌상을 대상으로 한 단독 연구는 정이담, 「金堤 歸信寺 大寂光殿 塑造三身三世佛坐像 硏究」(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이 유일하다. 정이담은 양식적 특징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필자는 이와 달리 조성의 맥락과 도상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귀신사 사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실측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5), pp. 73-80에 수록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귀신사는 발굴보고서도 작성되었다. 윤덕향·고금임 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지표 및 시굴조사 보고서-김제 귀신사』(전북대학교 박물관, 2001). 선운사 비로자나 삼방불상과 관련한 단독 연구는 문명대, 「선운사 대웅보전 무염(無染)작 비로자나삼불상」, 『강좌미술사』

말한다. 구성은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타불의 조합,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불, 미타불을 한 세트로 하는 조합으로 나뉜다. 이들은 개념상 방위를 나타내고 있어 삼방불로 칭할 수 있다.[7]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논의 전개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두를 칭할 때에는 삼방불,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조합은 비로자나 삼방불,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한 조합은 석가 삼방불로 칭하도록 하겠다. 한편 삼신불과 약사불, 미타불로 구성된 경우는 삼신불이 비로자나불로 통합된다는 사상이 화엄 교학 성립 이후에 지속되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비로자나 삼방불과 동일하다. 이 경우 구분을 위해 비로자나 5불로 칭하고자 한다.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의 해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사상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석한 연구이다. 문명대와 다케다 카즈아키(武田和昭)가 주장한 법화-화엄 융합설이 대표적이다.[8] 양자는 비로자나 삼방불

30(2008), pp. 353-378가 있다.

7)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모아지지 않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실제 명문에서는 삼세불(三世佛)로 표현되었지만, 세(世)가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 의미 모두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상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용윤, 심주완, 정은우는 그대로 삼세불로 칭하였다.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 9(2008), pp. 91-118; 심주완,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9(2008), pp. 5-40; 정은우, 「敬天寺址10層石塔과 三世佛會考」, 『미술사연구』 19(2005), pp. 31-58. 황규성은 공간적인 삼세불과 시간적인 삼세불을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횡삼세불, 후자를 수삼세불로 칭하였다. 황규성, 「朝鮮時代 三世佛 圖像에 關한 硏究」, 『미술사학』 20(2006), p. 229. 문명대는 초기에 비로자나 삼방불을 삼신삼세불로 칭하였으나 이후 삼불로 칭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윤서정도 삼불로 칭하였다. 문명대, 앞의 논문(2008), p. 357; 윤서정, 「조선시대 삼불회도 연구」(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p. 10-12. 한편 송은석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방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적확성을 위해 삼방불로 명명하였다.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사회평론, 2012), p. 35. 필자는 송은석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삼방불의 표현이 당대 오도자의 작례를 논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여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용어이므로 삼방불로 칭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송은석, 「부석사 석조문화재의 고찰」, 『영주 부석사 석조문화재 정밀실측조사보고서』(영주시, 2020), p. 289). 『宣和畵譜 一』(北京: 中華書局, 1985), p. 70. "吳道玄 字道子 陽翟人也 舊名道子……道玄供奉時為內教博士 非有詔不得畫 官止寧王友. 今御府所藏九十有三……三方如來像 一……." 밑줄 필자.

8) 문명대, 「삼신불의 도상특징과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 한국의 불화 편찬실 편, 『한국의 불화 12』(성보문화재 연구원, 1998a), p. 207-226; 『문명대, 「毘盧遮那三身佛圖像의 形式과 祇林寺 三身佛像 및 佛畵의 연구」, 『불교미술』 15(1998b), pp. 77-99. 문명대는 이 두 논문에서 비로자나 삼방불을 삼신불의 일종 보았다. 문명대, 「경천사 십층석탑 16불회도 도상의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경천사 십층석탑 II』(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p. 60; 문명대, 앞의 논문(2008), pp. 353-378; 武田 和昭, 「兵庫

과 비로자나 5불을 법화사상의 석가 삼방불과 화엄사상의 삼신불(三身佛)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두 연구자는 조선 전기의 종파 통폐합으로 인해 화엄과 천태의 도상이 합쳐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건립된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이미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보이기 때문에 종파 통폐합의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석가 삼방불의 도상 구성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강소연은 『섭대승론(攝大乘論)』에 나오는 삼신불(三身佛) 사상이 비로자나 5불 도상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9] 그러나 법상종(法相宗)이 고려 말부터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조선 초기에도 역시 주목되는 인물을 배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논서(論書)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경미는 비로자나 삼방불이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분별삼신품(分別三身品)」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10] 김경미는 비로자나 삼불 도상을 석가, 비로자나, 미타불의 삼불로 해석하고 미타불이 보신이므로 삼신불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기에 경전의 유행, 기능하는 맥락, 동시대 인물의 인식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수긍하기가 어렵다.[11]

十輪寺の五仏尊像図について」, 『密教図像』 7(1990), pp. 9-22; 이승희, 「1628年 七長寺 〈五佛會掛佛圖〉研究」, 『미술사논단』 23(2006), p. 180;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시공아트, 2008), p. 80; 유마리, 「多佛 (三身三世佛) 괘불화」, 『강좌미술사』 33(2009), pp. 171-193; 박은경, 「안성 칠장사 法泂 作 오불회괘불의 재검토」, 『불교미술사학』 13(2012), pp. 65-106; 김창균, 「조선시대 삼신삼세불 도상연구」, 『강좌미술사』 32(2009), pp. 103-144; 김선희, 「浮石寺 三身三世佛掛佛圖 研究」, 『강좌미술사』 39(2012), pp. 121-138; 김선희, 「조선시대 17~18세기 三身三世佛掛佛圖 양식 연구」, 『미술문화연구』 3(2013), pp. 43-66; 윤서정, 앞의 논문, p. 22.

9) 강소연, 「五佛尊의 조화, 조선전기 불교의 會通의 原理ㅡ일본 兵庫縣 十輪寺 소장 <五佛尊圖>를 중심으로ㅡ」, 『불교미술사학』 5(2007), pp. 306.

10) 김경미, 「조선 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155-166; 김경미, 「조선 전반기 三身 三世佛 조성에 대한 연구」, 『한국학연구』 49(2014), pp. 15-18.

11)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한 연구자들은 대개 삼방불 도상이 통불교적(通佛敎的)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문명대는 조선불교 특유의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문명대, 앞의 논문(1998b), p. 363; 황규성, 앞의 논문, p. 245; 김선희, 앞의 논문(2012), pp. 121-138; 김경미, 앞의 논문(2013), p. 29; 윤서정, 앞의 논문, p. 118. 삼방불상을 통불교적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동시기 중국 삼방불상의 유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통불교적 사례의 대표로 언급되는 석가, 약사, 미타불을 한 세트로 하는 삼방불 도상, 다른 존격을 모신 여러 전각이 한 사찰에 구현되는 사례는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何孝榮, 『明代南京寺院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삼방

또 하나의 견해는 시방삼세불(十方三世佛)의 맥락에서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주완은 이 도상이 시방삼세불의 맥락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시방삼세불의 대표격이라고 해석하였다.[12] 이용윤은 삼세불의 개념 변화를 추적하여 시간적 삼세에서 공간적 삼세로의 이행을 논증하였다.[13] 그리고 이용윤은 왕실을 축원하는 축상(祝上)작법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불교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석가 삼방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았다.[14] 이용윤의 연구는 의례와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자 역시 의례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15] 송은석은 방위의 개념으로 이 도상이 조성되었으며, 그 원인이 원대 유행한 티베트 불교에 있을

불상을 조선 특유의 통불교적 성격으로 규정하게 되면, 동시기 중국의 비슷한 사례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불교는 보편성을 상실한 채 신라, 고려와 다른 폐쇄적인 성격의 불교가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삼방불상의 유행이라는 현상은 통불교 담론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12) 심주완, 앞의 논문(2008), pp. 10-11. 심주완은 시공간적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여러 의식집에서 나오는 시방삼세제불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상적 차원에서 논증한 것은 아니지만, 종파를 초월한 통합 불교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황규성도 삼세불이 시방삼세불의 대표라고 주장하였으나 전체 논지상 법화사상과 석가 삼방불을 연관시키고 있다. 황규성, 앞의 논문, p. 227.

13) 이용윤, 앞의 논문, pp. 91-118.

14) 위의 논문, p. 96. 윤서정은 통불교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이용윤의 견해를 수용하여 축상작법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양자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15) 한국 불교미술을 의례와의 관련성 하에서 분석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홍윤식, 『한국불화의 연구』(원광대학교 출판부, 1980); 이영숙, 「朝鮮後期 掛佛幀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정명희, 「朝鮮 後期 掛佛幀의 硏究」, 『미술사학연구』 242·243(2004a), pp. 159-195; 정명희, 「의식집을 통해 본 괘불의 도상적 변용」, 『불교미술사학』 2(2004b), pp. 6-28; 정명희, 「불교의례와 시각문화」, 『불교미술, 상징과 염원의 세계』, 국사편찬위원회 편(두산동아, 2007), pp. 214-277; 정명희, 「의식, 관상, 환영-기능적 측면에서 본 고려불화」, 『고려불화대전』(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258-271; 정명희, 「이동하는 불화: 조선후기 불화의 의례적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 10(2011), pp. 100-141; 정명희, 「<長谷寺 靈山大會掛佛幀>에 보이는 도상의 중첩과 그 의미」, 『불교미술사학』 14(2012), pp. 71-105; 정명희,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畵 硏究」(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연구사 정리는 강희정, 「한국 불교미술 연구의 새로운 모색 : 이미지: 도상과 기능의 소통을 위하여」, 『미술사와 시각문화』 6(2007), pp. 134-169가 좋은 참고가 된다. 국외에서 미술품의 의례적 맥락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Hans Belting. *Likeness and Presence: A History of the Image before the Era of Art*.(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K.R. van Kooij and H. van der Veere, eds., *Function and Meaning in Buddhist art: proceedings of a seminar held at Leiden University*. (Groningen : Egbert Forsten, 1995).

것으로 추정하였다.[16] 필자는 이용윤, 송은석의 견해에 기반을 두면서 추가적으로 역사적 맥락을 검토할 것이다.[17]

비로자나 삼방불상은 17세기에 단 3건만 불상으로 조성되었다. 같은 시기에 대부분의 사찰에서 동일한 개념의 석가 삼방불상이 주불전에 봉안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비로자나 삼방불상의 조성은 이례적이다. 특히 <귀신사상>, <선운사상>,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지역적으로 전북일대, 특히 조선시대 전주부(全州府)에 분포하고 있어 그 지역적 특이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선운사, 금산사 불상의 경우 3m에 근접하는 크기이며 <귀신사상>은 4m가 넘는 대형으로 조성되었다.[18] 대형불상의 조성은 상당한 경제적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비로자나 삼방불상의 의례적 기능과 그것이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찰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찰의 기능이 대형 불상 조성의 경제적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의 기능이란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찰의 성격이다. 대표적인 예로 왕실 원당(願堂), 종이를 공급하는 지소사찰(紙所寺刹)이 있다. 불교사 연구에서는 사찰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불교미술사에서 이것을 고려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19] 사찰의 기능은 조선시대 사찰의 존재 근거이며 17세기 재건역 과정에서 경제적 후원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20] 따라서 사찰의 기능에 주안을

---

16) 송은석, 앞의 책, pp. 32-37.

17) 장충식도 석가, 약사, 미타불을 그린 불화를 분석하며 각 존상이 세계의 교주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타불, 약사불이 내세, 현세 이익적 성격으로 조성되었다고 하였다. 장충식,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화의 도상」, 『한국 불교미술의 연구』(시공아트, 2004), pp. 151-172.

18) 17세기 전반 대형 불상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관한 硏究」, 『미술사연구』 233·234(2002), pp. 95-138이 있다.

19) 불교사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한기문, 『고려 사원의 구조와 기능』(민족사, 1998);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경인문화사, 2007); 여은경, 「朝鮮後期의 寺院侵奪과 僧契」, 『慶北史學』 9(1986), pp. 37-92; 여은경,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摠攝」, 『대구사학』 32(1987), pp. 49-87.

20) 불교미술과 후원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이강근,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硏究」(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이 있다. 이강근의 연구는 상량문, 비문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문도의 후원과 재건역의 관계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이후 김정희는 불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왕실의 불사후원에 집중하며 내수사, 궁방까지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두어 불상 조성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겠다.

본고는 비로자나 삼방불상의 의례적 기능,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II장에서는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과 <귀신사상>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후 세 불상이 17세기에 주불전 내부에 봉안되었기 때문에 주불전 내부에서 설행되는 의례를 분석하여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말선초부터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어떤 의미로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왜 비로자나 삼방불상이 전주부 일대 사찰에서만 조성되었는지를 해명할 것이다. 금산사를 중심으로 이들 사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이 도상이 선택되었던 이유가 앞 장에서 설명한 의례적 기능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이 세 불상이 대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찰의 기

데, 본고의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대표적 논고로는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畵」, 『美術史學硏究』 231(2001), pp. 5-39; 김정희,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敎美術」, 『미술사논단』 25(2007), pp. 107-150 ; 김정희, 「조선시대 왕실불사의 재원」, 『강좌 미술사』 45(2015a), pp. 229-259 ; 김정희, 「조선 전반기 회암사의 왕실후원자와 왕실발원미술」, 『회암사와 왕실문화-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II』, 회암사지박물관 편(양주 회암사지박물관, 2015b). pp. 30-69 ; 김정희, 『왕실, 권력, 그리고 불화』(세창출판사, 2019)가 있다. 그러나 김정희의 연구는 왕실화풍이라는 양식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후원 양상과 의미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승희는 불화제작 후원자를 분석하며 17세기 후원양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재건역 전반에 대한 확장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이승희, 「17세기 佛畵製作後援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30-2(2004), pp. 30-64. 강희정은 조선전기 여성의 불교미술 후원에 대해 다루었다. 강희정, 「조선전기 불교미술의 여성 후원자」,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의 새로운 모색』(학연문화사, 2011), pp. 185-206. 강희정은 왕실, 자손의 번영을 목적으로 불교미술을 발원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유교적 충효이념의 실현으로 이것을 해석하였다. 유의미한 결론이지만 왕실여성에만 한정하였고 구조적인 틀을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발원, 간절한 마음을 담다' 전시 도록에서는 불교미술과 후원자 사이의 본격적으로 관계를 다루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편, 『발원, 간절한 마음을 담다: 불교미술의 후원자들』(국립중앙박물관, 2015. 이 전시는 고려-조선시대에 후원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구조보다는 개인 인물의 성향이나 신앙심이라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배경과 연결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교사에서는 황현정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 청룡사의 후원자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010), pp. 201-238;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지역 불사와 후원자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12); 황현정, 「19세기말 왕실의 안성지역 사찰 후원」, 『지방사와 지방문화』 15(2012), pp. 77-119; 황현정, 「朝鮮後期 驪興 閔門의 佛敎 後援-驪州, 安城 지역을 中心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015), pp. 123-161. 황현정은 개별 사례에 대한 접근을 하여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술사 자료까지 이용하여 폭넓게 연구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능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사찰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대형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이 설명될 것이다. 더하여 이들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대형불상의 사례를 검토하여 삼방불상 조성의 의의를 확장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삼방불상 조성의 의의를 결론 내리고자 한다.

II.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의 의례적 기능

본고의 대상이 되는 불상은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귀신사상>, <선운사상>이다. 이중에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편년이 확정적이지 않다. 이 세 불상의 선후관계와 도상적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우선 기초적인 검토를 하여 편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귀신사상>은 기록에 존명이 없이 '佛像三尊'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도상 판별 자체에서 시작해야한다. 이러한 점을 검토한 뒤 의례적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현재 소실되어 구체적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의 관심이 적어 이 불상의 조성 연대, 봉안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봉안공간이었던 대웅대광명전의 존재 여부와 그 안에 봉안된 존상의 대략적 편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강근은 「전라우도 금구현 모악산 금산사 대적광전 중수상량록(全羅右道金溝縣母岳山金山寺大寂光殿重修上樑錄)」(1882, 이하 「대적광전 중수상량록」)의 초창대시주질에 나온 민정중(閔鼎重, 1628-1692),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등 숙종대 인물을 근거로 1986년 소실된 금산사 대적광전이 1686년에 초창되었다고 결론지었다.[21]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대적광전 초창 이전에 이 위치에 대웅대광명전이 존재하였으며 그 안에 비로자나 5불상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금산사 승려 중관 해안(中觀 海眼, 1567-?)이 작성한 「금산사 사적」(1635)은 17세기 전반 금산사의 가람구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22] 중관 해안은 「금산사 사적」에서 옛 액명(額名)을 나열한다고 한 후 대웅대광명전을 시작으로 여러 전각과 그 안에 봉안된 존상을 기록하였다. 나열된 액명 중 대적광전은 보이지 않고 대웅대광명전(大雄大光明殿)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관 해안이 작성할 당시에 대적광전은 없고 대웅대광명전만 있었던 사

21) 이강근, 앞의 논문(1994), pp. 129-136.
22) 이하 「금산사 사적」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산사 관련 문헌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금산사지』(아세아문화사, 1983)을 저본으로 하였다.

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대웅대광명전의 세주(細註)에는 20칸이며 삼신불과 미타불, 약사불, 보처존(補處尊)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23] 기존 연구에서는 여기에 나열된 액명을 신라-고려 시대에 존재했던 전각의 액명으로 보아 대웅대광명전과 그 안의 존상이 1635년 재건역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24] 그러나 다음의 사실로부터 「금산사 사적」에 나열된 액명이 재건역 이후의 결과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뇌묵당 처영의 부도가 「금산사 사적」에 등장한다. 뇌묵 처영(雷默處英, ?-1630년대)은 임진왜란기 의승병으로 활약한 금산사 승려이며, 입적 연도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최소 1630년대까지는 생존하였다.[25] 그렇다면 나열된 액명은 단순히 신라와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전각만이 아니라 재건역 이후의 결과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광명대(光明臺)의 세주에 "한 쌍, 기단이 있으나 현재는 없다"[26]라는 말을 통해서 현존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은 재건역 이전의 전각명도 반영되었지만 현존하지 않았다면 그 여부까지도 기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없다는 표현이 없는 전각의 경우, 재건역 당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산사 사적」의 대웅대광명전 삼신불, 약사, 미타 5여래와 각 보처존 기록 바로 뒤에 '옛날[古時]에 서방찬도, 장시발타가 벽면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27] 이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웅대광명전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작성 당시의 대웅대광명전 벽에 서방찬도, 장시발타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존재했던 사실을 부가한 것이다. 만약 작성 당시 대웅대광명전이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옛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

---

2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p. 206. "大雄大光明殿 二十間 三身佛 藥師 彌陀 五如來 各補處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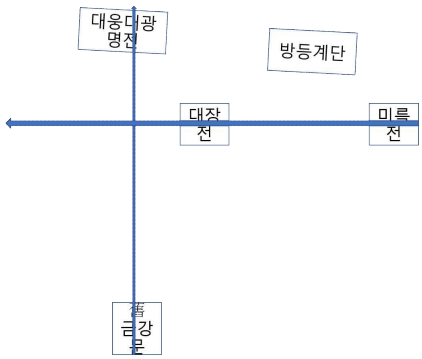
24) 이강근, 앞의 논문(1994), p. 93; 오세덕, 「금산사 가람배치의 변화와 후원자」, 불교중앙박물관 편, 『모악산 금산사 :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불교중앙박물관, 2019), pp. 285-286. 이강근은 대웅대광명전이 17세기 재건 이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1601년부터 1686년 대적광전 창건 이전까지 대웅대광명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2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p. 207. "朝鮮宣祖朝國一都大禪師扶宗樹敎葆光玄朗雷默石鐘 一座" 뇌묵 처영의 생몰에 관해서는 김상영, 「雷默 處英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상」, 『불교연구』 48(2018), pp. 1-27 참고.

2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p. 67. "光明臺 一双竝基階 今無"

27) 위의 책, p. 206. "古時 畵西方讚圖 長施勃陀於壁面"

나, 써도 삼신불 앞에 써서 모두 옛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자연스럽다. 5불상 뒤에만 '옛날'을 표기했던 사실은 비로자나 5불상이 작성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삽도 1 17세기 초 금산사 배치

또한 가람의 축선을 살펴봄으로써 대웅대광명전의 존재와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구(舊) 금강문을 기준으로 남북축선을 긋고, 미륵전을 기준으로 동서축선을 그으면 두 축선이 현 대적광전 앞에서 직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삽도 1). 이는 17세기 초 재건역 당시 구 금강문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축선이 가람배치에서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만약 남북축선상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었다면 애초에 남북축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후술하겠지만 17세기 가람배치의 경향이 정문-대웅전을 중심축선상에 배치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금강문과 동일선상에 대웅대광명전이 배치되어야 자연스럽다. 또한 봉안된 비로자나 5불상도 17세기 초반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남북축선 상에 대웅대광명전이 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금산사 사적」의 기록에 의해 1635년 이전 대웅대광명전이 존재하였고 그 안에 삼신불과 약사불, 미타불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귀신사상>의 도상을 판별하도록 하겠다. <귀신사상>은 동일한 도상으로 조성된 <선운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도상을 판별할 수 있다. <선운사상>의 경우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타불로 조성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28] <귀신사상>은 이와 동일한 도상을 갖추어 비로자나 삼방불상일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귀신사상>의 도상이 삼신불일 가능성도 있지만, 삼신불의 도상적 특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보은 법주사 소조 삼신불좌상>(1626, 도 4, 이하 <법주사 삼신불상>)와 <구례 화엄사 소조 삼신불좌상>(1635, 도 5, 이하 <화엄사 삼신불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주사 삼신불상>은 중존이 지권인, 향좌측 존상이 촉지인, 향우측 존상이 설법인을 취하였다. 촉지인을 취한 경우 명백하게 석가모니불이므로 석가모니와 비로자나불의 도상은 명확하다. 한편 향우측 존상을 약사불로 판별하는 경우가 있는데,[29] 석가모니불-비로자나불-약사불의 조합은 전무후무한 도상 구성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중관 해안의 「법주사 대웅대광명전 불상조성기」에 불상을 설명하며 "有三身 … 一則三三則一"이라고 기록하여 삼신불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0] 노사나불은 대개 불화에서 장엄신(莊嚴身)이며 양 팔을 바깥으로 벌리는 수인을 취하지만, 대형불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설법인 좌상으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도상적 특징이 더욱 명료하다. 우선 가운데 존상은 지권인을 취하고 있으며, 향좌측 존상은 촉지인, 향우측 존상은 장엄신에 양 팔을 바깥으로 벌리는 노사나 설법인을 취하였다. 이 경우도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은 도상적 특징이 매우 명료하다. 삼신불 표현에 있어서 석가모니불만큼은 분명하게 촉지인을 취하고 있으므로 <귀신사상>은 삼신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귀신사상>은 비로자나, 약사, 미타불의 삼방불로 보아야 한다.

이상 기초적 검토를 통해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귀신사상>, <선운사상>이 동일한 도상의 불상임을 확인하였다.[31] 이하 이 도상으로 조성된 불상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 세 불상은 모두 주불전 즉

---

28) "崇禎六年癸酉二月日始役 爲定毘盧佛 藥師如來 阿彌陀佛木三尊" 판독 저본은 송은석, 앞의 책, p. 402.

29) 김창균, 「법주사 대웅보전 봉안 소조삼불좌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4(2005), p. 64.

30) 『중관대사유고』,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 "山之寺之殿之相之有三身也 絶視聽離方處 千百億化身 一則三三則一" 밑줄 필자.

31)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배열은 향좌측부터 미타-석가-비로자나-노사나-약사불이다. 세한건축문화연구소, 앞의 책, p. 232.

대웅전, 대적광전에 봉안되었다. 따라서 이 불상의 의례적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초 주불전에서 어떠한 의례가 설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비로자나 삼방불과 동일한 개념을 가진 석가 삼방불 도상은 명종대 이후부터 서서히 등장하여 위 세 불상이 조성될 때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의례가 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대웅전 내부에서 설행되는 일상의례의 변화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은 명종대이다. 명종대 이후로 석가삼방불 도상의 조성사례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17세기부터는 대다수 사찰의 주불전에 불상으로 봉안되었다. 따라서 명종대 간행된 의식집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공양의식집이 새롭게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의식집으로 『운수단가사』(1588),[32] 『영산대회작법절차』(1613)가 있다. 『운수단 가사』는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이 찬술한 공양의식집이다. 한편 『영산대회작법절차』는 17세기 초 간행본이 가장 이르지만, 그 원본인 『공양의문(供養儀文)』이 1564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16세기 중반 의례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33] 『영산대회작법절차』도 마찬가지로 공양의식집이며 표제가 「공양문(供養文)」이라는 사실로부터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의식집에서 공양의례가 설행되는 장소는 모두 주불전이다. 그리고 두 의식집은 일상적으로 설행되는 공양의례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불전 내 불상의 도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의식집들을 분석함으로써 17세기 초 주불전에서 설행되었던 의례의 성격과 그것의 대상이 되었던 존상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의식집은 공양의례와 축성의례의 결합, 별도의 축성

32) 김성일, 「청허 휴정의 『운수단』가사 연구」(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 19에서는 1557년으로 보고 있으나 확정하기는 어려워 16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33) 『공양의문』의 존재와 연대는 이용윤, 앞의 논문, p. 96. 본고의 불서(佛書)는 초간본을 기준으로 연도를 작성하였다. 『영산대회작법절차』의 차서에 대해서는 서정매, 「영제영산작법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공연문화연구』 27(2013), pp. 165-212; 고상현,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 『문화재』 49-4(2016), pp. 180-195. 영산재 전반에 대한 연구는 심효섭, 「朝鮮前期 靈山齋 硏究」(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a); 심효섭, 「조선전기 영산재의 성립과 그 양상」, 『보조사상』 24(2005b), pp. 247-282이 대표적이다.

의례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의식집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영산대회작법절차』의 추천즉(追薦則) 바로 앞 부분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추천즉은 망자 천도 의례가 선택사항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망자 천도의례와 구분되는 절차로 추천즉 앞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34]『영산대회작법절차』의 추천즉 이전 부분에는 세주로 진공시(進供時)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명발(鳴鈸)하고 별소(別疏)를 읽은 후 축상(祝上)작법을 하라는 지시가 있다. 여기서 축상작법은 바로 뒷 구에 나오는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제년, 세자저하 수천추'이다. 이 구절은 이른바 삼전축원(三殿祝願)으로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상투구절이다. 이를 통해 왕실 축원의례가 주불전에서 설행되는 일상공양의례 안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35] 주목되는 점은 15세기 공양의식집인『진언권공』(1496)「작법절차」의 동일한 부분에 삼전축원과 관련된 지시문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6세기 중반『공양의문』의 작성 당시에 삼전축원이 공양의례 안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6]

또한『영산대회작법절차』에는 뒤에「별축상작법(別祝上作法)」이 수록되어 있다.「별축상작법」은 새해 첫날 설행하는 왕실 축원의례이다. 이 의례 역시 법당(法堂) 즉 주불전에서 행해졌다.[37] 의례 절차 중 삼전하축수(三殿下祝壽)절차에서 무량수불(無量壽佛), 약사불, 석가불이 각각 주상전하, 왕비전하,

---

34)『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1661)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오종범음집』「영산작법」의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자가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저자는 "청량월의 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관련이 없으니, 금년 연소한 어산(魚山)이 함부로 한 것을 어찌 금하리오."라고 하여 의례를 잘못 행하는 어산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량월 운운하는 게송이 바로『영산대회작법절차』의 추천즉 바로 뒤에 나오는 게송이다. 당시 몇몇 어산들이 망자 천도의례가 아니면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즉 망자천도와 아닌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하였던 것이다.

35) 다만「작법절차」에서도 명발 후 축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축원으로 생각된다. 삼전하 축원일 경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부분의 의식집에서는 축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의식집의 성격을 축성의례와 연관 지은 사례도 보이지 않아 해당 축원을 삼전축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6) 17세기 말 금산사에서 간행된『제반문』(1694)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제반문』의「거영산작법절차(擧靈山作法節次)」처음에는 영혼식이 들어가 있다. 영혼식 아래 부(附)가 세주로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망자천도 의식으로 개최할 경우 영혼식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영혼식 차서 뒤부터 '공양문'이 나온다. 이 부분도 불보와 천선신중에 대한 의례를 행한 이후 마지막에 추천일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도 축원이면 삼전하 축원을 하라는 지시문이 역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의 변화가 17세기 전체에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7) 박세민 편,『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2』(삼성암, 1993b), p. 143. "大衆入法堂"

세자저하에 일대일 대응되어 있다.[38] 여기서 삼전하와 대응되는 석가, 약사, 미타불은 석가 삼방불 도상과 일치한다.[39] 또한 「별축상작법」의 마지막 부분에 '상례축상(常例祝上)'이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늘 행하는 축상작법 절차이다. 일상 공양의례에서 이미 삼전축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행하는 축성의례가 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1575년 간행된 보림사본 『제반문(諸般文)』에도 「별축상작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축성의례의 빈도,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운수단가사』도 축성의례를 공양 의례 안에 포함시켰다.[40] 이와 관련하여 중관 해안이 쓴 『설선의(說禪儀)』 「후발문(後跋文)」(1634)이 주목된다. 중관 해안은 여기서 "운수단, 설선의 등의 글은 청허대사께서 여러 산의 운수납자가 산에서 축리할 때를 위해 근원부터 이르지 않고 만든 별도의 수단이다"라고 언급하였다.[41] 중요한 것은 축리 즉, 축성의례의 의식집으로 『운수단』을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운수단가사』의 부록에 있는 「염향식(拈香式)」을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38) 박세민 편, 앞의 책(1993b), p. 146. "次三殿祝願 無量壽佛(再稱). 主上殿下 壽萬歲. 無量壽佛(三□三答下皆如上) 藥師如來(再稱) 王妃殿下 壽齊年. 釋迦如來(再稱) 世子邸下 壽千秋"

39)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이용윤이다. 이용윤, 앞의 논문, p. 96. 다만 「별축상작법」은 상시 설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례축상과 공양의례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0) 『운수단가사』도 하단에 해당하는 망자천도의례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도의례를 행할 때에 한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문은 따로 적혀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1664년 해인사에서 간행된 『운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인사 간행 『운수단』의 부록인 「하단배치규식(下壇排置規式)」에 의하면 하단이 항상 마련된 단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내용상 하단은 망자천도가 필요할 경우 벽에 가설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정명희, 앞의 논문(2013), p. 161. 『진언권공』은 일상 공양의례와 망자 천도 의례를 따로 분리해서 수록하였던 반면 『영산대회작법절차』, 『운수단가사』는 합쳐서 수록한 후 상황에 맞게 천도 또는 공양으로 결정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상 공양의례와 천도의식의 결합은 『진언권공』 「작법절차」와 다른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는 망자 천도의례의 설행 빈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망자천도 의식이 일상 의례문에 포함되는 현상과 주불전 내부에 마룻바닥이 깔리고 불단의 점유비가 높아지는 등, 내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끔 불전 내부가 바뀌는 현상은 17세기 이후 민간의 수요에 부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송은석, 「조선 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 263(2009), p. 80.

41) 박세민 편, 앞의 책(1993b), p. 45. "雲水壇說禪儀等文 乃淸虛大老師 爲諸山衲子 在山祝釐 不至濫觴 別一手段也"

수 있다. 「염향식」은 향을 꽂는 의식이다. 「염향식」은 시작단계에서 주상전하 장엄성수를 언급하고 있다.[42] 뒤에 영가(靈駕)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천도의식에서의 염향축수 규식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양을 하고서 회향할 때 '주상전하 용루만세 봉각천추 왕비전하 금지울울 옥엽수수'의 구절이 보인다.[43] 해인사에서 간행된 『운수단』(1664)에도 하단의식까지 모두 끝난 이후 삼전축원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선의』 후발문에서 이 의식집을 축성의례 의식집으로 인식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축성의례가 공양의례 안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16세기 중반 이후 의식집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축성의례와 공양의례의 결합, 별도의 축성의례의 성립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명종대를 기점으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의 내원당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문정왕후는 적극적으로 내원당(內願堂)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원당은 원래 궁중에 있는 불당을 의미하거나 궁 근처에 위치한 왕실 원당을 말한다.[44] 문정왕후 섭정기에 내원당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395개소까지 지정되었다.[45] 내원당의 기능이 왕실에 대한 축원이었기 때문에[46] 문정왕후의 내원당 확장 정책은 곧 축성의례의 보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승려 문집에 축성의례 관련한 내용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부록 1). 앞서 살펴본 공양의례 안에 축상작법의 포함, 별도의 축상작법의 성립은 내원당의 증가에 따른 귀결이었던 것이다. 두 의식집이 내원당 확대 이후에 찬술되었던 것은 내원

42) 박세민 편, 앞의 책(1993b), p. 59. "奉爲主上殿下 莊嚴聖壽 信手拈來 爇向爐中"

43) 위의 책, p. 59. "伏願主上殿下 龍樓萬歲 鳳閣千秋 王妃殿下 金枝欝欝 玉葉垂垂" 아울러 금산사 간행 『제반문』에는 해당 염향식이 「거영산작법절차」에 한 부분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 때 '축원이면 주상 운운, 추천이면 영가 운운'이라는 지시문이 보인다. 이 지시문의 의미는 축원일 경우 뒤에 '영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상전하'로 바꾸어 쓰라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44) 탁효정, 앞의 논문(2011), pp. 13-14.

45) 위의 논문, p. 125.

46) 『명종실록』 권16 명종 9년(1554) 5월 19일. "여러 산의 사찰을 내원당이라 칭하고 또 금지 푯말을 세우는 일은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바로 근래에 비롯된 것입니다. 하물며 내원당이란 이름은 더욱 무리한 것입니다. 위에서는 반드시 복리의 일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시나 …";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1550) 3월 21일. "상께서 이와 반대로 하시기 때문에 근일 내원당은 제 맘먹은 대로 행하고 위복(威福)의 일을 서슴없이 하므로 범람한 폐가 많이 있습니다."

당의 확장으로 인해 축성의례가 요구되어 의례의 개편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축성의례가 널리 설행되었다면 이에 맞는 도상이 이 때부터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전축원이 주불전에서 늘 행해졌으며, 공양의례와 축성의례가 결합하였다면 이에 맞는 주불전 불상의 도상은 무엇일까. 주불전 내 불상의 도상은 공양의례에서 소청(召請)되는 거불(擧佛) 대상과 관련이 깊다.[47] 거불이란 의례의 과정에서 특정한 여래를 부르는 절차이다. 따라서 주불전 내부에서 요청되는 거불은 곧 주불전 내부 존상의 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각 의식집에 나온 거불 대상을 살펴보면서 소청되는 존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진언권공』「작법절차」의 거불에는 법화(法華), 화엄(華嚴), 미타참(彌陀懺), 참경(懺經), 지장(地藏)의 5종 거불이 존재한다. 각 거불은 뒤에 '則'자가 붙어 '法華則', '華嚴則'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則'자의 존재는 이것이 선택사항이었음을 말해준다. 즉 「작법절차」는 조선 초 기록에 자주 보이는 법석(法席)을 중심으로 하는 공양의례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법석의 종류에 맞게 거불을 결정하라는 뜻이다.[48] 달리 말하면 주불전 내 도상이 법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법화거불, 화엄과 관련되어 있다면 화엄거불로 소청한다는 의미가 된다. 「작법절차」에서 이처럼 다양한 거불이 수록되었던 이유는 15세기 당시 주불전 내부에 종파, 결사의 성격과 관련된 불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49] 특히 『진언권공』은 중앙에서 400부를 인출하여 지방으로 보급

47) 괘불의 도상이 의식집의 거불절차에 근거했다는 점을 규명한 연구는 정명희, 앞의 논문(2004a), p. 16; 정명희, 앞의 논문(2013), p. 63이 대표적이다.

48)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2015), pp. 417-449.

49)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에 있었던 문수사에는 문수보살이 주존불로 있음이 확인된다. 『동문선』 권 71 「동유기」. 천태종 사찰인 국청사의 주불전에는 석가삼존불이 봉안되었다. 『동문선』 권 68 「국청사 금당주불 석가여래사리영이기」. 진주 보양현 영봉산 용암사는 천태종의 무외국사 정오가 발원하여 석가 삼존불이 봉안되었다. 『동문선』 권 68 「용암사 중창기」. 천태종이 고려 후기 백련결사를 주도하면서 아미타신앙이 천태종에서 보이는데 무외국사가 중수한 월출산 백운암에 목조 아미타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동문선』 권 117 「미타상점안경찬소」. 철원 보개산 석대암은 지장보살이 주존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장보살과 관련한 영험기가 전해져 그 영향으로 파악된다. 『동문선』 권 75 「보개산 석대암 지장전기」. 경천사 역시 큰 문제없이 고려 말까지 기신재 도량으로 기록되었다. 주불전 내 존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황후의 원찰이 되었던 시점에 주불전 내부까지 모두 교체된 것은 아닌 듯 보이며, 기존

했던 의식집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거불을 수록했던 것이다.[50] 「작법절차」에 언급된 거불 대상 중 공간적 차원의 제불은 법화거불의 석가불, 다보불, 미타불과 화엄거불의 삼신불뿐이다. 여기서 법화거불의 3불은 각각 사바세계, 동방세계, 서방세계 교주로써의 성격을 갖는다.[51] 이처럼 다양한 거불이 수록되었던 것을 통해 조선 초 공양의례에서는 방위를 나타내는 거불의 소청 빈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영산대회작법절차』에는 『진언권공』의 「작법절차」와 동일한 종류의 거불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영산대회작법절차』는 제목이 영산대회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화거불이 의례의 소청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법절차」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작법절차」의 "至心歸命禮 久遠劫中 成登正覺 常主靈山說法華經 我本師釋迦牟尼佛"의 구절은 앞에 '法華則'이 붙어있어 법화거불을 하였을 경우에만 설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산대회작법절차』의 해당부분에는 따로 지시문이 없다. 법화거불을 통한 절차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시문을 부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하여 17세기 초부터 상단 예불을 영산회로 인식했던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거불절차는 상단 예불(禮佛)의 일부이다. 17세기에 상단을 영산회로 인식했던 사례로 1622년에 작성된 「서울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복장 발원문」이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자수원, 인수원에 삼신

전각 내에 불상은 유지되고 탑을 신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각사의 경우 주불전은 대광명전으로 확인되며, 나한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각경 변상도에 보이는 노사나불 및 보살, 나한을 봉안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종실록』 권 117, 성종 11년(1480) 5월 29일. 조선 전기까지 고려시대 주전각 내 존상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 억불책에도 불구하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여전히 1600개 이상의 사찰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앞서 백련결사와 천태종의 신앙과 그것이 여말선초 불교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할 수 있다. 고익진, 「法華經 계환해의 성행내력고」, 『佛敎學報』 12(1975), pp. 171-198; 심효섭, 「조선전기 법화신앙과 왕실의 영가천도재」, 『한국불교문화연구』 4(2004), pp. 257-273; 이승희, 「고려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이승희, 「영산회상변상도 판화를 통해 본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변화」, 『미술사연구』 28(2014), pp. 135-167,

50) 박세민 편, 『한국불교의례총서 1』(삼성암, 1993a), p. 496. "시식과 권공은 매일 쓰고 항상 행하는 법사(法事)이나 … 상세히 교정하고 바름을 얻어 400건을 인출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였다."

51) 송은석, 앞의 책, p. 35 주8 참고. 『묘법연화경』 「견보탑품(見寶塔品)」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보배탑 가운데는 여래의 전신이 계심과 같나니, 오랜 과거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서 보정(寶淨)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이 다보(多寶)였느니라."

불상과 후불탱화인 삼신대영산회탱(三身大靈山會幀)을 봉안했다고 한다.[52] 이 불사에서 삼신불 후불탱은 상단 예경의 대상으로 봉안되었기 때문에 화엄이 아닌 영산회로 기록되었다. 영산회는 일상의례에서의 공양절차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의례의 재전작법 즉 본 의례 이전에 행해지는 작법으로 인식되면서 야외의례의 경우에도 상단작법이 곧 영산회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53]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단이 영산회이므로 법화와 관련된 존상이 봉안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종합하면『영산대회작법절차』의 공양의례에서 소청되는 존상은 법화거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 간행된『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1661)「영산작법(靈山作法)」의 거불 절차에도 반영되었다.『오종범음집』의 거불절차에는 법화거불만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화거불에 해당하는 석가불, 다보불, 미타불과 같은 성격을 지닌 공간적 차원의 제불이 공양의례에 적합한 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화거불의 존상이 불전 내 불상으로 조성된 경우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불좌상>(1703, 도 6) 하나뿐이다.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의식집의 공양의례 안에 축성의례가 포함되었고, 별도의 축성의례가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앞서『영산대회작법절차』「별축상작법」에서 확인하였듯이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그 기능이 명확하게 지시된 것은 석가 삼방불이었다. 그리고 석가, 약사, 미타의 삼방불은 석가, 다보, 미타불의 법화거불과 마찬가지로 사바, 동방, 서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석가 삼방불은 공양의례와 축성의례 모두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화거불보다 석가 삼방불이 선호되었던 이유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54]

한편『운수단가사』의 거불 즉, 소청상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문불, 극락교주 아미타불, 당래교주 미륵

52) 이 불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송은석,「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석당논총』67(2017), pp. 1-38.
53) 정명희, 앞의 논문(2013), pp. 89-90.
54)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둘 점은 일체제불의 개념으로 여러 여래를 소청하는 의례는 의식집에서도 보인다는 것이다. 그 경우는 설행 빈도 상 일시적인 의례의 대상이며, 주불전에서 항상 설행되는 의례가 아니므로 본고의 맥락과 차이가 크다.

존불, 시방삼세 일체상주 진여불보'가 언급되어 있다. 청허 휴정이 이해한 시방삼세제불은 삼신불과 과거-미래를 상징하는 미타, 미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칠대만법』, 『권공제반문』의 「가사청」, 「점안문」에서 삼신불은 특정 공간의 교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소청하는 경우라 하겠다. 휴정은 여기서 시간적인 차원을 포함시키고자 약사불 대신 미륵불을 포함시켰다. 『운수단가사』에는 소청상위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거불은 없다. 이는 시간, 공간을 포괄하는 제불이 공양의례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 공양의례에서 소청되는 대상은 공간을 포괄하는 제불로 정착되었다. 축성의례가 공양 의례 안에 포함되었고 일상적으로 축성의례가 설행됨으로서 공간적 차원의 제불 도상이 축성의례와 더 강하게 결합하게 되었다. 또한 『영산대회작법절차』의 「별축상작법」에 명확하게 삼전하와 석가 삼방불을 대응시킴으로서 석가 삼방불이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더욱 확고히 인식될 수 있었다.

방위를 포괄하는 제불과 축성의례가 더 강하게 결합된 원인에는 명종대 회암사에서 설행된 불사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565년 회암사에서는 대규모 불사가 진행되었다.[55] 이 때 문정왕후는 400점의 탱화를 조성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400탱은 석가불탱 100점, 미타회탱 100점, 약사회탱(1565, 도 7) 100점, 미륵회탱 100점으로, 4개를 한 세트로 하여 총 100개 세트로 구성된다. 이 탱화는 100개의 사찰에 4개 1세트로 분급되었을 것이다. 분급처인 100개소 사찰은 명종대 지정된 내원당이었을 것이다. 명종대 상소문에 의하면 주지(住持)와 지음(持音)을 파견한 사찰이 99개소에 달한다고 하면서 내원당 정책을 모두 폐지해달라는 상소가 확인된다.[56] 주지와 지음을 파견

55)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는 박은경, 「조선전기의 기념비적인 四方四佛畵 : 日本 寶壽院소장 「약사삼존도」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7(1998), pp. 111-139가 있다.

56)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1552) 1월 27일. "지음과 주지가 있는 절이 처음 조사된 바에 의하면 99개 사(寺)로, 이것도 오히려 매우 많은 것인데." 문정왕후기에 내원당으로 395개소 사찰이 지정되었다. 이것은 태종대 393개의 사찰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병희, 「朝鮮 初期 寺社田의 整理와 運營」, 『全南史學』 7(1993), p. 374. 즉 문정왕후는 태종대 공식인정 사찰의 숫자에 근거하여 내원당의 숫자를 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폐사된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114개소를 제외한 286개소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286개소가 지정되었다. 문정왕후가 표면적으로 내원당을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도내(道內) 승려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 사찰은 모두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사찰들로 내수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57] 따라서 4개 1세트로 총 100세트를 구성한 탱화는 내원당 99개소에 분급되었던 판단할 수 있다.[58]

이 그림의 도상인 석가, 미타, 약사, 미륵의 4존은 공간을 의미하면서 과거불로서의 미타, 미래로써의 미륵이 포함되어 방위와 시간을 포괄하는 의미를 나타낸다.[59] 이 탱화의 기능 맥락은 허응 보우(虛應普雨, 1509-1565)가 쓴 조성발원문에 드러난다. 보우는 왕실인물에 대한 축원과 더불어 조석(朝夕)으로 매일 축원하며 그것을 산가(山家)의 업무로 삼아 불충(不忠)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60] 즉 시·공간을 포괄하는 제불 도상이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이후 방위를 포괄하는 제불 특히 석가 삼방불이 이후에 다수 조성되었던 이유를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명종대 내원당 정책으로 인해 축성의례가 개편, 보급되었고 이에 적합한 도상으로 공간적 차원의 제불이 공양의례, 축성의례와 결합하게 되었다.[61]

한 사실로부터 거점사찰이 먼저 지정되었고, 이후 군, 현급의 사찰들이 추후에 지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탱화의 분급처인 99개소 내원당은 거점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57)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1551) 8월 12일. "이제부터 내원당에 새로 소속시킬 지음은 우선 소재지의 본 고을로 하여금 유명한 중을 선택하여 지음으로 차출하게 하고."

58) 기존 연구에서는 회암사 대불사로 인해 왕실화풍이 지방에 전파되었던 사실에 주목하였다. 신광희, 「조선전기 명종대의 사회변동과 불화」, 『미술사학』23(2009), pp. 321-346;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畵」, 『美術史學研究』 231(2001), pp. 5-39. 이후에 이 도상이 유행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양식 전파뿐만 아니라 삼방불 도상이 지방사회로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왕실의 회화 분급과 그에 따른 도상의 전파를 논한 것은 肥田路美, 『初唐佛教美術の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1), pp. 177-214; 肥田路美, 「七·八世紀の佛教美術に見る唐と日本, 新羅の關係の一斷面」, 『日本史研究』 615(2013), pp. 53-78을 참고.

59) 김소연, 「16세기 천도 의식용 불화로서의 함창 상원사 <사회탱(四會幀)> 연구」(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38-43. 박은경은 탑 부조로 조성되었던 전통적 사방불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박은경, 앞의 책, pp. 443-446.

60) "朝夕常以華峰之祝堯爲山家務免墮不忠之坑" 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편, 『고려불화대전』(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281-282에 있는 송은석 판독을 저본으로 하였다.

61) 물론 의례에서 요구되는 존상과 대상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극락전을 주불전으로 하여 아미타불을 봉안한 사례도 확인된다. 그러나 본고는 대다수의 경향 즉 대부분 사찰이 종파와 무관하게 조선 말기까지 대웅전 내 삼방불상 조성되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한 경우 의례의 법식에 맞지 않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따로 의례를 편재한 경우가 확인된다. 『권공제반문』 「제불보살통청(諸佛菩薩通請)」의 거불 부분은 '某佛菩薩'로 되어 있다. 이는 의례의 상황에서 사찰에 있는 주존불에 맞게 소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동 의식집에 「불보살통찬(佛菩薩通贊)」이 있다. 불보살을 함께 찬탄하는 의식 절차인데 그 대상은

그리고 의례의 공간이 주불전이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불상으로 삼방불 도상이 조성되었다. 17세기부터 삼방불 도상이 불상으로 제작되어 주불전 내부에 봉안되었던 이유를 이러한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17세기에 주불전 내부에는 공간적 차원의 제불(諸佛)이 봉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금산사, 귀신사, 선운사 모두 비로자나 삼방불좌상을 조성하였다. 이들이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의미한다면 앞서 설명한 의례의 맥락에서 기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비로자나 삼방불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많은 연구자들은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을 화엄사상과 법화사상의 결합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은 경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상적인 측면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오히려 조성 맥락을 분석하여 도상의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도상의 도입기인 여말선초 작례를 검토하여 도상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다만 전개에 앞서 개념상으로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의 삼신(三身)이 하나라는 관념은 화엄교학의 형성 이래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비로자나 삼방불과 비로자나 5불이 동일한 개념임을 전제로 한다.[62]

한국에서 가장 이른 작례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초층 탑신 남면 <삼세불회>(1348, 도 8, 이하 경천사탑 <삼세불회>)이다. 초층 남면의 삼불(三佛)은 편액에 '三世佛會'라고 명기되어 있다. 가운데 존상은 지권인을 취한 것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이 확실하다. 다만 양 옆의 존상을 미타와 미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63] 그러나 초층의 나머지 면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서방대교주 무량수불이다. 당시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의례문이 편찬된 것이다. 해인사에서 간행된『운수단』도 부록에「미타청(彌陀請)」이 수록되었다. 이는 미타불을 주존불로 하는 사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가 '부록'이었다는 사실은 작성 당시 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경우가 예외적 사례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타불을 주존불로 한 사례가 있더라도, 본고의 논지와 배치되지 않는다.

62) 초기 화엄 교학부터 십불설(十佛說)을 설명하며 일체 불신은 하나의 법신(法身)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지엄(智嚴)의『수현기』에서 이미 그 단초가 보이는데 그는 일체 제불은 모두 삼신(三身)이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십불설, 삼신즉일신에 대하여 기무라 기요타카,『중국화엄사상사』, 정병삼 역(민족사, 2005), pp. 119-121을 참고. 송은석도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로자나 삼방불과 석가 삼방불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송은석, 앞의 책, p. 36.

63) 정은우, 앞의 논문(2005), p. 52. 정은우는 아미타와 미륵이 시간적인 미래-과거에 해당하므로 명문상 삼세불회가 시공간을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초층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경천사탑 <삼세불회>는 삼신불은 법계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로 표현하고, 동방과 서방을 상징하는 약사, 미타불을 협시불로 둠으로써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천사탑 초층에는 대화엄(大華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화엄과 관련된 문헌 중에서 불명호(佛名號)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화엄경해인도량참의(華嚴經海印道場懺儀)』이다. 이 의식집은 송대 찬술되고 명대 개정되었으며 10불이 의례에서 소청된다. 언급된 10불 명호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미타불, 약사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제불보살이다.[64]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화엄경해인도량참의』의 10불 명호가 초층 남면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경천사에서 화엄삼매참도량이 2회 열렸던 기록이 확인되어 이 의식집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5]

초층의 서, 북, 동면은 각각 미타불회, 석가불회, 미륵불회를 표현하였는데, 이 구성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삼세를 상징한다.[66] 이렇게 본다

나머지 3면은 남면의 삼불을 하나씩 도해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문현순은 동일한 도상인 원각사탑 <삼세불회>를 석가, 비로자나, 노사나의 삼신으로 해석하였다. 문현순,「송광사 소장 고봉국사주자의 관음지장병립상과 삼신불에 대하여」,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편,『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2』(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6), p. 142. 김경미는 비로자나불, 미타불, 석가불로 판단하였다. 김경미는 이 삼불구성이 삼신불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미, 앞의 논문(2014), p. 22. 문현순, 김경미 모두 명문상 삼세불로 나온 것도 모두 삼신불로 판단하고 있는데, 명문을 뒤집는 동 시기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삼신불로 보기는 어렵다.

64) X.1470, 74: 145b.

65) 경천사에서 화엄삼매참이 이뤄졌던 기록은 실록에서 2회 확인된다.『태조실록』권 5 태조 3년(1394) 4월 29일.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천사에 거둥하여 환왕(桓王)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이내 재(齋)를 베풀고『화엄삼매참(華嚴三昧懺)』을 강(講)하게 하였다.”;『태조실록』권 11 태조 6년(1397) 3월 4일. “경천사(敬天寺)에 거둥하여 화엄 법석(華嚴法席)을 베풀어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영을 위로하였다.”. 여말선초 화엄삼매참 법석이 열렸던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실록』의 기록에는 태조 6년 1월 4일, 태종 8년 6월 16일, 태종 8년 8월 17일, 세종 1년 10월 26일에 7·7재의 일부로 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문집의 기록으로는『원재선생문고(圓齋先生文稿)』下「화엄삼매참법석소(華嚴三味懺法席疏)」;『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권 27「광명사행호명군아목조쟁조 비로사나도량겸 태일기양소(廣明寺行狐鳴群鴉鶖鳥爭噪毘盧舍那道場兼太一祈禳疏)」;「광암사 중창 제삼법회 경찬화엄삼매참소(光巖寺重刱第三法會慶讚華嚴三昧懺疏)」,『동문선(東文選)』78「수원 만의사 축상화엄법회 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가 있다.

66) 미타는 서방정토라는 공간적 차원의 타방불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전에 성불하여 여

면 초층의 남면은 공간을 포괄하는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3면은 시간을 상징하는 삼불로 구성되어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망라하는 제불로 초층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초층 남면 <삼세불회>(1467, 도 9, 이하 원각사탑 <삼세불회>)도 초층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동일한 도상과 배열을 보이고 있다. 4층은 배열순서가 경천사탑과 다르지만 1층은 경천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중국에서도 경천사탑 <삼세불회>와 동일한 도상을 표현한 작례가 있다. <산서성 진국사 삼불루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5세기, 도 10), <산서성 영석 자수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5세기, 도 11), <산서성 평요현 쌍림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5세기, 도 12)이 그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 존상이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경천사탑이 원나라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기록을 고려하면[67] 역으로 중국의 사례도 비로자나 삼방불로 판별할 수 있다.[68]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은 금동 불감으로 조성된 사례가 2건 확인된다. 첫째는 <구례 천은사(泉隱寺) 소장 전 나옹혜근 원불>(14세기 말, 도 13, 이하 <나옹원불>)이며 둘째는 <순천 송광사(松廣寺) 소장 전 고봉 법장화상 원불>(15세기, 도 14, 이하 <고봉원불>)이다.[69] 나옹 혜근(懶翁惠勤,

---

래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불이라는 개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용윤, 앞의 논문, p. 107. 하기와라 하지메(萩原 哉)는 석가는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중심이 되며 좌우에 미타, 미륵은 각각 공간, 시간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萩原 哉, 「三世仏の造像」, 『印度学仏教学研究』 113(2007), pp. 28-31.

6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풍덕군. "募元朝工匠造此塔"

68) 중국에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삼불상의 도상 판별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동일한 도상이어도 논자에 따라 삼신불, 비로자나 삼방불로 판단한다. 필자가 문헌근거를 찾아본 결과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3불의 명확한 존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 장인이 만든 경천사탑이 중국 작례의 판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 학자들의 도상 판별과 관련하여 中國寺觀雕塑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寺觀雕塑全集 4』(哈爾濱 : 黑龍江美術出版社, 2005); 太原市崛围山文物报管所 编. 『太原 崛围山 多福寺』(北京 : 文物出版社 , 2006); 柴泽俊·柴玉梅 著, 『山西古代彩塑』(北京 : 文物出版社 , 2008)를 참고하였다.

69) 이들 불감에 대한 단독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현순, 「조선전기의 새로운 불교 도상-천은사 구장 금동불감의 동판부조와 불좌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2001), pp. 195-223; 문현순, 앞의 논문(2006); 정은우,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순천 송광사 高峰國師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5(2013), pp. 101-126.

1320-1376)은 원나라 유학 이후 순천 송광사에서 사주를 역임했으며 이후 조선 초에 나옹의 사법제자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 그리고 그를 이은 고봉 법장(高峰法藏, 1351-1428)도 순천 송광사 사주를 역임하였다. 따라서 순천-구례 일대에 이들의 원불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나옹원불>에는 비로자나 삼존이 불감 후불벽에 타출되었고 앞에 불상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향우측벽에 약사불회가, 향좌측벽에 미타불회가 타출되어 있어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삽도 2). 약사불회와 미타불회는 모두 오른손은 설법인, 왼손은 배 앞에 두는 수인을 취하고 있다. 약사불은 왼손 위에 약기로 추정되는 것을 얹고 있다. 불감 벽에 타출된 삼불의 도상은 경천사탑 <삼세불회>와 흡사하다.[70] 앞서 경천사탑 <삼세불회>가 비로자나 삼방불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경우도 동일하게 비로자나, 약사, 미타불의 삼방불로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삽도 2 <나옹원불> 벽면 비로자나 삼방불

한편 불감에 2구의 불상이 전해지며, 불감 하단에 고정을 위한 구멍이 5개 있는 것으로 보아 총 5존상이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1] 5존이 봉안되어 있었다면 비로자나불이 후불벽에 타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3불이 예상된다.[72] 나머지 2존은 보살이었을 것이다.

70) 김경미는 경천사탑과 마찬가지로 이 불감의 도상도 석가불, 미타불, 비로자나불로 판별하였다. 하지만 내부 양측벽에 미타불, 약사불이 부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불감에 있는 2구의 불상만을 고려하여 생긴 오류로 보인다. 김경미, 앞의 논문(2014), p. 24.

71) 정은우, 앞의 논문(2013), p. 177.

72) 문현순은 이 불감의 도상을 삼신불로 해석하고 화엄사상과 연결 지은 바 있다. 뒷받침하는 여타의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불상을 삼신불로 판별하기 어렵다. 문현순, 앞의

<고봉원불>은 불상을 안치할 공간을 두지 않고 후불벽에 존상을 타출하였다. 그리고 문비 전면에 금강역사, 배면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불감 내부에는 3불과 그 아래 2보살, 2비구가 위치하고 있다. 3불 중 가운데 존상은 지권인을 취한 것으로 보아 비로자나불로 판단할 수 있다. 향좌측 존상은 오른손은 설법인 하고 왼손은 배 앞에 두었다. 향우측 존상은 양 손을 배 앞에서 모은 것으로 보인다.[73] 동일한 도상구성은 중국에서 <산서성 굴위산 다복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466, 도 15)와 <산서 남전현 수륙암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563, 도 16)에서도 확인된다. 중국 연구자들은 도상적 특징과 무관하게 비로자나 삼신불로 판별하고 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 도상을 비로자나 삼방불로 판별하고자 한다.

우선 향좌측에 배치된 설법인 존상은 약사불로 판단된다. 원명기 약사불 도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설법인 좌상이다. <산서 자수사 약사전 약사불좌상>(명 초, 도 17)의 경우 오른손은 설법인을 취하고 왼손은 배 앞에 두고 있다. 전체적인 형식은 동시기 티베트 불상과 다르고 중국 전통 불상의 착의법을 보여준다. 반면 티베트 계열의 약사불은 대부분이 변형 편단우견을 하고 있다. 또한 오른손은 배 앞에 두고 왼손은 무릎 앞으로 내려 손바닥을 바깥으로 보인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는 수인을 취하고 있다(도 18). 이러한 약사불의 도상은 티베트 불상의 양식, 형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존상에서 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식 착의에 가까운 <고봉원불>의 설법인 존상은 약사불로 판단할 수 있다.

<고봉원불>에 보이는 선정인 존상은 원명대 미타불의 형식과 유사하다. <고봉원불>의 향우측 존상과 동일하게 변형 편단우견에 선정인을 취한 아미타불의 사례로 <복건성 벽소암 마애 석가삼방불좌상>(1292, 도 19)와

논문(2006), p. 149.

73) 정은우는 이 향우측 존상을 미륵으로 해석하였다. 경천사지 10층석탑 초층 남면을 미타-비로자나-미륵의 3불로 판단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고봉원불> 향우측상과 동일한 도상이 <금강경변상도>(1363)에 미륵으로 기록되었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동일한 도상을 갖춘 <통영 안정사 금동불좌상>(14세기)이 혜위등왕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혜위등왕불이 경전에서 미륵과 관계된다는 점을 들어 미륵불로 추정하였다. 정은우, 앞의 논문(2013), pp. 112-113.

<항주 보성사 마애 석가삼방불좌상>(1322, 도 20)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고봉원불>의 선정인 좌상은 미타불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도상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조선 초에 명나라로부터 불서(佛書), 불상이 유입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74] 티베트계 명나라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인 뾰족한 육계가 삼불상에 모두 표현되었다. 향우측 존상에 보이는 유두 표현도 마찬가지로 티베트계 명대 불상 양식을 수용한 것이다.[75] 따라서 이상의 도상적 특징을 근거로 <고봉원불>의 3불도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약사, 미타를 둔 비로자나 삼방불로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지붕에 새겨진 5자의 진언의 존재를 통해서도 이 삼불이 방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삽도 3 <고봉원불> 5자 진언

<고봉원불>의 지붕 아래에는 5자의 진언이 새겨져 있다(삽도 3). 진언은 암(am), 밤(vam), 람(ram), 함(ham), 캄(kham)의 5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진언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앙을 상징하는 글자이다.[76] 이 5자 진언의 총합은 비로자나를 상징한다. 『조상경』의 불복장 의식에도 동일한 인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진언에 대한 이해가 조선시대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7] 그리고 이 진언은 비로자나불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시사하는 바

74) 박은경, 「조선 전반기 불화의 對中교섭」,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6), pp. 87-88. 김경미, 앞의 논문(2013), pp, 65-92.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불상 관련한 기록은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1408) 4월 19일.
75) 김경미, 앞의 논문(2013), p. 95.
76) 문현순, 앞의 논문(2006), p. 147.
77) 『조상경』에는 5방위와 대응되는 물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보병, 오륜종자가 대표적

가 크다. 각 진언 글자는 방위를 나타내는 금강계(金剛界)의 5불에 대응되며, 전체가 비로자나불로 함축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뒷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16세기에 언해본으로 간행된 『칠대만법(七大萬法)』(1569)의 「삼신여래(三身如來)」조에도 동일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비로자나불은 암, 밤, 람, 함, 캄이며 땅[地]이고 순수한 음(陰)으로 규정되었다.[78] 즉 『칠대만법』의 설명은 비로자나불을 공간적 차원의 교주로 인식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1574) 「가사청(袈裟請)」에 화장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연화계 원만보신 노사나불, 백억계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하여 화장계, 연화계, 사바계라는 공간의 교주로 삼신불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9] 동 의식집 「점안문(點眼文)」에는 '오륜보망세계(五輪寶網世界) … 암밤람함캄 대교주 비로자나불'이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륜보망세계라는 특정한 공간과 비로자나불이 연결되고 있다. 이상 검토한 당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고봉불감>의 삼불과 진언은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나타내고자 표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80]

조선 초의 사례로 세종조 내불당이 주목된다. 김수온이 쓴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에는 1448년 내불당에 봉안된 불상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사

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강계 5불과 대응된다. 『조상경』은 1575년 간본이 현존 최고(最古)이지만 이미 고려시대에 조성된 <서산 문수사 금동 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미타복장입물색기」에 이미 5방위와 대응되는 5보병, 5약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고려 후기부터 이러한 인식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5방위와 대응되는 복장물에 대해서 강희정, 「17세기 이후 불상의 복장의례: 법계의 구현」, 『미술사와 시각문화』 18(2016), p. 49; 이선용,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 『미술사연구』 289·290(2016), pp. 99-100; 이승혜, 「한국 복장의 밀교 존상 안립의례적 성격 고찰」, 『미술사논단』 45(2017), p. 35를 참고.

78) 김무봉 역, 『칠대만법·권념요록』(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p. 73.

79) 박세민 편, 앞의 책(1993a), p. 686. "南無 一心奉請 香水海華藏界 淸淨法身 毘盧舍遮佛, 千葉花臺 華藏界 圓滿報身 盧舍那佛, 千百億界 千百億化身 釋迦牟尼佛"

80) 비로자나불이 공간적 차원의 제불과 연관이 깊으며 '三身則一身'의 개념이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장안사의 사례도 해석될 수 있다. 『가정집』 권6 「금강산 장안사 중건비(金剛山長安寺重建碑)」에 의하면 장안사 주불전에는 석가, 비로자나, 노사나불의 삼신(三身)과 미래 15000불, 과거 53불이 주위에 배치되어 있었다. 기록을 통해 좌우에 시간 개념인 과거불, 미래불을 배치하고, 중앙에 삼신불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경천사탑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다면,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삼신불은 공간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안사 주불전 존상은 과거불, 미래불과 함께 조성되었기 때문에 경천사탑 초층의 구성과 동일한 의미로 조성된 것이다.

리영응기」에는 석가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의 삼신불상과 약사불상, 미타불상이 내불당에 봉안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81] 이 기록은 삼신불에 약사와 미타가 더해지는 5불 한 세트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세종실록』에는 동일한 불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삼신불상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82] 또한 세종이 신미에게 「삼불예참문(三佛禮懺文)」의 찬수를 명했다는 것으로 보아[83] 5불 중에서도 비로자나 삼신불이 의례의 중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친히 지었다는 9가지의 악장(樂章)의 이름이 나온다. 귀삼보(歸三寶), 찬법신(贊法身), 찬보신(贊報身), 찬화신(贊化身), 찬약사(贊藥師), 찬미타(贊彌陁), 찬삼승(贊三乘), 찬팔부(贊八部), 희명자(希冥資)가 그것이다.[84] 이 악장은 삼보에 귀의하고 불보, 삼승, 천선팔부와 명부계에 대한 찬탄을 담은 악장이다. 여기서 동방과 서방을 대표하는 약사, 미타불이 들어갔다는 점을 통해 비로자나 5불상은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동시기 문헌 중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5불을 구성할 때 약사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화엄경해인도량참의』 외에 없다는 점은 이 의식집의 10불 명호와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세종조 내불당의 존상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현존 작례는 <쥬린지 소장 비로자나 5불회도>(1467, 도 21, 이하 <쥬린지 5불회도>)의 사례가 있다. 쥬린지본의 미타불과 약사불은 경천사탑 <삼세불회>, <나옹원불>, 원각사탑 <삼세불회>과 동일하게 오른손을 설법인으로 취하고 왼손을 배 앞에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도상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하여 양식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약사불과 미타불이 삼신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권속도 삼신불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삼신불이 중심 존상임을 확인시켜준다.[85] 이는 앞

81) 『식우집』 권 2 「사리영응기」. “太祖康獻大王。以黃金鑄三身如來。未就而賓天…踵成遺制。兼造藥師，彌陁及菩薩，羅漢像”
82) 『세종실록』 권 122, 세종 30년(1448) 12월 5일. “향나무를 새겨 산(山)을 만들고 금부처 세 구(軀)를 그 가운데 안치하였으니,”
83) 『식우집』 권 2 「사리영응기」. “命大慈庵住持臣信眉及臣守溫。撰三佛禮懺文”
84) 『식우집』 권 2 「사리영응기」. “又親制新聲仰鴻慈之曲，發大願之曲，隆善道之曲，妙因緣之曲，布法雲之曲，演甘露之曲，依定慧之曲。其樂章則有九。曰歸三寶。曰贊法身。曰贊報身。曰贊化身。曰贊藥師。曰贊彌陁。曰贊三乘。曰贊八部。曰希冥資”

서 살펴본 내불당의 경우와 일치한다. 이 그림은 세종대 내불당 존상과 동일하게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불의 삼신불을 중심으로 약사와 미타를 더해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구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 작례 중 주불전 내 불상으로 봉안되었던 현존사례는 <경주 기림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6세기 초, 도 22, 이하 <기림사상>)이 유일하다. 기년은 없지만 중수가 1564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16세기 초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경천사탑 <삼세불회>, <나옹원불>, 원각사탑 <삼세불회>와 동일하게 좌우 협시불은 오른손을 설법인으로 취하였다. <기림사상>은 사적기에 '三世佛' 즉 삼방불로 기록되었다.[86] 또한 「불상중수점안기」(1719), 「경주부 동함월산 기림사 대웅전 서방극락세계 아미타여래 중수개금발원문」(1719)을 통해 좌우 협시불이 약사불, 미타불임을 알 수 있다.[87] 후대의 기록이지만 이 존상을 삼신불이 아닌 삼방불로 해석했던 것은 사찰 내에서 이전 기록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상적 특징이 앞선 경천사탑 <삼세불회>, <나옹원불>, 원각사탑 <삼세불회>과 동일하다는 점, 기록상 삼세불 즉 삼방불로 기록되었다는 점으로부터 <기림사상>도 공간적 차원의 제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은 공간적인 차원의 제불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을 불상으로 조성하여 주불전에 봉안한 금산사, 귀신사, 선운사의 사례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17세기에 조성되어 주불전에 봉안되었기 때문에 이 세 불상도 앞서 언급한 명종대 이후 변화된 공양의례와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는 의문은 도상 선택의 배경이다.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은 16세기 초 <기림사상>을 마지막으로 한 세기동안 전혀 조성 사례가 없다가 17세기 초에 다시 조성되었다. 또한 석가 삼방불이 대대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에 이 도상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도상을 택한 세 사찰은 지역적으로 인접해있다. 따라서 이 사찰들 사이의

---

85) 윤서정, 앞의 논문, pp. 116-118.

86) 『기림사사적』(1740)에 의하면 대적광전에 삼세여래전단토상(三世如來栴檀土像)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87) 이와 관련한 내용은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佛敎美術史學』 16(2013), pp. 82-83을 참고. 명문은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경북 1-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pp. 168-169.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도상 선택 과정에서 의례적 기능을 고려하였는지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어떤 의도로 조성되었는지 파악해 보겠다.

III. 도상 선택의 배경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다불(多佛) 도상의 불상은 17세기 초반에 총 3건 확인된다. 비로자나 5불상을 조성한 금산사와 비로자나 삼방불상을 조성한 선운사, 귀신사가 그 사례이다. 이 사찰들은 모두 전북 일대에 위치한다. 금산사, 귀신사는 조선시대 내내 전주부(全州府)에 속해있었고, 선운사가 위치한 무장현도 전주부 관할권 내에 있었다.[88]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이 도상이 선택된 이유는 세 사찰 사이의 연관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89] 논의에 앞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여 편년을 제시 한 뒤 세 사찰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해보겠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모든 존상의 눈은 상안검이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원오(元悟) 작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원오의 <논산 쌍계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1605, 도 23, 이하 <논산 쌍계사상>), <김해 선지사 불좌상>(1605, 도 24)을 보면 이와 유사하게 눈두덩이를 강조한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금산사상에서 보이는 특징인 미간 아래 부분에서 돌출된 코 역시 원오의 작례와 상통한다. 원오가 조성했던 <익산 관음사 보살입상>(1605, 도 25)의 얼굴을 금산사 5불상 협시보살과 비교해도 동일한 양식적 특성이 확인된다.

옷주름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선(線)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특히 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지권인을 취하기 위해 들어 올린 왼팔 하박부에 주름이 매우 세밀하다. 이러한 특징은 <보은 법주사 비로자나불좌상>과 현진 작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좌상>(1622, 도 26)에서도 확인된

88) 오현택,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민속원, 2020), p. 26. 조선시대 전주부 관할권은 변동이 있었지만, 조선 말기까지 빠지지 않고 전주 관할권으로 언급된 곳은 금구, 김제, 익산, 만경, 임피, 함열, 옥구, 용안, 여산, 고산, 태인이다. 이외에 부안, 고부, 정읍, 고창, 무장과 같은 서부 해안권역도 19세기에 전주의 관할권에 포함되었다.

89) 김세영은 <귀신사상>과 <선운사상> 모두 처명(處明)이 도상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김세영, 「順天 松廣寺 佛祖殿 佛像과 浮休門中의 思想」, 『미술자료』 92(2017), p. 50. 김세영은 「나한전 낙성문」을 근거로 하였으나 「나한전 낙성문」은 나한전 불사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목록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 선택의 원인을 처명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처명이 귀신사, 선운사와 연관이 깊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상결정 자체를 처명의 몫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 또한 다리 부분에 3단의 주름은 수평에 가깝게 표현되었으며 왼쪽 어깨 아래의 오메가(Ω)형 주름이 확인된다. 이러한 표현은 각민 작 <공주 동학사 목조 석가 삼방불좌상>(1606, 도 27), 태전(太顚) 작 <해남 대흥사 목조 아미타불좌상>(1612, 도 28), 현진 작 <진주 월명암 목조 아미타불좌상>(1612, 도 29) 등 17세기 초반 작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정강이 부분의 3단 수평주름은 1605년 원오의 작례인 <논산 쌍계사상>에서도 보인다. 다양한 유파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동일한 표현법이 보이는 것은 17세기 이전의 양식적 특징이 17세기 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90] 또한 오른쪽 어깨 윗부분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 물결치듯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17세기 초반이 지나면 단순화된다(도 30)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에서 확인되는 낮은 무릎과 긴 상체를 가진 신체비례는 조선 전기의 불상을 연상시킨다. 15세기 불상 중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좌상>(1458, 도 31)과 <천주사 목조 아미타불좌상>(1482, 도 32)은 명대 티베트 계열 불상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후 조성된 불상에서도 상체가 긴 존상의 표현이 지속되었다. 특히 16세기 불좌상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15세기의 슬고(膝高):총고(總高) 비율은 1:5에 가깝지만 16세기 후반에는 1:6까지 올라간다.[91] 이것은 무릎 높이가 낮아졌거나, 상체가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무릎 높이, 이와 대조적으로 긴 상체의 표현은 17세기 초에 제작된 태전 작 <해남 대흥사 약사불좌상>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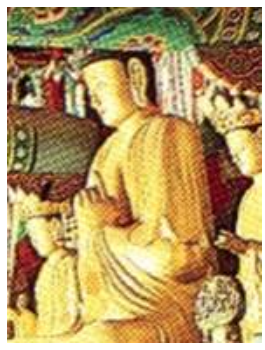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 갖는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양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 상의 연대를 17세기 초로 비정할 수 있다. 특히 1600-1610년대에 주로 활동하였던 원오, 태전, 각민이 조성한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과 공통되어 이들의 활동연대와 유사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1620년대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신사상>보다 약간 앞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92]

이상을 바탕으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귀신사상>, <선운사상> 순서로 조성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편년을 바탕으로 <금산

90) 송은석, 「해남 대흥사의 조선후기 불상」, 『불교미술사학』 22(2016), pp. 168-169.
91) 손태호, 「조선전기 불상연구-목조·건칠불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p. 244.
92) 귀신사 불상의 편년은 정이담, 앞의 논문, p. 95을 참고하였다.

사 비로자나 5불상>이 나머지 두 사찰의 불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산사, 선운사, 귀신사에 조성된 세 불상의 양식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확인해보자(삽도 4).

	귀신사	선운사	금산사
신체비례			
상체 옷주름			
다리			

팔 옷주름			
얼굴표현			
수인			

삽도 4 금산사, 선운사, 귀신사 특징 비교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경우 사진만이 현존하여 양식을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세 불상을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된다. 낮은 무릎, 긴 상체, 정강이에 평행선으로 3줄을 음각한 처리, 왼쪽 가슴으로 평행하게 3줄 내려오는 옷주름과 왼쪽 상박에서 오메가 형태로 말려 올라간 대의처리는 세 상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선운사상>은 무릎 폭이 좁고 옷주름이 나머지 두 상에 비해 단순하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왼쪽 팔뚝 앞뒤의 오메가형으

로 말린 옷주름도 <선운사상>에서는 살짝 접힌 수준으로 단순화되었다. 뒷 시기로 갈수록 주름 표현이 단순화, 형식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출된 상안검과 미간부터 돌출된 코, 왼쪽 정강이에서 위에 살짝 흘러내린 대의단, 배와 가슴에 드러난 미세한 양감 표현은 <귀신사상>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선운사상>의 경우 가슴, 배의 양감이 나머지 두 상에 비해 적다. 이것 또한 뒷 시기로 갈수록 보이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세 비로자나 불상은 검지를 올려 맞대는 지권인을 취하고 있다. 이 형식의 지권인은 동시기 다른 비로자나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양식적 특성을 앞선 편년과 연결시켜 보면 금산사에서 나머지 두 사찰로 양식이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93]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금산사에 가장 먼저 비로자나 5불상이 조성되었을까. 이 도상은 금산사의 종파인 법상종(法相宗)과 별 관계가 없다. 따라서 종파 성향 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조대 금산사 중수 사실이 주목된다.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기」(1492)에 의하면 1468년 세조는 불법(佛法)을 중흥하기 위해 교지(敎旨)를 직접 내려 중수를 명령하였다. 그 결과 제 전각과 요사채가 세워졌다.[94] 전체 내용은 탑의 중수에 방점을 두었지만, 전각을 만들었다[造]는 기록이 있어 이때 대웅대광명전이 세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금산사 사적」의 대웅대광명전 기록 중 '옛날[古時]'은 바로 이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까지 '대웅대광명전', '대웅전'의 현판을 둔 사찰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95] 따라서 세조의 교지로 인한 중수 당시 대웅대광명전이 세워졌을

93) <선운사상>의 경우 수조각승에 대해 이견이 있다. 문명대는 무염으로 보았다. 문명대, 앞의 논문(2008), pp. 353-378. 송은석은 무염 작 <영광 불갑사 목조 석가삼방불좌상>(1635)과의 비교를 통해 <선운사상>을 무염 작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송은석, 「17세기 無染派의 造像 활동」, 『역사학연구』 40(2010a), pp. 114-147; 송은석, 앞의 책, p. 330.

94) 「고려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기」, "庚申 辛巳年間 世祖大王朝 中興佛法 古基禪刹重修 敎旨 … 奉敎 勸善檀那 說法殿爲主 諸殿諸僚十餘位 造排丹雘畢矣"

95)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연구』(경인문화사, 2009), pp. 429-431. 이병희는 고려시대 전각명칭이 드러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였는데, 대웅대광명전, 대웅전, 대광명전의 용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각명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는 능인전(안화사, 연복사, 유점사), 무량수전(안화사), 미타전(회암사, 안화사, 정국안화사), 미륵전(보제선사), 보광전(회암사, 안화사), 비로전(선원사), 산호전(법주사)이 있다. 대웅전, 대웅보전의 명칭은 조선시대에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봉렬·박종진, 「고려 가람의 구성형식에 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비로자나 5불상이 봉안되었을 것이다.[96]

II장에서 비로자나 5불 도상이 15세기에 한정하여 조성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종조 내불당의 비로자나 5불상, <쥬린지 5불회도>는 모두 세조의 생존시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그리고 두 작례 모두 왕실 발원이었다. <쥬린지 5불회도>의 화기는 박락이 심해 글자가 지워졌지만 몇 가지 글자를 바탕으로 이것이 왕실발원임을 알 수 있다.[97] 화기에 비전하(妃殿下)라는 글자는 이것이 왕실발원임을 암시하고 있다. 형식과 양식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상체가 긴 존상표현, 티베트식 앙복련 대좌와 키형 광배, 하이라이트 기법의 사용은 동 시기 명나라로부터 들어와 왕실발원작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다.[98] 그리고 내탕금(內帑金)을 의미하는 탕(帑)자가 확인된다. 즉 왕실의 사재(私財)로 이것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의 경향을 통해 세조의 금산사 중수불사 당시 비로자나 5불상이 대웅대광명전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세조의 명으로 조성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어떤 의례의 맥락에서 기능하였을까. 여말 선초 사례들의 의례적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세조대 조성된 비로자나 5불상의 의례적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천사탑 <삼세불회>는 한국에서 가장 이른 작례이다. 경천사는 원 황실의 원당이었다. 경천사탑 초층 명문에는 축연황제폐하 만만세(祝延皇帝陛下萬萬歲)로 시작하여 청규에 보이는 축성문구인 '불일증휘 법륜상전(佛日增輝 法輪常轉)'이 적혀 있다.[99] 따라서 이 탑의 초층부가 축성(祝聖)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찰 자체도 기황후(奇皇后)가 원찰로 지정하고

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1989), p. 30.

96) 심주완, 앞의 논문(2008), p. 30. 심주완도 마찬가지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이전에 동일한 도상이 금산사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강근은 「금산사 사적」에 적힌 대웅대광명전과 비로자나 5불 기록을 17세기 이전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강근, 앞의 논문(1994), p. 93.

97) 화기는 박은경, 앞의 책, p. 477을 판독 저본으로 하였다.

98) 정우택, 「조선왕조시대 전반기 궁정화풍 불화의 연구」, 『미술사학』 13(1999), pp.129-166; 공규덕, 「朝鮮前期 十輪寺 所藏 五尊佛會圖 硏究: 會佛圖와 排佛과의 圖像關係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48; 박은경, 앞의 책, pp. 77-78.

99) 『칙수백장청규』「축리장」 성절. "유나는 반을 나와서 염송하되 말한다. 황풍이 길이 불어 황제의 길 멀리까지 창하고 불일이 더욱 빛나 법륜상전 하옵소서."

탑을 세웠기 때문에[100] 축성의 맥락에서 이 도상이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93년에 명 황태자의 생일인 천추절(千秋節)의례가 이곳에서 설행된 기록이 확인된다.[101] 즉 유입기부터 이 도상은 원당, 축성의례와 연관을 가졌던 것이다.[102] 세조대 대표적인 위축원당(爲祝願堂)인 원각사에도 동일한 도상이 탑 초층 남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세종조 내불당도 사찰의 기능이 왕실 축원과 맞닿아 있다. 세종조 내불당은 문소전(文昭殿)과 연관된 것이니 추모를 위한 불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니었다. 제사 날짜 전후로 관련 의례를 행했을 뿐 그 밖의 경우는 축원의례가 설행되었던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된다. “처음에 불당(佛堂)을 지은 것은 본래 나라의 복(福)과 이익을 구하려는 것이었으나”라는 기록은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103] 또한 왕릉의 제사를 담당한 능침사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정릉(貞陵) 능침사찰(陵寢寺刹)인 흥천사(興天寺)의 주지 상총(尙聰)은 “산야승(山野僧)인 상총에게 명하여 주석(主席)으로 삼게 하시니, 신(臣)이 이 마음을 아주 결백하게 하여 정법(正法)을 널리 드날려 복을 축원하는 직책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이라고 상언(上言)한 바 있다.[104] 이후 흥천사 주지 운오가 “신이 이 절에 주지가 되어 조그마한 도움이 없고, 단지 아침, 저녁으로

---

100) 『속동문선』 권 21 「유송도록」. “절은 바로 기황후의 원찰이요,”; 이병희, 『高麗後期 寺院經濟 硏究』(경인문화사, 2008), pp. 305-306.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원나라 승상 탈탈(脫脫)의 원찰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불사에 참여한 강융, 고룡보가 기황후의 최측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탈탈이 아닌 기황후를 위한 불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일조각, 2012), p. 108.

101) 『태조실록』 권 4 태조 2년(1393) 11월 5일. 이 시기에 설행되었던 천추절 행사는 『칙수 백장청규』「축리장」에 있는 천추절 축성의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 초에는 『칙수백장청규』에 의한 황제 축원의례가 널리 퍼져 있었다. 『태조실록』 권 14 태조 7년(1398) 5월 13일. “축리하는 작법에 있어서 비록 점점 쇠퇴하고자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인데, 근래에는 작법 규정이 모두 중국 중[華僧]을 받들어 본받아 그 단독의 결정을 얻지 못하게 되니…”

102) 앞서 살펴본 <산서성 굴위산 다복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의 경우 1466년 진공왕 주강의 조성 사실을 기록하면서 축성할 공간이 생겼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원말 명초에 이 도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시사해준다. 이에 대한 문헌자료는 太原市崛围山文物报管所 编, 앞의 책, p. 8에서 참고.

103) 『단종실록』 권 10 단종 2년(1454) 1월 3일.

104) 『태조실록』 권 14, 태조 7년(1398) 5월 13일.

분향하여 위로 성수(聖壽)를 축원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상언하였다.[105] 이를 통해 능침원당도 제사기일 외에 주로 축성의례를 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106] 세종조 내불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 기일이 아닌 평시에 축성의례가 설행되었을 것이다.[107]

<쥬린지 5불회도>의 화기에는 조분석점(朝焚夕點)이라는 구절이 확인된다. 이 구절은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축성의례의 상투적인 문구이다(부록 1).[108] 동시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도솔산 선운사지』에 수록된 「덕원군 별원당 선운산 선운사 중창 산세 사적 형지안」(이하 「선운사 형지안」)은 덕원군이 직접 작성한 문건이다. 「선운사 형지안」에는 원당설립과 그 공덕을 논하며 '朝焚夕點' '祝上作法'이라는 구절이 보인다.[109] 축상은 곧 왕실에 대한 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의 존재는 <쥬린지 5불회도>가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화기의 내용을 통해 이 그림은 왕실 발원이며, 축성의례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110]

---

105) 『태종실록』 권 17, 태종 9년(1409) 1월 24일.

106) 『성종실록』 권 203 성종 18년(1487) 5월 유학(幼學) 유승탄(兪升坦)의 상소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인된다. "절에 위전(位田) 을 두는 것은 그 사문(沙門)을 상주어 선왕의 명복(冥福)을 올리고 성수(聖壽)의 만년을 축원하며, 석씨(釋氏)의 과욕(寡欲)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인데,"

107) 더하여 탁효정은 능침사찰이 조선 중기 이후 국가차원의 제례시설이 아닌 왕실의 사적 기도처의 성격으로 변모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다. 탁효정, 「조선초기 능침사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77(2016), p. 31; 탁효정, 「조선 예종~명종대 陵寢寺의 설치현황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87(2018), p. 58. 이를 통해 능침사찰이 왕실의 사적인 기도처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108) 강소연의 경우 '朝'는 판독 불가로 보았고 '焚夕'을 '焚'을 두 번 쓴 것으로 판독하여 태우고 다시 만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강소연, 앞의 논문, p. 297. 태우고 다시 만든다는 내용을 기재한 화기가 다른 사례에 확인되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렸다는 축원상투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109) 선운사 편, 『도솔산 선운사지』(고창군, 2003), p. 147.

110) 여말선초의 이러한 경향은 원대(元代) 불교의 유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방불 도상은 원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축성의례가 법으로 규정되어 일상적으로 설행되었다. 축성의례는 원대 『칙수 백장청규(勅修百丈清規)』의 제정 이후부터 중요도가 대폭 증가했다. 王大偉, 『宋元禪宗 清規研究』(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3), p. 195. 『칙수백장청규』에서 축성의례는 매일 대불전(大佛殿)에서 설행되었다. 이는 대불전의 중요도 증가를 의미했다. 즉 원대 청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황실중심 의례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에 있다. 김영재, 「청규로부터 본 회암사지의 건축적 특성과 그 의미」, 『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VI』, 양주회암사지박물관 편(양주회암사지박물관, 2018), p. 58. 대불전이 축성의례의 공간으로

<기림사상>이 봉안된 기림사는 조선 초기 선교(禪敎) 통폐합 당시 교종(敎宗) 18사 중 하나에 속하여 경주 일대의 본산사찰로 기능하였다. 36본산 사찰은 성격상 국가의 관리를 받던 사찰이었으므로 국가와 연결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111] 18세기 초에 제작된 불화에 상궁(尙宮)들이 시주자로 등장하는 것은 왕실과 연결이 있었던 사실을 대변한다.[112] 본산사찰의 하나인 흥천사의 예를 생각한다면 나머지 본산사찰에서도 동일하게 축성의례가 설행 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564년에 중수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 시기는 문정왕후가 내원당 정책을 강화한 이후이다. 기림사도 이 때 내원당으로 지정되어 어떠한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113]

주로 이용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곳에 방위를 포괄하는 도상의 불상이 봉안되었던 것은 양자가 서로 유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황제를 여래로 보는 인식이 이 시기에 매우 강해졌다. 『칙수 백장청규』「보은장」 서문에는 황제가 사후에 여래가 된다는 내용이 보이며 실제로 기우, 기청 등의 의례에서도 여래가 된 황제에게 기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成河峰雄, 「『勅脩百丈清規』祝釐・報恩章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64(1984), pp. 382-385. 원대에 티베트 불교를 국교화하였던 파스파(八思巴)는 원 황실을 석가의 계보에 포함시켰으며 황제를 전륜성왕(轉輪聖王)에 빗대는 종교적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당시에 불국토를 지배하는 붓다와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였던 양상을 알 수 있다. 石濱裕美子, 『チベット仏教世界の歷史的研究』(東京: 東方書店, 2001). 즉 대불전 내 축성의례의 일상화, 황제를 여래로 인식하는 관념, 방위 관련 도상의 대불전 봉안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국에서의 삼방불상 유행과 축성의례와 유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작례는 「복건성 벽소암 석가 삼방불좌상」(1292)이다. 명문에 의하면 서하인(西夏人)이 분수축성지소(焚修祝聖之所)를 조성하기 위해 삼방불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도입 초기부터 축성의례와 관련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溫玉成, 「泉州三世佛造像再探」, 『敦煌研究』 4(2000), p. 37. 이후 축성의례의 도입과 함께 이 도상이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칙수 백장청규』의 고려 말 유입과 유행에 대해서는 주 113 참고.

111) 황인규, 「선교양종의 본산과 고승」,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혜안, 2011), p. 77. 본산사찰은 예조(禮朝)에 속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승록사가 담당하던 승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본산사찰은 국가에 속하여 관리를 받고 여타 사찰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다.

112) 신현경, 「朝鮮後期 祇林寺 三世佛畵 硏究-창건연기설화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 16. 이 불화의 시주질에는 상궁 이씨, 윤씨가 바탕시주와 인권시주를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신현경은 경북출신 상궁의 발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선교 양종 36사와 같이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찰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왕실이 상궁을 대신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상궁이나 왕실 사찰 비구니가 왕실을 대리하여 파견된 경우는 실록에서 확인된다. 『인조실록』 권 47 인조 24년(1646) 6월 3일. “강씨(姜氏)의 외궁(外宮)의 계집종 종일(終一)·영옥(英玉)·극종(克終) 등 세 사람과 철원 보개산(寶盖山)의 비구니 혜영(惠英)이 내옥(內獄)에서 국청으로 옮겨졌다 … 강씨가 불사(佛事)에 쓸 것이라고 하면서 황금을 혜영에게 준 것이 전후 2백여 냥이며 비단 등속도 많았습니다.”;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1691) 4월 2일 “봉국사(奉國寺)에서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의 원당에 그 목주(木主)를 봉안하고 해마다 봄、가을에 궁인이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이상을 정리하면 여말선초에 조성된 비로자나 삼방불, 비로자나 5불 도상은 원당이나 왕실 관련 사찰에서 주로 보인다.[114] 원당의 기능이 왕실에 대한 축원이었기 때문에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축성의례와 유관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즉 축성의례와 비로자나 5불, 삼방불 도상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조성되었던 것이다.[115]

---

113) 앞에서 논의했던 <나옹원불>, <고봉원불>은 불감 자체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부차적으로 다루겠다. 이 두 불감도 축성의례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2구의 불감은 나옹, 고봉의 것으로 전칭되는 작품이지만 소장처가 이들이 활동했던 순천 일대라는 점에서 이들과 연결될 여지는 충분하다. 나옹 혜근은 축성의례를 중시하였고 그의 제자들도 이를 스승의 가르침으로 삼았다. 강호선, 「고려말 선승의 입원유력과 원 청규의 수용」, 『한국사상사학』 40(2012), p. 46. 실제로 나옹 혜근의 어록에는 축성의례가 상당히 다수 수록되었고(「광제선사 개당법문」, 「결제상당」, 「찬성화」), 언제나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닦아 임금을 축수하고 나라를 복되게 함으로써 규범을 삼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의 어록에는 모든 붓다를 칭할 때 '삼세불'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나옹원불>에 표현된 존상이 경천사탑 <삼세불회>와 동일하다. 고봉 법장은 그의 사법제자였고 그 역시 축성의례를 중시하였다. 고봉 법장이 송광사에서 법화를 열고 100일간 국왕축수도량을 열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능화, 앞의 책(2010b), p. 339. 정은우는 불감의 봉안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이 두 불감의 정교한 표현법과 무게를 고려하여, 이동할 때 들고 다닌 것이 아닌 요사나 승방에 두고 예불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은우, 「고려시대 금동불감의 제작과 봉안」, 『대고려: 그 찬란한 미술-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연계 학술대회』(한국미술사학회, 2018), pp. 63-64. 요사나 승당에 존상을 두었던 기록은 비슷한 시기의 「금강산 장안사 중수비」,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중수기」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두 불감도 동일하게 승당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축성의례와 관련이 깊은 석가 삼방불 도상을 그린 <콘카이 코묘지 소장 삼불회도>(1574)는 승당 후불탱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경성당 휴옹행록」에서도 승당 내 축성의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승당, 요사에서 축성의례가 설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불전 내부에 이미 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성당 휴옹 행록」은 다음과 같다. 이능화 저, 『역주 조선불교통사 2』,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역(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a), p. 250. "무오년 가을에 이르러 … 상선암을 창건하게 했다. 암자 동쪽에 특별히 당을 세워 경성이라 이름하였다. 이에 스님은 향로를 집고 날마다 성수를 빌었으니" 해인사 발원문은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3』(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 290.

114) 왕실과 관련하여 비로자나 삼방불 조성이 확인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감선록』에는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이 1466년 능가산 실상사의 중창을 발원하면서 조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감선록』이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직접 문헌을 확인하지 못하여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간략한 기록은 김정희, 앞의 논문(2007), p. 117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금강산 장안사에 삼신불과 과거불, 미래불을 조성하였던 사실이 있다. 「금강산 장안사 중흥비」의 기록에서 "축리하여 황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금강산 장안사만 한 곳이 없다"라는 구절은 장안사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시공간을 포괄하는 제불의 도상이 원나라 황실 원당에 조성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15) 동일 개념을 가진 여말선초 석가삼방불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원당, 왕실발원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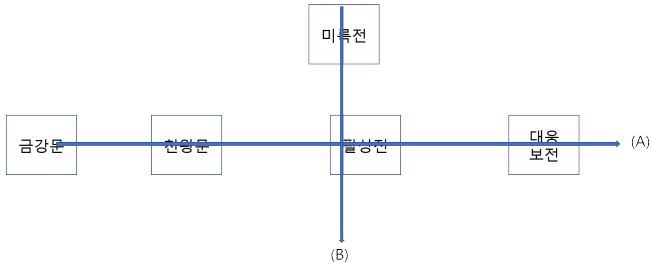
금산사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금산사는 15세기에 세조, 덕원군에 의해 후원을 받아 중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금산사가 왕실 원당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왕이 직접 교지를 내려 중수를 지시했다는 점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세조 생존 시에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비로자나 5불 도상이 2건 확인되기 때문에 동시기의 경향과 일치한다. 14-15세기의 비로자나 5불, 삼방불 사례에서 보이는 경향과 금산사의 사례가 유사하기 때문에 세조대 조성되었던 비로자나 5불상도 축성의례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조대 조성되었던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 이전인 1598년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금산사 승려들은 16세기까지 이 불상을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전의 불상을 동일한 도상으로 복원하였다는 사실은 곧 동일한 기능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 이전에 조성된 5불상과 동일한 의례적 기능을 의도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불상이 봉안되었던 전각에

경향이 확인된다. 고려 말에 중수된 안양사 7층 석탑은 석가 삼방불의 구성을 보이는 가장 이른 작례이다. 이 탑의 초층 탑신에는 석가열반회, 미타회, 약사회와 금경신중회가 부조되어 있었다. 삼방불 도상이 경천사탑과 마찬가지로 탑 부조로 표현된 사례이다. 이 탑의 중창주는 최영 장군이며, 기문에 의하면 발원 목적은 축리(祝釐)이다. 『동문선』 권 76 「금주안양사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 석가 삼방불이 불감과 결합한 예로 <남양주 수종사탑 출토 금동불감>(1493 이전, 이하 <수종사 불감>)의 사례가 있다. 석가 삼방불로 추정되는 존상이 불감 후불벽에 타출되었다. 명문에 의하면 불감의 주인은 명빈 김씨(明嬪 金氏, ?-1479)이다. <수종사 불감>의 경우 명빈 김씨의 몰년 이후 봉안되었기 때문에 생전에 소지하고 있던 불감이 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아연, 「1493年 水鐘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미술사학연구』 269(2011), pp. 5-37. 역시 왕실 발원이며 원당인 수종사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기록을 통해 1483년 지평 용문사에 영산회도, 서방극락회도, 약사회도, 천수관음도, 지장시왕도가 조성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 5』,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역(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c), p. 356-357.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발원문(1466)에 정현조와 의숙공주가 석가, 약사, 미타불과 5보살을 조성했던 사례가 확인된다. 판독 저본은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연구』(불광출판사, 2017), p. 382. 마찬가지로 상원사도 왕실 원당이며 왕실에 의한 발원이다. 부차적으로 삼불이 표현된 사례는 일본 <아묘인(阿名院) 소장 관음지장보살 병립도>가 있다. 관음-지장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위에 작게 삼불이 표현되었다. 일반적으로 불화에서 구름을 타고 상단에 작게 그려진 여래는 타방불(他方佛)이기 때문에 이 도상을 석가 삼방불로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서정, 앞의 논문, pp. 92-93. 여말선초의 석가삼방불 도상 조성도 마찬가지로 왕실 발원이거나 왕실 사찰에 봉안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동일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불상이 봉안된 전각이 주불전이라면 앞서 설명한 축성의례의 일상화라는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상이 봉안된 전각의 기능을 가람배치를 통해 확인함으로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의례적 기능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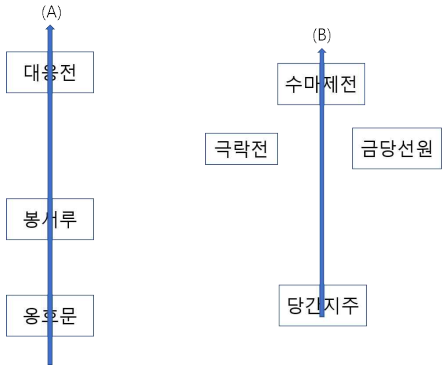
앞서 설명하였듯이 명종대 내원당 정책으로 인해 축성의례의 빈도, 중요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의례는 주불전에서 설행되었다. 축성의례의 빈도와 중요도 증가는 의례가 설행되는 공간의 중요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17세기 가람배치를 통해 명료하게 드러난다. 17세기 재건역을 거치면서 대적광전,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영역이 되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축선상에 배치되었으며, 기존에 사찰의 종파 성향을 드러내었던 불전은 이 축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양의례의 중요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양의례는 이전부터 늘 행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축성의례가 공양의례에 포함되었으며 축성의례가 독립하여 설행빈도가 높아졌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축성의례의 대상이었던 석가 삼방불 도상이 대다수 사찰의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대웅전 영역의 중심 영역화는 축성의례의 빈도, 중요도 증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하 17세기 초의 사례로 법주사, 동화사, 화엄사를 예로 들어 이 점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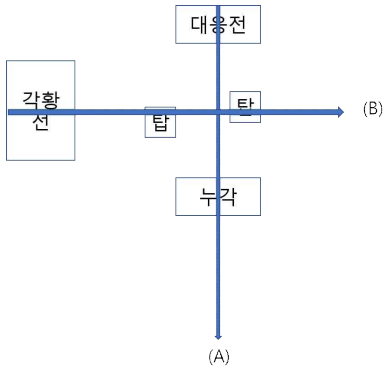
삽도 5 법주사 가람배치도

116) 이 시기 대웅전 영역의 변화에 한 기초적 연구는 홍병화·김성우, 「조선시대 寺刹門樓 건축형식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5-11(2009), pp. 197-208가 대표적이다.

미륵도량인 법주사는 재건역을 거치며 원래의 주불전인 미륵전이 축선에서 배제되었다. 새롭게 설정된 중심축선은 정문을 기점으로 팔상전-대웅보전을 지난다. 전체적 축선은 팔상전을 중심으로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다(삽도 5).[117] 축선의 변경을 통해 기존 종파성향을 드러내는 전각의 중요성이 낮아졌고, 대웅전 영역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중심전각이 된 대웅전에 기존 종파의 성향과 맞지 않는 삼신불이 봉안되었다.



삽도 6 동화사 가람배치



삽도 7 구례 화엄사 가람배치

대구 동화사도 비슷한 경우에 속한다. 동화사 역시 미륵도량으로 신라 법상종의 중심사찰이었다. 동화사 초창 이래 중심 구역은 금당암 구역 즉, 현재 극락전이 위치한 구역이었다(삽도 6).[118] 17세기 초반 사명 유정(四溟 惟政, 1544-1610)에 의해 재건될 때, 사역이 2개로 나뉘게 되었다. 한 축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나머지 한 축은 극락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현존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1600년 극락전 영역이 먼저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1606년에 대웅전, 1608년 미륵전이 재건되었다.[119] 재건의 과정에서 대웅전 영역이 정문, 문루 등 핵심시설이 위치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117) 삼성건축사사무소,『법주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上)』(문화재청, 2005), p. 108.
118) 오세덕,「八公山 桐華寺의 창건시기와 伽藍의 변화과정 고찰」,『불교학보』79(2017), pp. 174-175.
119) 김승희,「팔공산 동화사의 불교회화」, 국립대구박물관 편,『팔공산 동화사』(국립대구박물관, 2009), p. 244.

구례 화엄사는 신라시대 이래 화엄종을 대표하는 화엄도량이었다. 각황전의 남동축선과 대웅전의 남서축선이 대웅전 전면 석축 바로 앞 계단에서 직교하고 있다. 가람의 중심영역은 창건 이후의 역사로 보나 현존 건물의 크기로 보나 각황전이 중심 건물임이 틀림없지만, 가람 전체의 좌향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보제루를 지나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면서 남서향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배치는 17세기 재건역 과정에서 대웅전을 주불전으로 삼은 결과이다(삽도 7).[120] 이후 1703년 옛 주불전 영역인 각황전이 재건되었으나 가람의 중심 축선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재건역 과정에서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축선에 위치하여 누각, 정문과 마주하는 가람배치가 이 시기에 보편화되었다. 반면 기존 종파 성향을 드러냈던 불전은 중심축선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121] 17세기 재건역 결과 대웅전 영역이 기존 종파성향의 건물보다 중심 불전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대웅전, 대적광전의 중요도 증가는 앞서 언급한 축성의례의 빈도, 중요도 증가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봉안된 불상도 이에 맞게 조성되었다.[122] 이러한 사실로부터

120) 이강근, 앞의 논문(1994), p. 206; 이강근, 「화엄사 불전 재건과 장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14(1997), pp. 77-151; 이강근, 「17세기 碧巖 覺性의 海印寺.華嚴寺 再建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52(2019), pp. 75-97. 화엄사 가람배치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대연건축, 『구례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13), pp. 189-190 참고.

121) 17세기 재건역 과정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정형 가람배치로의 전환이다. 중정형 가람배치는 대체로 주불전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문루를 두고 주불전 앞마당 좌우로 요사채를 두는 형식을 가리킨다. 홍병화, 김성우, 「조선시대 사찰 건축에서 사동 중정형배치의 형성과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2009), p. 159. 중정형 가람배치의 성립은 야외의례의 성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야외의례에서는 삼단(三壇)이 요구되었는데, 삼단 중 상단은 대웅전 내부의 존상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야외의례에서 요구되었던 상단의 존상이 대웅전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수륙재는 수륙재 설행 시 사전 행사의 성격으로 영산작법을 실시한다. 이 때 거불이 행해지는데 해당 거불은 앞서 설명한 법화거불이며 개념상 방위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를 포괄하는 의미의 존상이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에 봉안되어야 했을 것이다. 즉 같은 의미를 지닌 석가 삼방불상은 야외의례에서의 상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었다.

122)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19세기 송광사가 고종황제의 기로소 원당으로 지정된 이후 작성된 「전령 순천군 송광사 판사승」 기로소 세칙에 “축원함은 원장이 손수 대웅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서쪽을 향해 몸을 숙이고 지성으로 위를 향해 축원을 올리되, 감히 대신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한 점을 들 수 있다. 송광사에는 고종의 기로소 원당이 따로 존재했지만 축성의례의 장소로 대웅전이 주로 이용되었음을 이 기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종파 성향과 무관하게 공간적 차원의 제불 도상이 주불전에 조성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례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가람배치의 변화가 금산사에 반영되었다면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도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금산사의 17세기 초 가람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 금산사의 고대 가람배치는 신라시대 당간지주를 기점으로 방등계단(方等戒壇)-미륵전(彌勒殿)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123] 하지만 17세기 전반 재건역을 거치며 금산사의 배치는 대웅대광명전과 구(舊) 금강문(金剛門)을 일직선상에 두고 동쪽에 미륵전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주불전으로 기능했던 미륵전은 동측으로 상당히 밀려났다(삽도 1). 이러한 배치법은 동시기 사찰의 배치법과 일치한다. 특히 탑의 기능을 가진 대장전(大藏殿)의 위치가 대적광전과 미륵전 사이에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124] 법주사처럼 새로운 축선 상에 대웅전을 두고 탑을 중심으로 기존 종파 성향의 주전각을 직교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금산사에서 재건역이 시작될 때, 이전에 존재했던 비로자나 5불상의 기능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시기 경향에 맞춰 대웅대광명전에 이 불상을 봉안했던 것을 알 수 있다.[125] 「금산사 사적」에서 중관 해안이 재건역을 찬탄하며 '先王先后 祝釐之所'가 되었다고 찬탄한 것도 주목된다.[126] 세조대 비로자나 5불상이 조성된 이래로 100년 동안 이 불상이 축성의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소실된 후 3년 뒤부터 금산사 재건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산사 승려들이 이전의 기능을 인지하고 이것을 반영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형식적 특징을 통해서 확인할

123) 오세덕, 앞의 논문(2019), p. 282.

124) 태창건축사무소 편, 『금산사 대장전 수리보고서』(문화재청, 2011), p. 72. 처음에 대장전은 미륵전과 대적광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목탑의 기능을 하였다. 특히 대장전의 지붕은 목탑의 상륜부와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다.

125) 다만 『오종범음집』 「영산작법」에는 '금산사와 법주사는 미륵전에서 영산작법을 행하니 이는 틀렸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례의 준비과정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영산작법은 수륙재의 재전작법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금산사에서 야외의례를 설행할 때 그 상단의 대상으로 미륵전을 이용했던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일상 공양의례와는 차이를 보인다.

12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p. 206.

수 있다. 비로자나 삼방불, 5불 도상 중 여말선초의 작례는 대부분 약사불과 미타불의 수인이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경천사탑 <삼세불회>와 <나옹원불>, <쥬린지 5불회도>, 원각사탑 <삼세불회>, <기림사상>까지 14-15세기까지 조성된 사례에서 약사불과 미타불은 같은 손으로 설법인을 취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과 동일하게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도 가장 양 옆에 있는 약사불과 미타불이 모두 왼손으로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수인 표현은 약간 뒷 시기에 조성되었던 <귀신사상>, <선운사상>과 대별된다. <귀신사상>과 <선운사상>은 17세기 통례를 따라 대칭형으로 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소실 이전의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형식적 특징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불상의 기능이 축성의례와 관련이 깊었던 점은 1686년 창건된 금산사 대적광전 안에 이 불상을 위치시켰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대적광전은 앞서 설명했듯이 17세기 초에 재건된 20칸 규모의 대웅대광명전 자리에 창건된 28칸 규모의 불전이다. 이강근에 의하면 금산사 대적광전은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의 원자(元子)탄생을 기원하기 위해 설립된 원당이었다.[127] 왕실 원당에 이 불상이 봉안되었다는 점은 이 불상의 기능이 축성의례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다.

금산사에서 조성된 5불상과 동일한 개념의 도상이 귀신사, 선운사에서 선택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 가장 먼저 조성되었기 때문에 금산사에서 나머지 두 사찰로 이 도상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재건역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귀신사와 선운사의 비로자나 삼방불상 조성이 재건 이전에 있던 것을 복원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재건 이전의 사찰의 종파 성향, 그리고 재건 이전에 존재했던 존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귀신사는 원명국사 징엄(圓明國師 澄儼, 1090-1141), 현오국사 종린(玄悟國師 宗璘, 1127-1179) 등 고려시대까지 국사가 주석했던 대표적인 화엄사찰이었다. 그렇다면 종파성향에 맞는 전각들이 이 시기에 재건되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재건역을 거치며 귀신사에는 미륵보전이 건립되었다. 단순

127) 이강근, 앞의 논문(1994), pp. 129-136.

한 미륵전이 아니라 미륵 보전(寶殿)이기 때문에 주전각에 준하는 지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이전 화엄종 사찰이었던 귀신사에 미륵보전이 세워진 것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전각의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명종대 회암사 대불사에서 조성된 탱화가 99개소 내원당에 분급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명종 8년의 기록에는 귀신사에 지음승이 있었던 사실을 전해준다[128] 지음승은 내원당에 소속된 승관이다.[129] 즉 지음승의 존재는 귀신사가 명종대 내원당이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귀신사에도 명종대 회암사 석가, 약사, 미타, 미륵의 탱화가 분급되어 석가 삼방불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석가 삼방불이 아닌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도상 선택시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말해준다.[130]

선운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덕원군의 원당이었던 장육전에는 석가, 미타, 미륵의 시간 삼세불이 봉안되었다.[131] 그리고 금당(金堂)에는 약사불상이 있었다. 전후 재건시에 이전의 전각과 불상을 복원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시간 삼세불과 약사불상이 복원되어 대웅전과 금당에 봉안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사찰에 존재했던 도상을 택하지 않고 종파 성향과 맞지 않는 비로자나 삼방불을 봉안했다는 사실은 외부의 영향임을 말해준다.

이상을 통해 <귀신사상>과 <선운사상>의 도상 선택은 재건 이전의 종파성향, 존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선택의 배경이 되었던 외부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이를 금산사의 영향으로 판단하

---

128) 『명종실록』 권 14 명종 8년(1553) 3월 14일.

129) 『명종실록』 권 12, 명종 6년(1551) 8월 12일.

130) 이하곤이 1722년 이곳을 방문하며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귀신사 대적광전에도 5불 봉안이 예상지만 이것이 5불인지 3불 2보살인지 확정할 수 없어 가능성만 제기해두고자 한다. 17-18세기 대적광전이 가로 7칸이었기 때문에 5불의 봉안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하곤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두타초』 「남유록」. "歸信寺僧已持輿來候。… 又東轉數百步至歸信寺。亦巨刹也。但居僧少荒落殊甚。佛殿扁曰大寂光殿。奉五座金軀極雄偉" 밑줄 필자.

131) 선운사 편, 앞의 책, p. 114. "갑오년(1474) 5월에 공양주, 원두 등 60여 인에게 지시하여 2층 장육전 조성을 시작하여 나뭇잎 떨어지는 가을에 마침내 완공하였고 … 신축년(1481) 봄에는 단청 및 영산회도, 미륵회도, 서방회도, 53불회도를 화원, 공양주, 원두, 화주 등 20여 인이 참여하여 완성시켰다."

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산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찰이었는지, 그리고 인적 교류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금산사는 일대 사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재건되었으며 전북일대 수(首)사찰로 기능하였다. 금산사는 1601년 재건을 시작하여 전주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재건되었다. 특히 금산사는 승병사찰이라는 공무(公務)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른 시기에 재건되었다. 1627년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전주에서 분조(分朝)를 조직하였을 때 금산사 승병 200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132] 즉 금산사는 1627년에 이미 200인 이상의 승려가 세거할 정도의 규모로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세거 승려의 숫자로 미루어보면 전주부 일대 수사찰로써 근처 불사를 주도적으로 행했을 것이 예상된다. 『금산사지』(1934)의 기록은 이를 입증한다.[133]

> 이조(李朝) 선조 25년(1592) 거금 358년 임진에 이르러 정부로부터 8도를 통하여 선교 16종 규정소(糾政所)를 둘 때에 당사는 전라우도 규정소가 되어 의승병 대장 뇌묵 처영대사로써 제 1세 총섭을 명한 바 되어 전라우도 제(諸)사찰을 통할하다가 후에 이르러서는 전라좌우도를 통할하는 규정소가 되었다.[134]

기록에 나오는 규정소는 정조대에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지만, 용어상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135] 이 자료를 통해 금산사가 임란 직후부터 전라우도를 통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조선말에도 전북일대 사찰을 모두 통령했던 것으로 보아 금산사의 이러한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136] 따라서 금산사가 인근 사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

132) 『소현 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금산사에 승군 200명이 있지만 역시 병기(兵器)는 없습니다."

133) 김영수의 『금산사지』는 후대의 기록이지만, 그가 저본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김상영, 앞의 논문, p.113-114 참고.

134) 김영수의 『금산사지』 저본은 서울대학교 고문헌실 소장본으로 하였다.

135) 오경후, 「조선 중후기 금산사와 선교겸수 경향」, 『불교학보』 72(2015), p. 208.

136) 『금산사지』. "고종 광무 6년 去今 48년 임인에 이르러 정부로부터 국내에서는 大法山國內 首寺刹을 置하고 道에는 중법산 도내 수사찰을 치하여 사찰승정을 통리할 때에 當寺는 전라북도 중법산도내 수사찰이 되어 전북의 제사찰을 관할하였다."

재건되어 많은 승려가 세거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근 사찰에 불사를 지원했을 것이다.

금산사, 선운사, 귀신사 사이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귀신사 재건불사는 「나한전 낙성문」에 의해 참여인원을 알 수 있다(부록 3). 1633년 불사의 자료이긴 하나 귀신사 재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이 불사에서 숙두(熟頭)로 참여한 태능은 금산사에 부도비를 남긴 소요 태능(逍遙 太能, 1562-1649)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화로 참여한 처영은 금산사의 대표 고승 뇌묵 처영으로 생각된다.[137] 뇌묵 처영과 소요 태능이 금산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가 한 불사에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법찬(法湌)은 <해남 도장사 석가삼존상>(1648, 도 33)에 대좌대시주 및 삼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불사는 소요 태능과 행사(幸思)가 참여하였다. 행사는 금산사에 세워진 「소요당대사 부도비명(逍遙堂大師浮屠碑銘)」(1651)의 사중질(寺中秩)에 수령(首領)의 직임을 가진 승려로 나오기 때문에 금산사 승려라고 할 수 있다.

「나한전 낙성문」에서 연화(緣化)의 소임을 맡은 신율(信律)은 금산사가 원 봉안처인 <군산 은적사 아미타불좌상>(1666, 도 34)에 공양시주로 참여하였다. 4등 화원 관해(寬海)는 원 봉안처가 금산사인 <군산 동국사 소조 석가삼존불상>(1650, 도 35, 이하 <군산 동국사상>)의 수화원으로 참여하였다. 5등 화원 회감(懷鑑)은 <군산 동국사 석가상>에서 대공덕주(大功德主)를 맡았다.[138] 그리고 회감은 귀신사가 원 봉안처인 <군산 불지사 아미타불좌상>(1666, 도 36)을 제작하였다.

<귀신사상>은 덕기(德奇)가 조성하였다고 전해진다. 덕기는 1610년대 작성된 「서울 개인 소장 발원문」에서 원오, 청허(淸虛)와 함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중 청허는 확실히 금산사 승려이다.[139] 그리고 그의

137) 현진파 불사에 참여했던 처영도 존재한다. 그러나 뇌묵 처영의 기록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시점이 1630년이라는 점, 금산사가 귀신사와 지척 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뇌묵 처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38) 회감에 대한 연구는 최선일, 「17세기 중반 조각승 懷鑑의 활동과 불상 연구」, 『17세기 彫刻僧과 佛像硏究』(한국연구원, 2009), pp. 103-119 참고.

139) 「경산 경흥사 소장 목조 석가삼존불좌상 복장발원문」. "激請全羅道 金山寺畵員始役于草庵證師雙信 畵員名 淸虛" 판독 저본은 유근자, 앞의 책, pp. 428-430. 청허와 관련하여 송은석, 「金堤 金山寺 조각승 淸虛의 造像 활동」, 『美術史學硏究』 279·

스승인 원오도 금산사 중창주 중의 한 명인 석준(釋俊)과 함께 개금불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140] 원오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익산 관음사 관음보살입상>은 원 봉안처가 완주 위봉사(威鳳寺) 북암(北庵)이다. 「서울 개인소장 발원문」의 불사 참여자가 대체로 <익산 관음사 관음보살입상>의 불사 참여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전주 일대 불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41] 따라서 원오가 전주부 일대에서 활동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원오가 금산사 중창주인 석준, 금산사 화승인 청허와 불사를 진행했다는 점으로부터 원오 역시 금산사와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42] 덕기가 그와 함께 활동했던 것을 본다면 덕기도 전주 일대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명(處明)은 「서울 개인소장 발원문」에서 참학(參學)으로 나오며, <선운사 상>과 귀신사 나한전 불사에서 증명 법사를 맡았다. 금산사와 관계가 깊은 원오를 중심으로 한 불사에 덕기, 처명이 함께한 이후 귀신사 불사에서 다시 덕기와 처명이 함께하고 있는 점은 이들이 금산사를 중심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43]

고창 선운사 재건역 참여자를 알려주는 자료는 「선운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복장기록문」(1633)과 「선운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대좌 묵서」(1634), 「전각, 요사 창건연대 방명열목」(18세기 후반, 이하 「방명열목」)가 있다. 이중 「방명열목」에 나오는 1614년 법당 창건 화주 원준(元俊)은 <군산 동국사상>에 시주자로 2회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1618년 천불전(千佛殿) 창

280(2013), pp. 203-237 참고.

140)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 개금발원문」. "畵師 釋俊 元悟" 판독 저본은 유근자, 앞의 책, p. 382.

141) 최선일, 앞의 책, p. 13.

142) 위의 책, p. 17.

143) 송은석은 각민, 응원, 행사가 순천 송광사를 고리로 하여 교류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송은석,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 覺敏, 應元, 印均」, 『보조사상』 29(2008), pp. 295-333. 응원은 현존 작례가 순천 송광사에만 남아 있어 분명히 송광사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여수 흥국사 불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과 순천 송광사의 교류는 부휴 선수, 벽암 각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부휴선수와 각민은 「서울 개인소장 복장발원문」에서 함께 불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있으며, 행사는 벽암 각성이 주도한 순천 송광사 불사와 <해남 도장사 석가불좌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행사는 여수 흥국사에 주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 흥국사는 부휴문중과 관련이 깊다. 김세영, 앞의 논문, p. 54. 따라서 이들이 부휴와 벽암의 영향으로 순천 송광사 일대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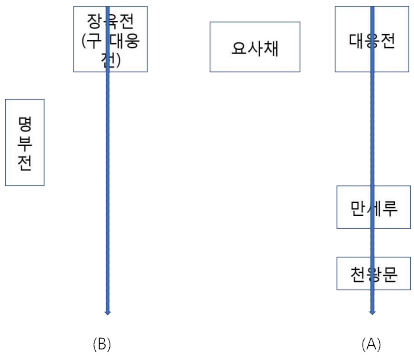
건 화주 영일(靈日), 1668년 천불상 화주 사준(思俊)도 동일한 발원문에 보인다. 1668년 천불상 조성 별좌 혜정(惠淨)은 <군산 동국사상>과 금산사가 원 봉안처인 <군산 은적사 아미타불좌상>에 이름이 확인된다. 1646년 동상실(東上室) 중건 화주 정학(淨學), 1633년 청풍대(淸風臺) 중창화주 육화(六和) 역시 <군산 동국사상>에 시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선운사상> 기록에 나오는 신회(信懷)는 응원(應元)과 함께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조성한 바 있다. 응원은 금산사 중창주로 「금산사 사적」에 기록되어 있으며, 중관 해안의 「금산사 서암 개립설」에는 응원이 노년을 편히 보내기 위해 금산사에 서암을 창건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진다.[144] 이 기록은 응원이 금산사와 관계가 깊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선운사상> 조성에 참여한 운일(雲日)은 원오 작례인 <논산 쌍계사상>에서 별좌를 맡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불사에 참여한 성관은 태전이 제작한 <김제 금산사 독성상>에 노덕(老德)으로 나오며 <군산 동국사상> 시주질에도 보인다. 이상을 통해 17세기 선운사 재건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화주들이 금산사와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귀신사, 선운사가 금산사와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금산사가 도내 수사찰이었으며 이른 시기에 대규모로 재건되었기 때문에 금산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사찰의 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산사의 세거 승려가 1620년대에 이미 200명이었다는 점은 금산사가 인근 불사에 지원할 만한 여력이 충분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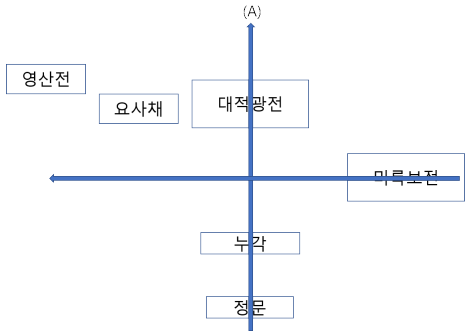
이처럼 금산사의 영향 하에서 <귀신사상>, <선운사상>의 도상이 선택되었다면,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과 동일한 의례적 기능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의례적 기능을 가졌다면, 도상 선택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세 불상이 동일한 맥락에서 기능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선운사와 귀신사의 가람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44) 『중관대사유고』, 「금산사 서암 개립설」. “於是山人應元 爲其師兄師弟 遂爲安心送老之計 撝囑智寬禪子 欲改立之 又莊修之 又像設之 又慶讚之 噫 一庵之未及改也 二利之能事畢矣 然則應元也 智寬也 是二人者之所以爲心伯仲之壎篪也”



삽도 8 고창 선운사 가람배치



삽도 9 김제 귀신사 가람배치

고창 선운사는 사찰 사적에 의하면 미륵신앙이 강세였다. 창건 당시 미륵이 솟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행호(行乎) 화상이 이곳에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등 법상종 논서를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145] 선운사는 15세기 말 덕원군에 의해 사찰에 다수의 전각이 지어졌다. 「선운사 형지안」에 의하면 덕원군의 원당으로 장육전이 세워졌다.[146] 이때 지어진 장육전은 2층이었으며 그 안에 영산회도, 미륵회도, 서방회도, 53불회도가 봉안되어 있었다. 장육전은 전쟁을 거치며 소실되었고 1713년이 되어서야 중층으로 재건되었다.[147]

선운사 중창이 덕원군의 원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육전 영역이 중심 영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배치를 보면, 선운사 역시 현 대웅전이 정문-누각을 마주보며 중심 영역을 형성하였고, 장육전 영역은

145) 선운사 편, 앞의 책, p. 113. “행호가 주석하면서 3천여 명을 항상 작법케 하고, 날마다 유가사지론과 지도론, 바사론, 시사율 80권, 화엄경, 법화경, 보적경, 반야경, 경논율 3장 등의 법을 환히 통하게 함으로써…” 유식과 중관 논서를 특필한 것으로 보아 법상교리에 주안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146) 다만 「선운사 형지안」의 내용에는 장육전과 대광명전, 금당을 중창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대웅전의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웅전 명칭은 뒤에 대웅전 원당 시주자 목록에서 확인될 뿐이다. 덕원군의 도움으로 새로이 조성한 불화가 봉안되었던 전각이 대웅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곳이 장육전임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오경후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장육전을 원당으로 보았다. 오경후, 「朝鮮前期 禪雲寺의 重創과 展開」, 『신라문화』 33(2009a), pp. 165-166.

147) 1821년 장육전을 1층으로 고치고 영산전으로 바꾸어 현재는 영산전만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건축사사무소, 『선운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05), p. 71 참고.

외곽에서 따로 축선을 구성하고 있다(삽도 8). 17세기 재건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곳은 현 대웅전이며, 장육전 영역은 축선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귀신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삽도 9). 현재는 사라진 전각이 많지만, 17세기 전반에는 미륵보전(彌勒寶殿)이 존재했다.[148]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 대적광전 맞은 편, 구(舊) 명부전 자리에 대적광전과 평행하는 축대가 발견되었는데, 조사자는 이를 누각으로 판단하였다.[149] 그리고 미륵보전은 대적광전 동쪽 가건물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150] 17세기 귀신사 가람배치를 추정하면, 귀신사에는 중축선상에 대적광전과 맞은편에 누각을 두고 동쪽에 미륵보전이 위치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치는 앞에서 살펴본 17세기 일반적 가람배치와 일치한다.

두 사찰의 가람배치는 앞서 말한 17세기의 경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축성의례의 장소인 대웅전, 대적광전 영역이 중심영역이 되었고, 그 안에 비로자나 삼방불상이 봉안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과 <귀신사상>, <선운사상>이 동일한 의례적 맥락에서 기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귀신사상>, <선운사상>의 조성은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영향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151] 같은 전주부 소속 사찰인 완주 송광사의 사례를 보면 이와 명확히 구분된다. 완주 송광사

148) 「나한전 발원문」. "次彌勒寶殿 已成後 彌勒畵佛安于" 판독 저본은 송은석, 앞의 책, p. 400.
149) 윤덕향·고금임 편, 앞의 책, p. 52.
150) 위의 책, p. 54.
151) 17세기 전반 이후 비로자나 삼방불상이 조성된 사례는 없다. 대신 괘불로 제작되는데 가장 이른 경우가 「칠장사 오불회 괘불도」(1628)이다. 이 그림은 인목대비가 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전체는 하단에 관음, 지장을 그리고 위에 미타불, 약사불을 배치하고 가장 위에 삼신불을 배치하였다. 1684년 조성된 <영주 부석사 괘불>(1684)의 경우 화면 상단에 비로자나 삼방불이 위치하고 그림의 2/3은 석가설법도로 채워져 있다. 석가설법도가 화면의 2/3을 차지한다는 점은 17세기 괘불의 경향과 일치한다. 한편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원나라 순제 치세에 궁중의 재물로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암세고(止巖世稿)』 권 2 「유부석사록(遊浮石寺錄)」. 이 시기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왕실 원당에서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때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부석사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주 부석사 괘불>은 17세기 괘불의 통례를 따르면서도 이전에 존재했던 도상을 그려 넣어 절충적 면모를 보인다. 17세기 후반부터 괘불로 조성 매체가 변화한 이유는 일상 공양의례의 변화와 맞물려 삼방불도상이 더욱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전반 이후 비로자나 삼방불, 삼신불이 주전각 내부에 봉안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일상 공양의례와 축성의례의 도상이 더욱 보편화 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개창역은 원암사 승려들이 주도하였다.[152] 이들의 주도로 완성된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주존불은 석가 삼방불상이었다(도 37). 송광사의 사례는 주도하는 승려들에 따라 불상의 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를 통해 <귀신사상>, <선운사상>의 도상 선택이 동일한 개념의 도상을 선택했던 금산사의 영향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15세기 조성되었던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기능 즉 축성의례의 기능을 의도하고 조성되었다. 이후 금산사 승려들은 축성의례가 설행되는 공간인 주불전에 이에 적합한 도상을 선택해야 했을 때, 축성의례의 도상으로 오랫동안 기능했던 도상을 다시 복원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근 사찰에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존상이 요구되었을 때 금산사 승려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도상을 적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불상의 조성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자면 축성의례의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 세 사찰의 불상은 모두 대형으로 조성되었다. 대형불상의 조성과 재건역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경제적 배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찰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역의 결과 이 불상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불상이 대형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불상의 의례적 기능과 연결시켜보도록 하겠다.

152)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普照思想』 47(2017), pp. 132-167.

Ⅳ. 조성의 경제적 배경과 의의

세 사찰의 불상은 대형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인정된다. 대형불상의 조성은 상당한 경제적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유교사회에서 대규모 재건역은 관(官)의 허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153] 본 장에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여 비로자나 삼방불상 조성 의의를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조성된 불상의 기능과 경제적 차원과 연결될 수 있음을 논증하겠다. 논의는 귀신사를 시작으로 금산사, 선운사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조성 의의를 결론지어 보겠다.

우선 귀신사의 사적에 대해 살펴보자. 귀신사의 사적 전체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무경 자수(無竟子秀, 1664-1737)가 쓴 「전주 모악산 귀신사 사적사인(全州母岳山歸信寺事蹟詞引)」(1738, 이하 「귀신사 사적기」)과 19세기 기록된 「귀신사 중창기(歸信寺重創記)」(1823, 이하 「중창기」)가 있다. 재건역과의 시간적 거리를 본다면 무경자수의 사적기가 사료적 가치가 더 높다. 단편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로는 복장물로 발견된 「나한전 낙성문」이 있다. 이상의 사료와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귀신사의 사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당시에 전주 일대가 공격받아 귀신사는 폐허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되었다. 이 때 진행된 재건역의 시작점은 사료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여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귀신사 사적기」에 의하면 천계(天啓) 갑오년(甲午年)에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천계 연간에는 갑오년이없고 갑자년(甲子年)만 있다. 천계 갑자년은 1624년에 해당한다. 한편 「중창기」에는 만력 임진년(1592)에 폐사되고 신축년(辛丑年)에 중수가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이 때 신축년은 1601년에 해당한다. 뒤에 옹정(雍正) 갑인년(1724)에 중창이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만력(萬曆) 갑인년(1614)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바로 뒤에 강희(康熙)연간에서 옹정연간의 중수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154] 여기에 연대를 보정(補正)할

153) 『경국대전』 예전(禮典), "凡寺社, 勿新創, 唯重修古基者, 告兩宗, 報本曹, 啓聞"

자료는 귀신사 간행의 판본이다. 1609년 귀신사에서 간행된『묘법연화경』은 귀신사가 이 때 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즉 귀신사는 1601년에 재건이 시작되어 8년 만에 승려가 세거할 정도로 복구되었다. 1624년에는 여러 전각이 완성되어 완전한 가람을 갖추었을 것이다. 「나한전 낙성문」에 의하면 주불전을 세운 사람으로 신허, 염화가 나오고 이후 승려 덕기가 불상삼존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뒤이어 미륵보전, 시왕전, 정문, 사천왕문이 건립되었다.[155] 끝으로 1633년 승려 도헌이 나한전을 창건하면서 귀신사 재건역은 일단락되었다.

귀신사의 재건역이 이토록 빠르게 진행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경자수의 「귀신사 사적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귀신사 사적기」의 재건역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우리 원종대왕(元宗大王)은 천지의 어두움을 덮고, 일월의 수승한 상서로움을 받들어, 반정으로 등극하여 폐단을 혁파하고 중흥하였으며, 다시 추로의 유풍을 떨쳤으며, 문물은 땅에 성하였다. 문신, 무신의 서업을 솔선수범하였으니 소리는 맑아 하늘이 움직였고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 그것을 얻게 하셨다. 과연 만물은 그 자리를 잃지 않았으며, 지검(芝檢)을 8도에 날려 정결한 사찰[淨刹]은 일시에 중수되었다.(밑줄 필자)[156]

사찰의 사적을 서술하면서 왕실을 직접 언급하고 반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 구절은 사찰과 왕실 사이의 관계를 암시한다. 여기에 나오는 원종대왕은 인조(仁祖)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 1580-1619)으로 즉위하지 않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추증되어 원종대왕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뒤에 나오는 지검을 8도에 날려 사찰을 중수했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지검(芝檢)은 어인(御印), 어명(御名), 옥새(玉璽)의 뜻을

154) 정이담, 앞의 논문, p. 10.

155) 「나한전 낙성문」, "次正門已成 次彌勒寶殿已成後彌勒畵佛安于 次十王殿已成後地藏十王安于 次天王門已成四天王安于 各各方舍已畢." 판독 저본은 송은석, 앞의 책, p. 400.

156)『무경집』권 2「전주 모악산 귀신사 사적사인」"惟我元宗大王 苞天地之大渾 啓日月之殊瑞 反正登極 革弊中興 再振鄒魯之遺風 文物殷地 率修文武之緖業 聲明動天 而使群情各得其 宜萬物不失其所 飛地檢於八路 修淨刹於一時."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57] 또한 「귀신사 사적기」 뒤에 수록된 시(詩)에서도 하늘에서 조칙을 내려(惟天降詔) 보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158] 여기서 조(詔)는 임금의 명령이므로 「귀신사 사적기」의 해당 구절은 왕실의 허가로 사찰을 중수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귀신사 재건역에 원종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이 구절을 궁방(宮房)[159]에 의한 원당절수로 해석하고자 한다. 절수(折受)란 양안상 무주지(量案上無主地)를 입안(立案)하여 궁방에서 개간 후 소유하거나, 어장(漁場), 선박(船舶) 등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수사와 각 궁방으로 이급(移給)하는 방법이다.[160] 이 때 절수 관련 상소문에 원당절수(願堂折受)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161] 원당절수는 17세기 이후 자주 언급되지만, 명종대에 이미 동일한 사례가 확인된다. 다음의 사료는 17세기 원당절수의 전례로 언급되는 기록이다.

> 여러 궁가(宮家)에서 각기 정해진 수 밖의 사찰을 차지하여 별도로 원당을 만들어, 왕자(王子)를 칭탁하기도 하고 공주나 옹주(翁主)를 칭탁

157) 원문에는 '地檢'으로 되어 있으나 '芝檢'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귀신사 사적기」 말미에 쓴 시(詩)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58)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法王利見。虬宮瘞月。轉及雞林。增崇鶴國。兵燹流灾。福地燬滅。惟天降詔。再拓淨居。月觀龍躍。雲軒鶴舒。寶莊交輝。人靈合慶。前後丕績。不敢殫說" 판독 저본은 무경 자수, 『무경집』, 김재희 역(동국대학교 출판부, 2013), p. 352.

159) 궁방은 중앙 왕실의 사적 재정기구인 내수사, 16-17세기에 성립한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으로 대표된다. 이들 4궁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명례궁은 덕수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목대비의 친정집이 명례궁이었다가 인목대비가 덕수궁으로 이궁하면서 명례궁 서재소가 덕수궁에 설치되어 덕수궁으로 인식되었다. 수진궁은 제안대군이 살았던 사저(私邸)인데, 훗날 후사가 없는 왕실 인물의 제사를 담당하였다. 어의궁은 인조가 즉위 전에 살았던 사저이다. 용동궁은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의 사저이다. 이들은 1사 4궁으로 불리며 제사(祭祀)와 무관하게 영구존속한다고 하여 영구존속궁으로 불린다. 그밖에 궁방은 왕족이 사적으로 형성한 기반에 해당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기간이 끝나면 속공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존재하였다. 이하 궁방을 논할 때는 1사 4궁 외 여타 대군, 공주, 부마의 궁방까지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궁방의 연혁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궁방양안』(민속원, 2012)과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 2016) 참고.

160)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1984), pp. 189-190; 박노욱, 『조선후기 양안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경인문화사, 2016).

161) 『선조실록』 권 160 선조 36년(1603) 3월 9일.

하기도 하며 엄연하게 차첩(差帖)을 만들어 주면서 붉은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중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곳곳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청(性淸)이 바로 그 하나로서 간사함이 더욱 심합니다. 금원군 이영(錦原君 李崇)은 늘 요사스런 중들과 밤에 서로 내통하며 부처에게 복을 빌었으니, 성청이 자전(慈殿)의 언문 사찰을 위조한 것이 반드시 영에게서 말미암지 않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162]

사료에서 승려가 왕족을 칭탁하여 모연(募緣)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17세기 이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그 모델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 공주, 옹주들이 사적으로 원당을 지정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선조대부터 원당절수의 폐해에 대한 상소가 올라온다. 이때 언급된 궁방원당은 신앙심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163] 다음의 두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왕자방(王子房)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진짜로 그 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사약(司鑰)이라고 일컬으면서 군현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산에 있는 사찰을 원당으로 삼는다고 핑계 대고서는 재물을 싹 쓸어가고…[164]

내가 일찍이 백련사(白蓮寺)에 (양주(楊州)에 있다) 간 적이 있는데 승(僧) 지호(智浩)가 '임해군의 원당이 모두 15곳이나 된다.'고 하므로, 내가 '임해군이 반드시 시주하기를 좋아하는 탓이다.' 하니, 그 중이 '임해군은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간다. 산채(山菜), 동물을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대어야 한다.' 하며, 그 승려는 매우 괴로워하였다.[165]

---

162)『명종실록』권 25 명종 14년(1559) 11월 9일.
163) 박병선,「조선후기 원당연구」(영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p. 73.
164)『학봉집』권 3「청정축성잉진시폐차(請停築城仍陳時弊箚)」.
165)『선조실록』권 165 선조 36년(1603) 3월 9일.

사료에 기록된 궁방에 의한 '원당지정-공물 제공'은 명종대 이래 궁방 원당절수의 전형적인 면모이다. 명종-인조 연간에 책봉되지 못한 왕실 인물들이 원당을 절수하여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절수원당은 종교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정원군도 절수와 관련하여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 여러 왕자들 중 임해군(臨海君)과 정원군이 일으키는 폐단도 한이 없어 남의 농토를 빼앗고 남의 노비를 빼앗았다. 이에 가난한 사족(士族)과 궁한 백성들이 모두 자기의 토지를 잃었으되 감히 항의 한번 못하여 중외가 시끄러웠으니, 인심의 원망하고 이반됨이 어떠하겠으며, 나라의 명맥이 손상됨이 어떠하겠는가. 상이 순화군을 책하는 마음을 임해군과 정원군에게 옮기지 않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166]

사료는 정원군이 실제로는 경작자(耕作者)가 있지만, 양안상 무주지로 등록된 토지를 절수로 빼앗은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자료에서 정원군과 임해군의 토지 침탈이 매우 심했던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선조 재위기간 중 절수를 행했던 인물 중 유독 극심했던 인물이 정원군, 즉 원종임을 알 수 있다.

원종은 토지침탈 이외에 원당절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중사자암(中獅子庵)이 명확한 사례이다. 18세기 기록에 의하면 중사자암은 원종의 원당으로 기능하였다.[167] 중사자암은 실록에서 인조가 매년 기일에 제사를 지낸 곳으

---

166) 『선조실록』 권 151, 선조 35년(1602) 6월 11일. 이밖에 다른 자료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충분히 드러난다. 『선조실록』 권 92, 선조 30년(1597) 9월 22일. "지난번에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 등이 후궁(後宮)을 배종(陪從)하여 서쪽으로 내려갈 적에, 그의 궁노(宮奴)를 방종하게 놔두어 지공(支供)이 풍부하지 못하다면서 향소(鄕所)를 마구 구타하고 기명(器皿)을 부수었습니다. …끝없이 폐단을 저질러 온갖 물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수에 있어서 한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궁노가 바로 왕자(王子)에게 하소연하고 그러면 왕자는 금지시켜 단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멋대로 구는 것을 조장함으로써…"

167) 『승정원일기』 영조 5년(1729) 10월 1일. "신이 보은(報恩)을 지나올 때 우연히 중사자암(中獅子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의 중이 말하기를, 이 암자는 원종대왕의 원당

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초부터 중사자암이 원종의 원당으로 기능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168] 중사자암은 법주사 소속 암자이며 기록상 원종이 잠저시절 즉 정원군 시절에 건설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직접 건립한 것은 아니며 맥락상 원당으로 절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귀신사 재건역이 시작되었던 1601년 전후로 원종에 의한 절수가 극심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귀신사 사적기」의 해당 구절은 귀신사가 원종에 의해 절수되었던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방원당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귀신사가 절수원당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 심지어 여러 산 속의 사원들까지도 각 궁가의 원당이라는 구실로 많은 위전(位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면세까지 받고 있고, … 사원의 면세 받고 있는 위전에 대하여도 해당 관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혁파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169](밑줄 필자)

이 기록을 통해 궁방의 원당으로 절수되면 사찰 소유 토지가 위전으로 설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전은 잡역과 세금을 면제받는 토지이다.[170] 따라서 귀신사가 원당이었다면 사위전(寺位田)의 소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양안(量案)에 나타난 귀신사의 토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보자.

귀신사의 토지를 보여주는 양안은『전라우도 전주부 기해양안 도행장(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都行帳)』(1719, 이하『전주부 기해양안』)으로 숙종조 대대적 양전사업으로 작성된 문서이다.[171] 본 양안은 특이하게 숙종조 경자양

으로 매년 두 분의 기일에 예전에는 나인(內人)이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오지 않은 지가 지금 이미 오래되어 중이 스스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하서집(荷棲集)』 권7 「속리행기(俗離行記)」 “菴中奉元宗大王神板。每諱辰設供以祀。蓋潛邸時願堂云。然緇徒私享”;『추파집(秋波集)』「유속리기(遊俗離記)」. “至中獅子庵。庵乃元宗大王命建。至今爇香。亦藏御書及下賜珍寶等物”

168)『인조실록』 권 48 인조 25년(1647) 12월 29일. “이날은 원종 대왕의 휘일(諱日)이다. 상이 매년 제물을 내수사를 시켜 보은현 속리산에 있는 절에 보내 중으로 하여금 재(齋)를 베풀고 부처에 공양토록 하였다.”

169)『인조실록』 권 12 인조 4년(1626) 3월 16일.

170) 탁효정, 앞의 논문(2011), p. 126.

안의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였다. 예컨대 1634년에 작성된 갑술양안이 그대로 기록된 사례가 있다. 자호 앞에 금량(今量)으로 표기된 부분은 1719년 새롭게 타량(打量)한 경우이며 금량의 표기가 없는 것은 대체로 갑술양안의 타량 결과를 옮겨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양안에는 17세기 초와 18세기 초의 토지소유 현황이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

이제『전주부 기해양안』중 귀신사가 위치한 귀신면(歸信面) 양안을 검토해보자. 본면 양안은 '今量'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1634년 양전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양안에서 확인되는 귀신사 위전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는 '起主 歸信寺位'로 기록된 토지이다.[172] 이런 토지가 '盈자 구가을리 전평'에만 50필지에서 355필지까지 확인된다. 해당 자호 내에서만 텃밭인 사대전(寺垈田) 1결 53부 2속, 사위전이면서 경작가능한 밭인 사위기전(寺位起田) 5결 76부 2속, 경작가능한 논인 사위기답(寺位起畓) 41부 9속이 기록되어 있다. 바로 뒤에 '肆자 귀신사 前坪'의 필지의 1필지부터 142필지까지도 모두 기주명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호내 총합은 사위기답 80부 3속, 사위기전 3결 3부 3속으로 상당한 토지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자호에도 역시 귀신사 사위 기답 1결 24부 8속, 사대전 21부 1속, 사위기전 1결 49부 7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만 총합해도 전(田)은 10결 29부 2속, 대전(垈田)은 1결 74부 3속, 답(畓)은 2결 47부가 된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4결 50부 5속이 된다. 대체로 5결 이상 토지소유자를 대지주(大地主)로 규정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귀신사의 토지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4결을 상회하는 귀신사위전은『전주부 기해양안』에 기록된 사위전 중 최대 규모이다.[173]

---

171) 양안의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천자문의 순서대로 자호(字號)를 부여하고 한 자호 당 5결(結)씩 기록하였다. 양안의 작성 체계는 일반적으로 자호 내 지번(地番), 땅의 범위, 산출량, 사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적은 사표(四標), 기주명(起主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자양안에 대한 전반적 사항은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편,『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혜안, 2008)을 참고하였다.

172) 이 토지는 작인명(作人名)이 없다.『전주부 기해양안』에서는 위전인 경우 기주명을 '起 某位 作 某人'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귀신사위전답은 대부분 작인명이 쓰여 있지 않다. 작인명이 없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귀신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별고를 통해 논증하도록 하겠다.

1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일반양안·기타양안』(민속원, 2012b), pp. 92-95. 각 면별 사위전의 규모는 이 책의『전주부 기해양안』총결정리표에 근거하였다.

귀신사는 어떻게 대규모의 사위전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귀신사위전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에 등록된 15결 가량의 토지는 귀신사가 여말선초부터 소유했던 토지로 생각된다. 다만 이 토지는 조선 초 억불책으로 인해 면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후 귀신사가 명종대 내원당으로 지정되면서 위전으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명종대 내원당에 내원당전(內願堂田)이 분급되었기 때문이다.[174] 이때 토지를 직접 분급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위전(位田)이 아니었던 토지를 이때 위전으로 추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5결 가량의 대토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귀신사가 소유했던 토지가 이때 위전이 되었을 것이다.[175] 분급된 내원당전은 문정왕후 사후에 내수사로 귀속되었다.[176] 문언 그대로 토지를 돌려 준 것은 아니었고, 위전에서 다시 일반 토지로 전환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귀신사 소유 사위전도 이때 일반 토지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후 40년 뒤에 15결 가량의 토지가 면세지인 위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전쟁 후 경제적 궁핍을 고려한다면 개간이나 매득으로 대규모 토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전주부 기해양안』에 기록된 17세기 초의 귀신사위전은 앞의 사료에서 살펴보았듯 절수되면서 위전으로 지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17세기 초의 토지문서에 기록된 대규모 귀신사위전의 존재를 바탕으로 귀신사가 원종의 원당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177] 이상을 통해 <귀신사상>의 조성 배경에는 궁방에 의한 원당절수라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178]

---

174) 『명종실록』 권 9 명종 4년(1549) 9월 20일;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1553) 3월 22일

175) 홍근혜, 「조선 문정왕후기 불교시책과 내수사」(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p. 25-26.

176) 『명종실록』 권 33 명종 21년(1566) 7월 14일.

177) 다만 『전주부 기해양안』에는 다른 사찰의 사위전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5결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위전을 소유한 곳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다른 경우는 승역의 대가로 인정된 사위전이었을 것이다. 승역과 관련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178) 귀신사는 1660년대 이후 원당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사 도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내수사 도안』에는 총 38개소의 사찰이 확인된다. 원당의 숫자가 대폭 줄었던 것은 아마 원당 혁파령이 3차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종, 숙종, 정조대에 원당 혁파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거치며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당이 줄어들었다. 『내수사 도안』에 기재된 사찰은 대부분 조선 전기에 이미 원당으로 지정 되었던 곳이다. 보은사(=신륵사), 법주사, 유점사, 건봉사처럼 조선 전기에 이미 원당으로 지정되었으나 후기에 다시 중첩하여 지정된 경우가 있다. 왕실 내부에서도 원당

금산사와 선운사도 이른 시기에 대형불상이 조성되었다. 귀신사와 달리 절수 원당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규모 불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금산사, 선운사와 비슷하게 대형불상이 이른 시기에 조성된 다른 사례를 통해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부록 4). 대표적인 사례는 <공주 갑사 소조 석가삼방불좌상>(1617, 도 38), <법주사 삼신불상>, <부여 무량사 소조 미타삼존불좌상>(1633, 도 39), <선운사상>, <김제 금산사 미륵삼존상>(1630년대, 도 40), <화엄사 삼신불상>, <완주 송광사 석가 삼방불좌상>[179]이 있다.

설치는 표면적으로 꺼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존 지정사찰에 첩설(疊設)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능침사찰 외 궁방의 원당으로 새롭게 지정된 사찰은 육상궁 원당 2개소, 승주 선암사뿐이다. 원종과 관련된 사찰은 중사자암, 귀신사, 완주 송광사, 봉릉사가 있지만『내수사도안』에 등재된 원당은 중사자암 하나이다. 중사자암은 법주사에 속해있었으며 법주사가 이미 원당으로 누차 지정되었기 때문에 첩설의 원칙에 따라 중사자암만 남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귀신사와 송광사는 원종 원당에서 제외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사적기」는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57년 미륵보전을 중수한 이후 '여러 일을 이루고 나자 여러 세대에 걱정이 없으리라 여겼는데, 뜻밖에도 사찰의 운이 어렵고 산문이 위태로워 청정한 곳이 날로 쇠퇴하고, 재물이 해가 갈수록 남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는 1660년 현종조에 실시된 원당혁파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비변사등록』에 의하면 이 때 혁파령은 1사 4궁 외 궁방 원당에 집중되었다.『비변사등록』20책 현종 원년(1660) 4월 6일.

179) 완주 송광사의 경우 신창사찰이었기 때문에 재건을 다루는 본문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마찬가지로 원당의 성격이 있으므로 잠시 설명해두고자 한다. 완주 송광사의 경우도 원종과 연관된 사찰이다. 규장각에 소장된「불상화주행적」(1725)에는 화주 승명(勝明)이 <완주 송광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을 만들 때의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승명은 서울로 올라가 세자(世子)의 가노(家奴) 백실남과 만나 금과 권선문을 받아 불상을 조성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때는 1640년이며 세자는 소현세자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기록의 후반부에는 소현세자의 가노가 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아들 중 5남(=원종)'과 세자, 대군(=봉림대군)에게 그 공적을 돌리고 있다. 소현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이 이야기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특히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 원종은 완주 송광사 개창역이 시작되는 1622년에 사망한 상태였다. 완주 송광사의 경우는 소현세자, 봉림대군이 원종을 위하여 원당화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완주 송광사 개창역은 봉림대군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발원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불상, 불화 발원문에는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제년, 세자 저하 수천추'라는 관용구가 들어간다.「완주 송광사 삼방불좌상 복장발원문」의 경우 특이하게 그 뒤에 봉림대군이 빨리 환국하기를 바라는 구절이 특별히 추가되어 있다. 더구나 효종조에 이르러 완주 송광사는 삼전축원이 적힌 2m가 넘는 대형 삼전패(三殿牌)가 제작되었고,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이라는 사액(賜額)이 하사되는 등 이례적인 특권을 부여받았다. 1725년의 기록에 의하면 패전(牌殿) 즉 삼전패를 봉안하는 별도의 전각까지 건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이 사찰이 원종의 원당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사친(私親) 추숭 원당이 지정되었는데, 완주 송광사의 경우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완주 송광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강

공주 갑사는 국초에 선교(禪敎) 양종 36사에 포함되어 전토를 분급 받았다. 실제로 「공주 계룡산 갑사 사적비명(公州鷄龍山岬寺事蹟碑銘)」에는 원당이었던 사실과 내수사를 언급하고 있다.[180] 또한 근래 발견된 <공주 갑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의 복장기록에서 상궁(尙宮)의 발원이 확인되었다.[181] 보은 법주사는 세조뿐만 아니라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 예종, 성종이 방문했으며 100일 축리를 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팔상전(1605)에서 발견된 기록에는 왕실을 축원하는 등 왕실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182] 법주사는 이후에도 선희궁 원당, 순종의 태실 원당 등 왕실에 의해 지속적 관리를 받았다.[183] 부여 무량사는 명종대 기록에 의해 지음승이 파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184] 앞서 언급했듯이 명종대 지음승이 파견된 사찰은 내원당이다.

근,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講座 美術史』 13(1999), pp. 103-136; 최연식, 앞의 논문, pp. 132-167.; 한지만, 「조선 후기 선종사원 완주 송광사 가람구성의 의미」, 『보조사상』 47(2017), pp. 169-216; 탁경백, 「이옥이 본 조선 후기 완주 송광사의 가람배치와 대웅전의 구조」, 『건축역사연구』 26-2(2017), pp. 43-52; 유근자, 「17세기의 완주 송광사 불사와 碧巖覺性」, 『南道文化硏究』 36(2019), pp. 121-169; 이헌준,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좌상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180) 「공주 계룡산 갑사 사적비명」. "근원을 중히 여겨 비록(秘錄)을 열어 이에 특별한 원당이라 칭하고, 두 스님이 정성을 다하니 능히 가사를 나누는 축원에 버금간다. … 조세 문서를 미루어 밝혀 백년의 옛 법을 되돌리고, 수사(需司)의 예를 살펴 일대의 새 법을 만들었다."

181) 「공주 갑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 발원문」. 상궁이 확인되며 동시에 비구니도 등장하는데, 김광희는 이를 왕실 관계 비구니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광희,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 2018, p. 187.

182) 팔상전 사리합을 감싼 보자기에 '乙巳生 崔氏'의 시주사실과 '丙子生 王孫昌盛萬歲'의 구절이 적혀 있다. 17세기 이후 조성 발원문에서 '출생 갑자+성씨'로 표기하는 경우는 대개 상궁이나 왕실인물이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평창 상원사 제석천상>(1645)에 '黃金大施主 李氏 庚子生 兩位'로 나오는 사람은 경평군 이륵(慶平君 李玏)이며, <순천 송광사 관음보살상>(1662)에서 발견된 저고리, 발원문에는 '庚子生 朴氏 盧氏 壽命長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자생 노씨는 상궁 노예성이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3불 조성기에 숙빈 최씨, 연잉군도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법주사 팔상전 사리합 보자기에서 보이는 이러한 표기 방식도 왕실 혹은 상궁에 의한 발원임을 암시한다. 판독 자료는 유근자, 앞의 책, p. 431; 같은 책, p. 486.

183)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朝鮮寺刹史料 上』(朝鮮總督府, 1911), pp. 129-136. 완문에 의하면 태조 잠저 시 100일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 세조대왕이 머물렀던 곳, 원종대왕과 인헌왕후의 어실, 열성조의 어필 봉안처, 인현왕후 축리 후 비단 자수와 임금의 신발을 지급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선희궁 원당, 순종 태실 원당지정까지 누대에 걸쳐 원당으로 지정되었다.

184) 『명종실록』 명종 9년(1554) 3월 4일. "홍산(鴻山) 무량사의 지음승이 비인현감(庇仁縣監)에게 남살(濫殺)되어 내수사 관리를 보내어 살펴보고 오게 했었다."

그리고 완주 송광사 불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진묵대사가 무량사 재건에도 깊이 개입한 것을 통해 왕실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185] 구례 화엄사는 인조가 하사한 어필(御筆) 및 가사(袈裟), 교지(敎旨) 등의 다양한 왕실 하사품이 현전하며 중관 해안의 사적기에 종실위(宗室位)의 존재가 확인된다. 또한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 도 41)의 조성에는 효종의 사위 익평위(益平尉, 1635-1673)가 참여하였다. 익평위가 전주 일대에 궁방전을 형성했다는 기록이나 가노의 행패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화엄사도 귀신사와 비슷한 사례이거나 이전에 원당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86] 이상을 종합하면 왕실 관련 사찰이 이른 시기에 재건되었고 그 때 대형불상이 조성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187] 금산사와 선운사도 이와 동일

185) 오세덕, 「부여 무량사의 17세기 재건과 조영계획」, 『문화재』 48-3(2015), p. 68. 오세덕은 진묵대사가 완주 송광사 개창역에 참여한 부마 신익성과 교분이 있었던 점을 들어 무량사의 대형불사도 왕실과 유관한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86) 김정희는 벽암 각성과 인조, 효종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왕실 원찰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효종대 선종대가람으로 사액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원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희, 「碧巖 覺性과 華嚴寺 靈山會掛佛圖」, 『강좌미술사』 52(2019), p. 131. 익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가 참고된다.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1월 12일;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11월 13일. 화엄사 어필, 교지 등의 명문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편, 『화엄사의 불교미술』(국립중앙박물관, 2010a)을 참고.

187) 이밖에 불상이 현존하지 않으나 17세기 전반에 재건되었던 다른 사찰도 왕실과의 연관성이 발견된다.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14년 각민이 제작한 비로자나 삼존상이 조성되었던 순천 송광사는 정종(靖宗)의 원당이자 수륙사였고 또한 선교 양종 36사에 포함된 사찰이었다(『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1424) 10월 25일). 직지사(直旨寺)의 경우 정종의 태실로 지정된 바 있으며 1602년 중수가 시작되었다. 직지사는 이후 작성되는 『내수사급 각궁방 전답총결여 노비총구 도안(內需司各宮房田畓總結與奴婢總口圖案)』(1787, 이하 『내수사 도안』)에 내수사 소속 사찰로 명기되어 있다. 해인사는 1622년 해인사 수다라장 복구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광해군이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강근, 앞의 논문(1994), p. 78; 이강근, 앞의 논문(2019), p. 81. 해인사 역시 태조, 세조가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시를 했던 곳이다. <파주 보광사 보살입상>(1633)는 원 봉안처가 양주 회암사였다. 이곳은 효령대군의 원당이었으며 조선 초, 중기 내내 왕실의 대표적 축원도량이었다. 『식우집』 권 2 「회암사중창기」. 경산 환성사도 대웅전이 17세기 전반에 복구되었는데, 현재 경주 왕룡사원에 봉안된 세조 발원 아미타불좌상의 원봉안처이다. 그리고 보우에 의해 사위전을 분급 받았던 사실이 영조대 기록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명종대 내원당이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23일. 영암 도갑사(道岬寺)도 이 시기 재건되는데, 도갑사는 인성왕후(仁聖王后, 1514-1577)가 발원한 <지온인 소장 관음 32응신도>(1550)의 원 봉안처였다. 도갑사는 『제호집』 권11에 수록된 1618년 기록을 통해 원당이었음이 확인된다. 『제호집』 권 11, 「歷盡沿海郡縣 仍入頭流 賞雙溪神興紀行錄」. 도갑사 역시 『내수사 도안』에 내수사 소속 사찰로 등재되어 있다. 소실되어 재건역의 전모를 알 수 없으나, 금강산 유점사(楡岾寺) 역시 전기의 왕실원당으로 기능했

한 경향을 보인다. 두 사찰도 조선 초기에 왕실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았다. 금산사는 15세기에 세조와 덕원군에 의해 중창되었다.[188] 앞서 언급했듯이 금산사도 왕실 원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운사는 덕원군이 후원하여 원당을 세우고 열성조를 위해 축원하였다는 기록이 현존한다. 덕원군은 대웅전을 원당으로 하여 지정하고 조종의 혼기(魂記), 권선문(勸善文)을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재건을 지원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어실(御室)이 존재하여 명백히 원당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경향은 왕실과 사찰 사이에 경제적 유착관계를 암시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왕실과 원당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실 원당은 국초부터 왕실 사적(私的) 재정기구인 내수사의 관리 하에 들어가 있었다. 내수사는 왕실의 사적 재정관리 기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실의 원당도 왕실 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다.[189] 왕실 원당이 내수사에 의해 창건되거나, 중수되었던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190]

명종대 이르러 사찰과 왕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었다. 그 배경은 성종대 이후 전개된 왕실 재정의 압박에서 찾을 수 있다. 성종대에 과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진왜란 이후 중수에 대한 기암 법견(奇巖法堅, 1552-1634)의 기록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더군다나 우리 왕비전하로 말하면 … 중건하라는 분부를 이미 내리심에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재물은 내탕에서 내고 승려는 외연을 주간하는 가운데”라고 하여 내탕금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기암집』 권2 「유점사 상량소」. 유점사도 마찬가지로 『내수사 도안』에 내수사 원당에 등록되어 토지가 분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례는 왕실 관련 사찰이 전후 이른 시기에 재건되었고 대형의 불상이 조성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188) 「고려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기」. 탑내 출토된 불상에 대해서는 이분희,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탑 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15(2013), pp. 117-143; 이분희, 「朝鮮 15世紀 塔內 奉安 佛像의 考察」, 『미술사학연구』 283·284(2014), pp. 16-17; 이분희, 「韓國 石塔 佛像 奉安 硏究」(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p. 99-100.

189) 내수사에 의해 원당이 관리되었던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성종실록』 성종 15년(1484) 12월 17일. “지금 이후로는 봉선사(奉先寺), 회암사, 용문사, 정인사(正因寺), 수종사, 개경사(開慶寺), 상원사, 낙산사(洛山寺), 그리고 정업원(淨業院), 복세암(福世菴), 연굴암(演窟菴) 등의 절은 내수사로 하여금 맡아서 검찰(檢察)하게 하라.”

190) 신륵사(이능화 저, 앞의 책(2010a), p. 308), 용문사(같은 책, p. 308), 회암사(같은 책, p. 204). 정인사(『식우집』 권2 「정인사 중창기」), 해인사(「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중수기」) 등 왕실관련 사찰들은 중수가 이루어질 때 모두 내수사로부터 내탕금이 지급되었다.

전법(科田法)과 직전법(職田法)이 사실상 폐지되어 왕실 재정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왕족은 실직(實職)이 아닌 허직(虛職)을 제수 받음으로써 과전법, 직전법의 토지 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191] 그러나 이 체제가 무너지자 왕실 재정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섭정을 맡은 문정왕후는 불교를 통한 왕실재정의 확보를 계획하게 되었다. 우선 문정왕후는 선교 양종을 복립하였으며 허응 보우를 선종 판사(禪宗判事), 봉은사(奉恩寺) 주지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내수사를 관리하게 하였다.[192]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허응 보우에게 일임시키고 보우가 다시 내수사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왕실 재정과 사찰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밀착되었다는 사실이다.[193] 이러한 흥불정책과 맞물려 400개소 사찰의 내원당화(內願堂化)가 진행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정왕후 내원당 정책의 본의가 드러난다.

문정왕후는 지정된 내원당에 일정한 토지를 분급하였다. 내원당은 왕실 사적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내원당전에서 소출되는 생산량의 일부는 내수사로 들어가 왕실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초부터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당시는 원당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사찰공물이 왕실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다.[194] 그러나 명종대 내원당의 숫자가 395개소로 폭증하여 사찰이 왕실 사재정에 큰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다.[195] 왕실 관련 사찰들은 대개 왕실에게 세출을 납부하거나,[196] 종이를 공

---

191) 『경국대전』 호전, 諸田, 職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과전법 상 왕자, 대군은 250결, 일반 군(君)은 200결, 공주, 부마는 220결을 지급하였고, 이후 직전법에도 대군 225결, 군 120결씩 직전이 지급되었다.

192) 한춘순, 「명종대 왕실의 내수사 운용」, 『인문학연구』 3(1999), pp. 391-439; 한춘순, 「명종대 왕실의 불교정책」, 『인문학연구』 4(2000), pp. 375-414.

193) 탁효정, 앞의 논문(2011), p. 127.

194) 왕실의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찰이 내수사에 상납한 조선 초기 사례로는 원각사, 직지사의 사례가 보인다. 원각사는 부채, 직지사는 감을 왕실에게 진상하였다. 원각사와 관련한 연구는 이병희, 「朝鮮前期 圓覺寺의 造營과 運營」, 『문화사학』 34(2010), pp. 111-145 참고. 직지사와 관련하여 서는 이능화 저, 앞의 책(2010b), p. 633. 왕실과 원당 사이의 상보적 관계는 하종목, 「조선 초기의 사원 경제: 국사 및 왕실 관련 사원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60(2000), pp. 1-105; 박병선, 앞의 논문(2002); 박병선, 「朝鮮後期 願堂의 政治的 基盤ー官人 및 王室의 佛教 認識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25(2002), pp. 103-138; 탁효정,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사회적 기능」, 『청계사학』 19(2004), pp. 149-213; 윤기엽, 「조선초 사원의 실태와 그 기능」, 『불교학보』 46(2007), pp.85-115를 참고할 수 있다.

급하였다.[197]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왕실의 재정 기반인 원당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왕실과 원당의 경제적 유착을 상기한다면 이는 곧 왕실 재정기반의 악화를 의미한다. 반대로 원당의 재건은 왕실의 입장에서 경제적 기반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198] 따라서 앞서 살펴본 17세기 전반 대형 불상의 조성, 대규모 재건역은 이러한 경제적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금산사와 선운사의 대형불상 조성과 재건역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금산사는 17세기 전반 재건역 당시 조정의 도움을 받았다(朝家之恤護)는 사실이 후대의 기록에 전한다.[199] 선운사는 무장 현감 송석조(宋碩祚)가 선운사에 있던 어실이 무너짐을 한탄하며 재건역을 주도하였다.[200] 이러한 사실들은 중수 당시에 왕실이 개입하였거나, 왕실과 관련하였을 때, 대규모로 재건될 수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15-16세기 원당이 이 시기에 모두 재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중에서 거점 사찰들이 주로 복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 결국 금산사와 선운사가 이른 시기에 대규모로 재건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왕실과 사찰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크게 작용했던

---

195)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1549) 9월 20일. 김정아, 「朝鮮 明宗代 王室의 內願堂 運用」(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8), p. 35.

196)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1649) 11월 20일. “(내수사가) 원당에서 세(稅)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이며 얼마나 하찮은 일인데, 역시 혁파하지 않으셨습니다.”

197) 『현종실록』 권 2 현종 1년(1660) 4월 3일. “원당이래야 그것은 기껏 한 궁가의 지지(紙地)를 받아들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제신들 청원을 쾌히 따르소서.” 사찰 제지업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광린, 「李朝後半期의 寺刹製紙業」, 『역사학보』 17·18(1962), pp. 201-219; 하종목, 「朝鮮後期의 寺刹製紙業과 그 生産品의 流通過程」(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김문경, 「邑誌로 본 朝鮮後期 寺刹 製紙의 실상 :三南地方을 中心으로」(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를 참고.

198) 사찰이 왕실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진주 옥천사가 주목된다. 진주 옥천사의 경우 정조가 원당 혁파를 진행한 후 종이를 내수사에 공급할 사찰이 부족해져 진주 옥천사를 1784년 내수사에 편입시켰다.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12월 5일. 내수사 소속 사찰 중 원당이 아니지만 공물납부로 인해 소속된 다른 경우는 박성준, 「18세기 후반~20세기 초 寺位免稅地의 존재양상과 변화」, 『역사교육』 130(2014), p. 128을 참고할 수 있다.

19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p. 222. 수문, 천택에 의한 재건역을 언급하며 “朝家之恤護”의 구절이 확인된다. 따라서 17세기 초 재건에 조정의 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00)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 257. "太守 宋公碩祚有賞於此 慨歎僧舍蕩焚雯感御室之獨存 因歷詮贊曰 此地枕乾 何巽則衲子多香之奉可期年乃囑一寬上人 委以創寺之任 出損官俸而助之殿閣樓院 眞儀畵像 幾復舊矣.“

201) 주 56 참고.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 일대에서만 3건의 대형불상이 조성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호서, 호남, 경기, 황해도는 육, 해로상의 이점으로 인해 궁방의 토지 침탈이 매우 빈번했던 지역이었다.[202] 궁방전(宮房田)은 황해도나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한양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호서, 호남의 경우 곡창지대이지만,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다. 때문에 내수사를 비롯한 궁방들은 세출을 받기 위해 선박을 이용하였다.[203]

전라도 교통로상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전주부에 유독 궁방전이 다수 분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204] 『전주부 기해양안』의 14책 마지막 부분에는 이전 양안의 결과로 생각되는 도이상(都已上)[205]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진궁, 용동궁, 명례궁, 어의궁과 같은 영구존속궁과 더불어 인빈방(仁嬪房), 광해군방(光海君房), 소현세자방(昭顯世子房) 등의 토지소유가 확인된다.[206] 또한 『전주부 기해양안』 중 이동면 '四字 山越坪' 25, 26필지는 봉림

202) 박준성, 앞의 논문, pp. 191-192.

203) 『현종실록』「현종 대왕 행장」. "명하여 각 아문(衙門)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船]의 숫자를 정하게 하고, 내수사·명례궁·용동궁·수진궁·어의궁 등의 배는 현존하는 숫자 이외에 더 늘리지 못하게 하였다."

204) 세 자료를 통해 19세기 말까지 전주에 궁방전이 상당한 수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면세: 내수사 9결 10부, 용동궁 100결, 수진궁 13결 16부, 명례궁 48결 90부, 어의궁 80결, 돈녕부 1결 50부, 명온공주방, 180결, 화길옹주방 90결."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역실총(賦役實總)』은 18세기 말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을 기록한 문서이다. 『부역실총』에 기재된 전주의 궁방은 용동궁, 명선궁, 어의궁, 영빈방, 귀인방, 경수궁, 광해궁이다. 『완산지(完山誌)』(1895, 奎12271)에는 "면세: 내수사 1백결, 용동궁 50결, 광해궁 28결, 경수궁 50결, 귀인방 120결 5부 8속. 돈녕부(敦寧府) 150결. (이상 無土). 내수사는 화전 60결을 더함. 영빈방(寧嬪房) 둔전 5결. 충훈부(忠勳府) 둔전 1결 10부 8속. 명례궁 둔전 12결 60부 2속. 화순궁 둔전 26부 7속. 수진궁 둔전 12결 40부 2속. 옹주방 둔전 36부 8속 (이상 有土)"로 기록되어 있다. 『부역실총』에 내수사와 수진궁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은 사선(私船)으로 세액을 실어갔거나, 유토면세전일 경우는 궁방이 자체적으로 수취했기 때문이다.

205) 都已上은 양안에서 이상의 모든 항목을 종합했을 때 나오는 토지 결부수의 총액을 적는 부분을 이른다.

206)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조에 궁방의 선박 숫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의궁, 수진궁, 명례궁, 용동궁의 배 10척, 소현궁, 인빈방의 경우 각각 8척, 5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인빈방과 소현세자방에서 전주 일대의 토지에서 나오는 세출을 배로 운송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군위전(鳳林大君位田)으로 되어 있다.[207] 전주가 육해로 운송상의 유리점을 가졌기 때문에 궁방전이 이곳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 삼례역(參禮驛)은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고, 『경국대전』의 대로역(大路驛) 근무자수인 121명 보다 훨씬 많은 97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208] 또한 전주부에 속했던 익산의 조창(租倉)인 성당창(聖堂倉), 군산창(群山倉)이 근처에 위치하여 해로를 통한 운송에 적합한 위치였다.[209] 뿐만 아니라 전주에는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원(院)이 20개소 있었는데, 이는 전북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210] 요약하면 전주가 토지 세금이나 공물 운송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이 일대 왕실 관련 사찰이 이른 시기에 대규모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다.[211]

후원 양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왕실이 경제적 요인에 집중했던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17세기 이후에는 왕실과 연관된 불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보인다. 14-16세기 후원 양상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조선 초기 불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효령대군, 세조,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 문정왕후는 명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시주질에 드러내었다. 반면 17세기부터 왕실의 후원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대리인

---

207) 두 필지가 봉림대군 위전이었던 사실은 사표로부터 알 수 있다. 25필지의 북쪽이 봉림대군 위답인데, 26필지가 그것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26필지의 남쪽에 봉림대군위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25필지이므로 이 두 필지는 봉림대군 소유지임을 알 수 있다. 「전라도 전주 소재 수진궁전답 개타량 성책」(1824, 奎 18363). 특히 수진궁 궁방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 소유구조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출면세(出免稅) 구분 성책에서 면세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궁방에 있는 1종 유토임을 알 수 있다. 「전라도 전주부 소재 수진궁 전답개타량 출면세구별성책」(1742, 奎 18364) 궁방전의 유토, 무토의 개념에 대해선 이영훈,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한길사, 1988), pp. 129-248을 참고.

208) 김정호, 「한양가던 옛길 답사 소고-호남대로와 영남대로를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7(1995), p. 143. 삼례를 거치는 교통로에 대해서는 김종혁,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 69(2004), p. 364.

209)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일조각, 1997).

210) 김정호, 앞의 논문, p. 143.

211) 전북일대 중에서도 17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불사가 이루어졌던 곳은 서부 평야지역이다. 이곳에서 총 52점의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전북 동부의 14건의 4배 수준이다. 그리고 서부평야 중에서 고창, 완주, 김제가 가장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조성 당시의 소속을 보면 무장과 전주이며 이 두 지역 모두 교통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최윤숙, 「朝鮮後期 全北地域 紀年銘 佛像 硏究」, 『문화사학』 44(2015a), p. 177.; 최윤숙, 「조선후기 전북지역 불교건축의 양상과 장엄」, 『역사민속학』 48(2015b), pp. 273-301.

을 보내거나, 아예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종교적 후원에서 후원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며 공덕을 쌓는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중요한 행위이다. 17세기 이후 그러한 경향이 극히 줄어든다는 사실로부터 불사 후원의 의도가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신사의 경우는 무경 자수의 「귀신사 사적기」에 원종의 개입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공주 갑사는 상궁의 시주 사실만이 드러난다. 완주 송광사의 경우는 소현세자, 봉림대군의 후원이 있었지만, 그의 가노였던 백실남(白實男)만이 기록에 등장한다. 심지어 백실남은 「송광사 개창비」, 「송광사 소조석가 삼방불좌상 복장기」에 기록되지 않았고 1725년 작성된 「불상 화주행적」에만 기록되었다. 「송광사 개창비」를 쓴 부마 신익성(申翊聖, 1588-1644)과 의창군(義昌君, 1589-1645)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글과 글씨를 썼을 뿐 시주자, 공헌자 목록에는 이름이 없다. 물론 유교사회라는 제약이 작동하였기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왕실 원당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실록에서도 왕실의 원당절수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었던 사실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종교적인 신심으로 후원하고 종교적 대가를 받는 보편적 경우라기보다, 불사를 후원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왕실이 사재(私財)를 투입하기보다 공명첩(空名帖) 발급의 방식으로 후원했던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212] 요컨대 왕실의 불사 후원이 단순히 신앙심의 영역을 넘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사례는 왕실이 사찰을 경제적 요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왕실뿐만 아니라 관(官)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확인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승역이다.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은 부역노동을 물납화(物納化)하여 양역(良役)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 때 농번기(農繁期)와 무관한 승려를 부역노동에 참여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났다.[213] 이를 위해 승려에게 총섭(總攝)과 같은 승직(僧職)을 제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212) 공명첩과 관련하여 이승희, 앞의 논문(2004), pp. 30-64을 참고. 대표적 사례로 용주사, 쌍계사, 법주사는 중수비용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공명첩을 대량으로 발급한 사례이다. 또한『정조실록』권45 정조 20년(1796) 8월 25일에 민종현(閔鐘顯)의 주청으로 원당인 금강산 표훈사, 여주 신륵사의 중수를 위해 공명첩 250장을 발급한 사례가 있다.

213)『승정원일기』인조 8년(1630) 4월 11일.

승역을 통솔케 하는 방안이 정착되었다.[214] 이 때 승역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그들이 거처할 곳, 즉 사찰을 재건해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승역과 관련하여 재건된 사찰은 다음과 같다. 사고(史庫)수호를 위해 지정된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강화도 전등사(傳燈寺)[215], 적상산 호국사(護國寺), 성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한산성의 승영 사찰들과 수영(水營)소속 사찰인 고흥 능가사(楞伽寺), 여수 흥국사(興國寺)는 모두 이러한 범주 내에서 재건된 것이다.[216]

금산사와 선운사도 마찬가지로 승역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산사는 승병사찰이었으며 동시에 화살 제조에 필요한 나무를 공납하였고,[217] 선운사는 5군영(軍營)에 속하여 지역(紙役)을 부담하였다.[218] 두 사찰은 왕실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산사의 경우 무경 자수의 「금구현 모악산 금산사 사적사인(金溝縣 母岳山 金山寺 事蹟詞引)」에 "도주(道主)의 유념도 얕지 않고 주목(州牧)의 사랑도 매우 깊으니"라고 하여 관료들이 사세 유지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219] 선운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장 현감 송석조의 지원을 받아 재건을 할 수 있었다.[220] 17세기 이후 사찰 후원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

214)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윤용출,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 28(2011), pp. 203-238; 박세연, 「17세기-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215) 전등사는 원당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선조실록』 권 72, 선조 29년(1596) 2월 26일. 전등사 사적과 관련하여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전등사 대웅전·약사전 정밀실측 보고서 上』(문화재청, 2008), pp. 111-113을 참고.

216) 추가로 하동 쌍계사도 17세기 전반 재건되었는데, 역역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 시기의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만 19세기 기록이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국조보감』 87 철종 1년(1850). "하동(河東)의 쌍계사(雙溪寺)에 불이 났다. 이 절은 봉상시에서 신주를 만드는 데 쓰는 재목인 밤나무를 가꾸는 곳이다."

217) 『두타초』 「남유록」. "遍山皆竹箭。盖自縣封植。而每歲爲營將斫取盡私用。一枚不入官。然僧徒辛勤看護。猶恐獲罪。近日外方事靡不爲弊。至及山僧。殊可歎也"

218) 『일성록』 정조 16년(1792) 9월 12일에 선운사와 유학 김상수(金尙洙)간의 분쟁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선운사가 5군영에 속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장용영이 본도에 관문을 보내니, 본도(本道) 도신(道臣)이 경영(京營=5군영)에 속한 절은 일의 체모가 자별하다고…" 19세기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선운사를 방문하여 사찰이 쇠퇴한 이유를 묻자 종이 생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듣고 시를 지은 기록이 있다. 『노사집』 권 1 「題禪雲寺」. "화는 하얀 계전(溪牋=종이)에서 시작되었다네(禍胎溪牋白)/ 감히 관리를 원망치 못하고(不敢怨官吏)"

219) 무경 자수, 앞의 책, p. 366,

220) 왕실 원당이 잡역을 면제 받았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역역이 부과되었다. 앞서 언급한

배경을 전제로 성립했던 것이다.[221]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교국가에서 금산사, 귀신사, 선운사의 대규모 재건이 짧은 시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왕실과 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찰은 왕실의 입장에서 사적 재정의 기반이 되며, 관인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 받을 수 있었다.[222] 한편으로 사찰은 이를 부담하는 대신 교단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국가, 왕실과 사찰은 호혜적 관계였던 것이다.

금산사, 귀신사, 선운사에 조성된 비로자나 삼방불상 조성 의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결론지을 수 있다. 앞서 이 도상이 선택될 때 축성의례를 강하게 의도하였던 사실을 살펴보았다. 축성의례는 왕실에 대한 축원이기 때문에 유교의 근본가치인 충(忠)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223] 불교가 유교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 요건은 충효(忠孝)의 실현이었다.[224] 국초부터 유교계는 불교의 출가(出家)를 불효(不孝),

---

화엄사, 순천 송광사, 법주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례 화엄사는 1703년 숙빈 최씨의 원당으로 각황전이 건립되었으나 이후에 종이 생산을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봉성지(鳳城誌)』「李禹錫 節目」(1740, 奎7912). “每戶租一斗式收合以給助役價 華嚴寺四十一兩五錢.” 순천 송광사도 「송광사 잡역효혁절목」(1831)에 서원, 향교, 관아 등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잡역을 부담하였다. 법주사도 마찬가지로 「법주사 판하 완문 절목」에서 수다한 승역이 확인된다. 화엄사, 송광사, 법주사 등 모두 상당한 승역을 부과받아 면제를 위한 상소를 올렸고 예조의 첩문으로 승역 일부를 면제 받았다. 이를 통해 왕실 원당과 승역이라는 두 측면이 분리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21) 홍병화는 대체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활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재건역이 이뤄졌다고 파악하였다. 홍병화, 「조선 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사찰 중심영역의 배치 및 건축 계획의 변화과정」(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 115. 그러나 일률적으로 승병의 역할로만 볼 수 없다. 조선 불교계가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로 승역을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적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22) 박병선은 지방 재정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함부로 퇴락을 방기할 수 없었고, 이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박병선, 앞의 논문(2002), p. 60.

223) 이밖에 충의 실천으로 의승군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佛敎義僧軍의 동향」,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2003), pp. 127-139; 이종수, 「조선후기 승군 제도와 그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불교사회연구소, 2013), pp. 206-228; 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민족사, 2015), pp. 567-592; 김용태,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78(2015), pp. 183-205; 김용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2016b), pp. 87-1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224) Robert E Buswell. "Buddhism under Confucian Domination: The Synthetic Vision of Sŏsan Hyujŏng." in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피역(避役)을 불충(不忠)으로 보아 배불론(排佛論)을 제기하였다. 조선 초기 함허 기화(涵虛 己和, 1376-1433)의 『현정론(顯正論)』은 그러한 점에 대한 불교계의 반론이었으며 충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드러내었다.[225] 한편 유학자들도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면, 불교에 대한 후원을 문제시 하지 않았다. 여주 신륵사는 세종과 효종의 능침사찰로 지정되었는데, 「여주 봉미산 보은사 중수사적기(驪州 鳳尾山 報恩寺 重修事蹟記)」에 의하면 이조판서 김수항, 참판 민정중과 같은 서인계(西人系) 인물이 중수를 건의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8도의 수령이 여기에 동참하였다.[226] 동일한 양상은 용주사 창건에서도 확인된다.[227] 이 사례들은 어떤 행위가 충효의 가치 안에 존재한다면, 사찰의 후원일지라도 인정되었던 일면을 보여준다. 비로자나 삼방불상은 충의 실천 대상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조성할 때 적극적인 후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또한 17세기 재건역과 대형불상의 조성이 왕실의 묵인과 후원에 의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찰 재건은 국가의 허락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축성의례의 대상인 비로자나 삼방불상의 조성은 왕실과 관료가 허가, 후원해주는 것에 대한 종교적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금산사, 귀신사, 선운사의 사례는 유교사회 속의 불교의 존재 양태와 왕실, 관료와 불교계 사이의 공생관계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eds. Haboush, JaHyun Kim, and Martina Deuchler, (Leiden: Brill, 1999). p. 143; 김용태, 앞의 논문(2009), pp. 20-23. 버스웰은 함허 기화의 현정론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불교는 유교적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종교적 힘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25) 『현정론』. "莫不朝焚夕點而祝君祝國 可不謂之忠乎且君者." 함허 기화와 관련된 기록 중 다수가 축성의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가지의 사례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尙語錄)』, 「여안주부(與安注簿)」. "선가는 일찍이 선을 쌓아 금자에 천상에 이르렀네. 받든 직분은 충(忠)을 짊어지는 것 외 향로에 축성(祝聖) 향을 사르는 것이네."

226)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79-82.

227) 용주사의 창건과 후원은 박병선, 앞의 논문(2002), pp. 63-67을 참고.

V. 결론

이상 17세기 전반 비로자나 삼방불좌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귀신사상>, <선운사상>은 모두 17세기 초에 불상으로 제작되어 주불전에 봉안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의 의례적 기능을 검토하기 위해서 17세기 초에 주불전에서 높은 빈도로 설행되었던 공양의례를 검토해 보았다. 『운수단가사』, 『영산대회작법절차』는 이 시기 공양의례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 두 의식집을 이전의 공양 의식집인 『진언권공』「작법절차」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축성(祝聖)의례의 편입, 별도의 축성의례의 성립이라는 두 측면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명종대 내원당의 확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내원당의 존재 근거가 왕실에 대한 축원에 있었기 때문에 내원당의 확장은 곧 축성의례의 빈도 증가, 중요도 증가를 의미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축성의례가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의식집의 거불 대상이 주불전 내부의 도상과 관련이 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검토한 결과 방위를 포괄하는 제불이 이 의례의 소청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 석가 삼방불이 주로 주불전 내부에 불상으로 유행하였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영산대회작법절차』「별축상작법」에 석가 삼방불은 삼전하에 대응되었다. 공양의례 안에 축성의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간적 차원의 제불이면서 동시에 축성의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석가 삼방불 도상이 유행했던 것이다. 둘째, 명종대 회암사에서 일어난 대불사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상을 바탕으로 17세기 전반에 주불전 내부에 봉안되었던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귀신사상>, <선운사상>도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여말선초 작례인 경천사탑 <삼세불회>, 원각사탑 <삼세불회>, <나옹원불>, <고봉원불>, 내불당, <쥬린지 5불회도>를 대표적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을

통해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성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 불상도 명종대 변화된 의례에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기 경향과 달리 이 세 사찰에서만 비로자나 삼방불 도상이 선택되었다. 필자는 금산사의 영향을 그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금산사는 15세기 세조와 덕원군에 의해 중창되었다. 이때 대웅대광명전이 건립되었고 그 안에 비로자나 5불상이 봉안되었다. 세조대 조성된 비로자나 5불상의 의례적 기능은 원당, 축성의례와 관련이 깊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여말선초의 작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당이나 왕실 관련 사찰의 경우 존재 근거가 왕실에 대한 축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도상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시기의 경향을 바탕으로 세조대 조성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 초반에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이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례적 맥락에서 기능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의도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의 세 가지 사실로부터 이전에 조성되었던 비로자나 5불상의 의례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복원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17세기 가람배치의 경향과 동일하게 축성의례의 공간이었던 대웅대광명전에 봉안되었다. 둘째, 이 불상은 17세기 통례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15세기 불상의 형식을 차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1686년 초창된 원당인 금산사 대적광전에 이 불상이 봉안되었다. 따라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15세기 조성된 불상의 의례적 기능 즉 축성의례의 대상을 의도하고 이 도상을 복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귀신사, 선운사에서 동일한 개념의 불상이 조성되었다. 이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시기적으로 앞서 조성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의 사실로부터 이를 논증해보았다. 첫째, 귀신사의 경우 화엄종 사찰이었기 때문에 화엄종 관련 도상을 조성하거나, 관련 전각을 복원하는 것이 적합했지만 미륵보전을 세우는 등 종파 성향과 맞지 않는 전각을 복원하였다. 선운사는 덕원군의 원당에 시간 삼세불이 조성되었고, 금당에 약사불이 봉안되어 있었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이

도상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두 사찰의 비로자나 삼방불상이 재건 이전의 종파성향, 존상과 무관하며 외부의 영향이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외부의 영향이라면 인근에서 가장 빨리 대규모로 재건되었던 금산사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산사는 도내 수사찰이었기 때문에 인근 사찰의 불사를 주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 교류를 파악해 보았다. 금산사를 중심으로 귀신사, 선운사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귀신사상>과 <선운사상> 모두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과 동일하게 주불전에 봉안되었다. 명종대 축성의례의 증가 이후 대웅전 영역이 가람배치에서 사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공양의례와 축성의례가 결합되기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축성의례의 빈도와 중요도 증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귀신사, 선운사에서 17세기 가람배치의 경향과 동일하게 축성의례가 설행되는 대웅전, 대적광전에 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점은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과 동일한 의례적 기능을 의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상을 통해 금산사의 영향으로 나머지 두 사찰에서 이 도상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은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근 사찰에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존상이 요구되었을 때 금산사 승려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도상을 적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불상의 조성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자면 축성의례의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 세 불상은 대형으로 조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형불상의 제작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찰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해명해 보았다. 귀신사는 「사적기」의 구절과 『전주부 기해양안』을 바탕으로 귀신사가 원종에 의해 절수되었던 사실을 입증해보았다.

금산사와 선운사는 조선 초기에 원당으로 지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대형불상을 조성한 다른 사찰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모두 15-16세기부터 왕실과 관련되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 전후 대규모로 빠르게 재건되었던 것이다. 그 원인으로 왕실과 원당의 경제적 관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명종대 내원당 정책과

내원당전의 분급은 왕실과 사찰 사이의 경제적 유착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관계는 전후 재건역 당시에도 반영되었고 왕실 관련 사찰의 대규모 재건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금산사와 선운사는 승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료를 검토한 결과 재건역과 사찰 재건에는 관의 허락이 전제되어 있었고 승역의 부담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17세기에 사찰이 재건되었던 이유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귀신사는 궁방원당, 금산사와 선운사는 왕실관련 사찰이면서 동시에 승역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 하에서 대형불상을 조성할 수 있었다.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조성의 의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이 세 불상은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인 충과 연결된다. 불교계는 유교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해 충의 가치를 실현해야 했다. 불교계는 승역의 부담, 축성의례의 실천으로 이것에 부응했다. 따라서 삼방불상의 조성은 충의 실천이자 왕실, 관료의 재건역 허가와 후원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 있다. 동일한 개념을 가지며 축성의례의 대상으로 선호되었던 석가 삼방불의 유행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방불상의 유행은 왕실과 불교계의 공생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교사회 속의 불교의 존재 양태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본고에서 살펴본 왕실과 불교계의 경제적 차원의 결합 외에 신앙심의 발로로 불사후원을 했던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 맥락을 도외시하고 모든 경우를 신앙심만으로 설명한다면 조선시대를 숭유억불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관인, 왕실의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찰은 늘 국가에 의해 존폐(存廢)가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이나 관인에 의해 사원이 침탈당하여 폐사(廢寺)되는 사찰이 18세기에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 점을 대변한다.

필자는 조선시대 불교의 이러한 면모를 진화(進化)로 평가하고자 한다.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Roy Rappaport)는 진화에 대해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피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228] 즉, 불교의 본질은 지킨

채 유교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그 외피를 일부 변형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불교를 의례불교, 민중불교로 판단한 기존의 연구는 타당하다. 더하여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례의 변화, 삼방불 도상의 유행, 이후 연담 유일과 같이 존주의리(尊周義理)를 주장하는 승려의 등장까지, 모두 불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외피의 변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의 관점을 통해 통불교 담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통불교란 조선시대 불교는 회통(會通)적이므로 종파 간, 종교간 습합(習合)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논지이다.[229]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통불교 담론은 기층신앙, 종파 간의 회통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 살펴보았듯이 유교문화와의 교류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조선 불교가 지향한 양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 조선 불교는 기층신앙, 민속신앙이라는 하향적으로 결합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류문화인 유교와도 접점을 찾아감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민중과의 결합-의례불교로의 전환'이라는 도식과 더불어 상향적 면모를 통해 조선불교가 생존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계는 단순히 억불체제 하에서 하층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상층문화부터 하층문화까지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불교가 보여주는 양방향성은 시대에 적응해 나아간 면모로 평가되어야 한다.

---

228) 로이 라파포트, 『인류를 만든 종교와 의례』, 강대훈 역(황소걸음, 2017), pp. 36-39. 라파포트는 일부 하위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즉 환경적 요소에 의한 외피의 변화는 전체 시스템의 근본적 양상들을 불변의 상태로 유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런 변화를 통해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외피의 변형은 근본적 가치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적응, 진화로 설명하였다.

229) 통불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소렌슨도 국외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조선시대 불교를 규정한 바 있다. Henrik H. Sorenson. "Esoteric Buddhism under the Choson" in *Esoteric Buddhism and the Tantras in East Asia*. eds. Orzech, Charles, Henrik Sørensen, and Richard Payne(Leiden: Brill, 2011). p. 616-657. 김용태는 불교사적 관점에서 이를 지적하며, 원융(圓融), 선교겸수, 선과 정토의 결합, 밀교와 선의 결합 등은 모두 중국에서 선행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통불교 담론이 종파성이 강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성된 개념이라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김용태, 「조선시대 불교사의 특성」, 최병헌 편, 『한국 불교사 연구 입문 下』(2013, 지식산업사), p. 152.

참고문헌

1. 국문

- 사료

『가정집(稼亭集)』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고려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기(高麗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공주계룡산갑사사적비명(公州鷄龍山岬寺事蹟碑銘)」
『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
「전라우도 금구현 모악산 금산사 대적광전 중수상량록(全羅右道金溝縣母岳山金山寺大寂光殿重修上樑錄)」(1882)
「금산사 사적(金山寺事蹟)」
『금산사지(金山寺誌)』
『기암집(奇巖集)』
『나암잡저(懶庵雜著)』
「남원현공사(南原縣公事)」(1737)
『동계집(東溪集)』
『동문선(東文選)』
『두타초(頭陀草)』
『무경집(無竟集)』
『목은문고(牧隱文藁)』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
『부역실총(賦役實總)』
『선운사지(禪雲寺誌)』
『선화화보(宣和畵譜)』
『설선의(說禪儀)』
『소요당집(逍遙堂集)』

『소현 분조일기(昭顯分朝日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식우집(拭疣集)』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
『완산지(完山誌)』(奎 12271)
『여지도서(輿地圖書)』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영산대회작법절차(靈山大會作法節次)』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운수단(雲水壇)』
『운수단 가사(雲水壇歌詞)』
『원감국사집(圓鑑國師集)』
『원재선생문고(圓齋先生文稿)』
『일성록(日省錄)』
「전라도 전주 소재 수진궁전답 개타량 성책(全羅道全州所在壽進宮田畓改打量成冊)」(奎 18363)
「전라도 전주부 소재 수진궁 전답개타량 출면세구별성책(全羅道全州所在壽進宮田畓改打量出免稅區別成冊)」(奎 18364)
『전라우도 전주부 기해양안 도행장(全羅右道全州府己亥量案都行帳)』(奎 15035)
『정관집(靜觀集)』
『제반문』(1575, 보림사 간)
『제호집(霽湖集)』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 松廣寺史庫)』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上, 下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관대사유고(中觀大師遺稿)』

『진언권공(眞言勸供)』
『칠대만법(七大萬法)』,
『추파집(秋波集)』
『하서집(荷棲集)』
『학봉집(鶴峰集)』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尙語錄)』
『허백집(虛白集)』
『허응당집(虛應堂集)』
『허정집(虛靜集)』
『현정론(顯正論)』
「혜덕왕사탑비(慧德王師塔碑)」

- 도록 및 보고서

건축사사무소 우리, 『기림사 대적광전 해체실측조사 보고서』, 경주시,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천사 십층석탑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_____, 『경천사 십층석탑 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_____, 『경천사 십층석탑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국립중앙박물관 편, 『화엄사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0a.
_____, 『고려불화대전』 국립중앙박물관, 2010b.
_____, 『발원, 간절한 마음을 담다: 불교미술의 후원자들』, 국립중앙박물관, 2015.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완주 송광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_____, 『전등사 대웅전·약사전 정밀실측 보고서(上)』, 문화재청, 2008.
김제시 편,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00.
대연건축, 『구례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3.
문화재청,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북·제주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3.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4.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a.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b.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경북 1-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1-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불교중앙박물관,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불교중앙박물관, 2019.
삼성건축사사무소, 『법주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上)』, 문화재청, 2005.
_____, 『법주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下)』, 문화재청, 2005.
_____, 『선운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_____,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3.
삼풍엔지니어건축사사무소, 『김천 직지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上), 문화재청, 2011.
세한건축문화연구소, 『김제 금산사 실측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1987.
예그린건축사사무소, 『원각사지 십층석탑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3.
태창건축사무소 편, 『금산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11.

- 단행본

강희정, 『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의 새로운 모색-불교미술 속의 여성과 내세』, 학연문화사, 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2007.
기무라 기요타카,『중국화엄사상사』, 정병삼 역, 민족사, 2005.
김갑주,『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7.
김용태,『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김정희,『왕실, 권력, 그리고 불화』, 세창출판사, 2019.
박노욱,『조선후기 양안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인문화사, 2016.
박은경,『조선전기 불화연구』, 시공아트,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궁방양안』, 민속원, 2012.
_____,『일반양안·기타양안』, 민속원, 2012.
송수환,『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 집문당, 2000.
송은석,『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오경후,『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 문현, 2015.
유근자,『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연구』, 불광출판사, 2017.
윤기엽,『고려후기의 불교』, 일조각, 2012.
윤용출,『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이병희,『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8.
_____,『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봉춘,『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이영훈,『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 한길사, 1988.
장충식,『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2004.
정은우,『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조영준,『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소명, 2016.
최병헌 외,『한국 불교사 연구 입문 下』, 지식산업사, 2013.
최선일,『17세기 조각승과 불상연구』, 한국연구원, 2009.
_____,『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연구』, 경인문화사, 2011.
최완기,『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97.
한기문,『고려 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한상길,『조선후기 불교계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홍윤식,『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88.
_____,『한국불화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0.

황인규,『고려후기 조선 초 불교사 연구』, 혜안, 2003.
_____,『고려 말 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_____,『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 혜안, 2011.

- 논문

강소연,「五佛尊의 조화, 조선전기 불교의 會通의 原理 - 일본 兵庫縣 十輪寺 소장 <五佛尊圖>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5, 2007, pp. 289-323.
강호선,「고려말 선승의 입원유력과 원 청규의 수용」,『한국사상사학』40, 2012, pp. 29-66.
_____,「기록으로 본 회암사지 건축」,『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V』, 양주회암사지박물관, 2017, pp. 120-174.
강희정,「한국 불교미술 연구의 새로운 모색 : 이미지: 도상과 기능의 소통을 위하여」,『미술사와 시각문화』6, 2007, pp. 134-169.
_____,「17세기 이후 불상의 복장의례: 법계의 구현」,『미술사와 시각문화』18, 2016, pp. 40-67.
고상현,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 『문화재』 49-4, 2016, pp. 180-195.
고익진, 「法華經 계환해의 성행내역고」, 『佛敎學報』 12, 1975, pp. 171-198.
공규덕,「朝鮮前期 十輪寺 所藏 五尊佛會圖 硏究 : 會佛圖와 排佛과의 圖像關係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경미,「조선 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조선 전반기 三身 三世佛 조성에 대한 연구」,『한국학연구』49, 2014, pp. 5-34.
김광희,「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미술사학연구』300, 2018, pp. 167-196.

김문경, 「邑誌로 본 朝鮮後期 寺刹 製紙의 실상 :三南地方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김봉렬,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 敎理的 解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김봉렬·박종진, 「고려 가람의 구성형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 1989, pp. 27-35.
김선희, 「浮石寺 三身三世佛掛佛圖 硏究」, 『강좌미술사』 39, 2012, pp. 121-138.
_____, 「조선시대 17~18세기 三身三世佛掛佛圖 양식 연구」, 『미술문화연구』 3, 2013, pp. 43-66.
김소연, 「16세기 천도 의식용 불화로서의 함창 상원사 <사회탱(四會幀)>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김영재, 「청규로부터 본 회암사지의 건축적 특성과 그 의미」, 『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VI』, 양주회암사지박물관, 2018, pp. 36-77.
김용태, 「조선시대 불교의 유불공존 모색과 시대성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 49, 2009, pp. 5-34.
_____, 「한국불교사의 호국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 『대각사상』 17, 2012, pp. 43-73.
_____,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78, 2015, pp. 183-205.
_____, 「유교사회의 불교의례-17세기 불교 상례집의 五服制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76, 2016a, pp. 169-196.
_____,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 2016b, pp. 87-119.
김정아, 「朝鮮 明宗代 王室의 內願堂 運用」,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畵」, 『美術史學硏究』 231, 2001, pp.5-39.
_____,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敎美術」, 『미술사논단』 25, 2007,

pp.107-150.
_____, 「조선시대 왕실불사의 재원」, 『강좌 미술사』 45, 2015a, pp. 229-259.
_____, 「조선 전반기 회암사의 왕실후원자와 왕실발원미술」, 『회암사와 왕실문화-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II』,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2015b. pp. 30-69.
김종혁,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 69, 2004, pp. 359-383.
김창균, 「법주사 대웅보전 봉안 소조삼존불좌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24, 2005, pp.61-82.
_____, 「조선시대 삼신삼세불 도상연구」, 『강좌미술사』 32, 2009, pp. 103-144.
김현정, 「조선 전반기 제2기 불화(16세기)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미술사』 36, 2011, pp.263-316.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연구-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a.
_____, 「16-18세기 불교의식집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국문화』 34, 2004b, pp. 97-165.
노세진, 「16세기 왕실발원 불화의 일고찰」, 『동악미술사학회』 5, 2004, pp. 81-102.
문명대, 「삼신불의 도상특징과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 한국의 불화 편찬실 편, 『한국의 불화 12』, 성보문화재 연구원, 1998a, p. 207-226.
_____, 「毘盧遮那三身佛圖幀의 形式과 祇林寺 三身佛像 및 佛畵의 연구」, 『불교미술』 15, 1998b, pp. 77-99.
_____, 「松廣寺 大雄殿 塑造釋迦三世佛像」, 『강좌미술사』 13, 1999, pp.7-26.
_____, 「선운사 대웅보전 무염(無染)작 비로자나삼불상」, 『강좌미술사』 30, 2008, pp.353-378.
문현순, 「高麗時代 末期 金銅佛龕의 硏究」, 『고고미술』 179, 1988, pp. 33-72.

_____, 「조선전기의 새로운 불교 도상-천은사 구장 금동불감의 동판부조와 불좌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2001, p. 195-223.
박병선, 「조선후기 원당연구」,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朝鮮後期 願堂의 政治的 基盤 - 官人 및 王室의 佛敎 認識을 中心으로 -」, 『民族文化論叢』 25, 2002, pp. 103-138.
박병원, 「조선 17세기 전반기 불교조각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박성준, 「18세기 후반~20세기 초 寺位免稅地의 존재양상과 변화」, 『역사교육』 130, 2014, pp. 119-158.
박세연, 「17세기~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박아연, 「1493年 水鐘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미술사학연구』 269, 2011, pp.5-37.
박은경, 「조선전기의 기념비적인 四方四佛畵 : 日本 寶壽院소장 「약사삼존도」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7, 1998, pp. 111-139.
_____, 「안성 칠장사 法泂 作 오불회괘불의 재검토」, 『불교미술사학』 13, 2012, pp.65-106.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pp. 185-278.
서정매, 「영제 영산작법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공연문화연구』27, 2013, pp. 165-212.
손성필,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손영문, 「조각승 印均派의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 2006, pp. 53-82.
손태호, 「조선 전기 불상연구」,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송은석,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 조각전』, 호암미술관, 2001, pp. 102-109.

_____,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 覺敏, 應元, 印均」, 『보조사상』 29, 2008, pp. 295-333.
_____, 「조선 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 263, 2009, pp. 71-97.
_____, 「17세기 無染派의 造像 활동」, 『역사학연구』 40, 2010a, pp. 114-147.
_____, 「조선 후기 應元·印均派의 활동; 應元, 印均, 三忍」, 『한국문화』 52, 2010b, pp. 219-249.
_____, 「金堤 金山寺 조각승 淸虛의 造像 활동」, 『美術史學硏究』 279·280, 2013, pp. 203-237
_____,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석당논총』 67, 2017, pp. 1-38.
_____, 「부석사 석조문화재의 고찰」, 『영주 부석사 석조문화재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영주시, 2020.
송현주, 「현대 한국불교 예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신광희, 「조선전기 명종대의 사회변동과 불화」, 『미술사학』 23, 2009, pp. 321-346.
신은정, 「敬天寺十層石塔의 綜合的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신현경, 「朝鮮後期 祇林寺 三世佛畵 硏究 '祇林寺 창건 연기설화'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심상현, 「영산재 성립과 작법 의례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관한 硏究」, 『미술사연구』 233·234, 2002, pp. 95-138.
_____,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9, 2008, pp.5-40.
심효섭, 「조선전기 법화신앙과 왕실의 영가천도재」, 『한국불교문화연구』 4, 2004, pp. 257-273.
_____, 「朝鮮前期 靈山齋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a.

_____, 「조선전기 영산재의 성립과 그 양상」, 『보조사상』24, 2005b, pp. 247-282.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佛敎義僧軍의 동향」,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 2003, pp.127-139.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의 불교조각 연구」, 『佛敎美術史學』 16, 2013. 10, pp. 73-111.
여은경, 「朝鮮後期의 寺院侵奪과 僧契」, 『慶北史學』 9, 1986, pp. 37-92.
_____,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摠攝」, 『대구사학』 32, 1987, pp. 49-87
오경후, 「朝鮮後期 僧役의 類型과 弊端」, 『國史館論叢』 107, 2005, pp. 63-98.
_____, 「朝鮮時代 寺刹事蹟에 관한 檢討」, 『慶州史學』 24·25, 2006, pp. 347-373.
_____, 「朝鮮前期 禪雲寺의 重創과 展開」, 『신라문화』 33, 2009a, pp. 153-173.
_____,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성격 연구-宣祖의 불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8, 2011, pp. 169-193.
_____, 「光海君·仁祖 年間 僧役의 實際」, 『韓國佛敎史硏究』 6, 2015a, pp. 43-71.
_____, 「朝鮮 中後期 金山寺와 禪敎兼修 傾向」, 『불교학보』 72, 2015b, pp. 201-228.
유근자, 「17세기의 완주 송광사 불사와 碧巖覺性」, 『南道文化硏究』 36, 2019, pp. 121-169.
유마리, 「多佛 (三身三世佛) 괘불화」, 『강좌미술사』 33, 2009, pp. 171-193.
윤기엽, 「조선 초 사원의 실태와 그 기능」, 『불교학보』 46, 2007, pp. 85-115.
윤서정, 「조선시대 삼불회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윤용출,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 28, 2011, pp. 203-238.

이강근,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_____, 「화엄사 불전 재건과 장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14, 1997, pp. 77-151.
_____,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講座 美術史』 13, 1999, pp. 103-136.
_____,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pp. 449-474.
_____, 「17세기 벽암각성의 해인사·화엄사 재건에 대한 연구」, 『강좌 미술사』 52, 2019, pp. 75-97.
이광린, 「李朝後半期의 寺刹製紙業」, 『역사학보』 17·18, 1962, pp. 201-219.
이병희, 「朝鮮 初期 寺社田의 整理와 運營」, 『全南史學』 7, 1993, pp. 345-393.
_____, 「朝鮮前期 圓覺寺의 造營과 運營」, 『문화사학』 34, 2010, pp. 111-145.
이분희, 「조선 전반기 아미타불상 연구」, 『강좌미술사』 27, 2006, pp. 191-224.
_____,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 - 탑 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15, 2013, pp. 117-143.
_____, 「朝鮮 15世紀 塔內 奉安 佛像의 考察」, 『미술사학연구』 283·284, 2014, pp.5-30.
_____, 「韓國 石塔 佛像 奉安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이선용,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 『미술사연구』 289·290, 2016, pp. 93-120.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 2015, pp. 417-449.
이승혜, 「한국 복장의 밀교 존상 안립의례적 성격 고찰」, 『미술사논단』 45, 2017, pp. 29-51.
이승희, 「17세기 佛畵製作後援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30-2,

2004, pp. 30-64.
_____, 「1628年 七長寺 〈五佛會掛佛圖〉硏究」, 『미술사논단』 23, 2006, pp. 171-204.
_____, 「고려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영산회상변상도 판화를 통해 본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변화」, 『미술사연구』 28, 2014, pp. 135-167
이영숙, 「朝鮮後期 掛佛幀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 9, 2008, pp. 91-118.
이종수, 「조선후기 승군 제도와 그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불교사회연구소, 2013.
이헌준,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좌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임영애, 「完州 松廣寺 木牌와 17세기 조선시대 불교」, 『講座 美術史』 13, 1999, pp. 165-175.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2006, pp. 255-302.
정명희, 「의식집을 통해 본 괘불의 도상적 변용」, 『불교미술사학』 2, 2004a, pp. 6-28.
_____, 「朝鮮 後期 掛佛幀의 硏究」, 『미술사학연구』 242·243, 2004b, pp. 159-195.
_____, 「이동하는 불화: 조선후기 불화의 의례적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pp. 100-141.
_____, 「<長谷寺 靈山大會掛佛幀>에 보이는 도상의 중첩과 그 의미」, 『불교미술사학』 14, 2012, pp. 71-105.
_____,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畵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조선시대 불교의식과 승려의 소임 분화」, 『미술사연구』 31,

2016, pp. 253-291.
정은우, 「敬天寺址 10層石塔과 三世佛會考」, 『미술사연구』 19, 미술사연구회, 2005, pp. 31-58.
_____, 「여말선초 소금동불의 유행과 제작기법의 변화」, 『미술사학』 24, 2010, pp. 259-290.
_____,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 순천 송광사 高峰國師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 101-126.
정우택, 「조선왕조시대 전반기 궁정화풍 불화의 연구」, 『미술사학』 13, 1999, pp. 129-166.
정이담, 「金堤 歸信寺 大寂光殿 塑造三身三世佛坐像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주수완, 「조선후반기 제 1기 불교건축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 의미 연구」, 『강좌미술사』 38, 2012, pp. 205-234.
최선일, 「17세기 중반 조각승 懷鑑의 활동과 불상 연구」, 『17세기 彫刻僧과 佛像硏究』, 한국연구원, 2009, pp. 103-119.
_____, 「安城 七長寺 大雄殿 木造三尊佛坐像과 彫刻僧 摩日」,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硏究』, 한국연구원, 2009, pp. 187-198.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普照思想』 47, 2017, pp. 132-167.
최윤숙, 「朝鮮後期 全北地域 紀年銘 佛像 硏究」, 『문화사학』 44, 2015, pp. 167-202.
_____, 「조선후기 전북지역 불교건축의 양상과 장엄」, 『역사민속학』 48, 2015, pp. 273-301.
탁경백, 「이옥이 본 조선 후기 완주 송광사의 가람배치와 대웅전의 구조」, 『건축역사연구』 26-2호, 2017, pp. 43-52.
탁효정,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사회적 기능」, 『청계사학』 19, 2004, pp. 149-213.
_____,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조선초기 능침사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77,

2016, pp. 7-44.
_____, 「조선 예종~명종대 陵寢寺의 설치현황과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pp. 39-71.
하종목, 「朝鮮後期의 寺刹製紙業과 그 生産品의 流通過程」,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_____, 「조선 초기의 사원 경제: 국사 및 왕실 관련 사원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60, 2000, pp. 1-105.
홍근혜, 「조선 문정왕후기 불교시책과 내수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홍병화, 「조선 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사찰 중심영역의 배치 및 건축 계획의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홍병화, 김성우, 「조선시대 寺刹門樓 건축형식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5-11, 2009, pp. 197-208.
황규성, 「朝鮮時代 三世佛 圖像에 關한 硏究」, 『미술사학』 20, 2006, pp. 221-281.
황인규,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적 전개와 사격」, 『불교학보』 73, 2015, pp. 141-164.
황현정, 「조선후기 안성 청룡사의 후원자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pp. 201-238.
_____, 「조선후기 안성지역 불사와 후원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19세기말 왕실의 안성지역 사찰 후원」, 『지방사와 지방문화』 15, 2012, pp. 77-119.
_____, 「朝鮮後期 驪興 閔門의 佛敎 後援-驪州, 安城 지역을 中心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pp. 123-161
한지만, 「고려시대 선종사원과 회암사」, 『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V』, 양주회암사지박물관, 2017, pp. 90-121.
_____, 「조선 후기 선종사원 완주 송광사 가람구성의 의미」, 『보조사상』 47, 2017, pp.169-216.
한춘순, 「명종대 왕실의 내수사 운용」, 『인문학연구』 3, 1999, pp.

391-439.
_____, 「명종대 왕실의 불교정책」, 『인문학연구』 4, 2000, pp. 375-414.

2. 일문

- 단행본

高橋亨, 『李朝佛教』, 東京: 國書刊行會, 1973.
野上俊靜, 『元史釋老傳の研究』, 京都: 明友書店, 1978.
石濱裕美子, 『チベット仏教世界の歴史的研究』, 東京: 東方書店, 2001.
肥田路美, 『初唐佛教美術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1.

- 논문

武田 和昭, 「兵庫十輪寺の五仏尊像図について」, 『密教図像』 7, 1990, pp. 9-22.
成河峰雄, 「『勅脩百丈清規』祝釐・報恩章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64, 1984, pp. 382-385.
萩原哉, 「三世仏の造像」, 『印度学仏教学研究』113, 2007, pp. 28-31.
鈴木宜邦, 「教苑清規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47, 1975, pp. 308-311.
鄭夙雯, 「宋代禅林における「祝聖上堂」の意義」, 『印度学仏教学研究』 102, 2003, pp. 77-80 .
福田美穂 「元朝の皇室が造営した寺院」, 『種智院大学研究紀要』 9, 2008, pp. 15-30.
肥田路美, 「七·八世紀の佛教美術に見る唐と日本, 新羅の關係の一斷面」, 『日本史研究』615, 2013, pp. 53-78.

3. 중문

- 단행본

柴泽俊·柴玉梅 著,『山西古代彩塑』, 北京: 文物出版社 , 2008.
王大偉,『宋元禪宗 淸規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3.
劉慧葵 主編,『中華名寺古刹 1』, 臺北: 地球出版社, 1981.
任宜敏,『中國佛教史-元代』, 北京: 人民出版社, 2005.
中國寺觀雕塑全集編輯委員會 編,『中國寺觀雕塑全集 3』, 哈爾濱: 黑龍江美術出版社, 2005.
_____,『中國寺觀雕塑全集 4』, 哈爾濱: 黑龍江美術出版社, 2005.
太原市崛围山文物报管所 编,『太原 崛围山 多福寺』, 北京: 文物出版社 , 2006.
何孝榮,『明代南京寺院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논문

宿白,「元代杭州的藏传密教及其有关遗迹」,『文物』10, 1994, pp. 55-71.
温玉成,「泉州三世佛造像再探」,『敦煌研究』4, 2000, pp. 33-37.
陈立华, 「元代藏传佛教在福建地区的遗迹考-以泉州清源山三世佛石刻题记为中心」,『中国藏学』4, 2013, pp. 105-108.
賀世哲,「关于十六国北朝时期的三世佛与三佛造像诸问题(一)」,『敦煌研究』4, 1992, pp. 1-20.
_____,「关于十六国北朝时期的三世佛与三佛造像诸问题(二)」,『敦煌研究』1, 1993, pp. 1-10.
_____,「关于敦煌莫高窟的三世佛与三佛造像」,『敦煌研究』2, 1994

4. 영문

- 단행본

Belting, Hans. *Likeness and Presence: A History of the Image before the Era of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Orzech, Charles, Henrik Sørensen, and Richard Payne, eds. *Esoteric Buddhism and the Tantras in East Asia*. Leiden: Brill, 2011.

van Kooij, K. R, and van der Veere, H. Eds. *Function and Meaning in Buddhist Art: Proceedings of a Seminar held at Leiden University*. Groningen : Egbert Forsten, 1995.

- 논문

Buswell, Robert E. "Buddhism under Confucian Domination: The Synthetic Vision of Sŏsan Hyujŏng." in Haboush, JaHyun Kim, and Martina Deuchler, eds.,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pp. 134-159. Leiden: Brill, 1999.

도판 목록

도 1 <김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17세기 초, 270cm, 소실

도 2 덕기, <김제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삼세불좌상>, 1624, 소조, 428cm,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도 3 <고창 선운사 목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633, 목조, 295cm, 고창 선운사 대웅전

도 4 현진, <보은 법주사 소조 삼신불좌상>, 1626, 소조, 509cm,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도 5 <구례 화엄사 목조 삼신불좌상>, 1636, 목조, 280cm,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도 6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불좌상>, 1703, 목조, 366cm, 구례 화엄사 각황전

도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약사삼존도>, 1565, 비단 금선, 54.2×29,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8 <경천사지 10층석탑 초층 남면>, 1348, 대리석, 국립중앙박물관

도 9 <원각사지 10층석탑 초층 남면>, 1467, 대리석, 서울 탑골공원

도 10 <진국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세기, 소조, 398cm, 산서성 진국사 삼불루

도 11 <자수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세기, 소조, 산서성 영석 자수사 대웅보전

도 12 <쌍림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세기, 소조, 371cm, 산서성 쌍림사 대웅보전

도 13 <구례 천은사 소장 전 나옹혜근 원불>, 14세기 말, 금동, 43.4cm, 구례 천은사

도 14 <순천 송광사 소장 전 고봉법장화상 원불>, 15세기, 금동, 16cm, 송광사 성보박물관.

도 15 <다복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466,

도 16 <남전현 수륙암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63, 소조,
도 17 <자수사 약사전 약사불좌상>, 15세기, 소조, 산서성 영석 자수사 약사전
도 18 <京首都博物馆藏 药师佛坐像>, 1450, 금동, 京首都博物馆藏
도 19 <벽소암 마애 석가삼방불좌상>, 1292, 마애, 복건성 천주 벽소암
도 20 <항주 보성사 마애 석가삼방불좌상>, 원대, 마애, 항주 보성사
도 21 <쥬린지 소장 비로자나 5불회도>, 15세기, 비단채색, 160×111.7cm, 일본 효고현 쥬린지
도 22 <경주 기림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6세기 초, 소조, 360cm,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도 23 원오, <논산 쌍계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 1605, 소조, 190cm, 논산 쌍계사 대웅전
도 24 원오, <김해 선지사 목불좌상>, 1605, 목조, 49.5cm, 김해 선지사
도 25 원오, <익산 관음사 목조 관음보살입상>, 1605, 목조, 152.5cm, 익산 관음사
도 26 현진, <서울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1622, 목조, 117.5cm, 서울 지장암
도 27 각민, <공주 동학사 목조 석가 삼방불좌상>, 1606, 목조, 112cm, 공주 동학사 대웅전
도 28 태전, <해남 대흥사 목조 삼방불좌상>, 1612, 목조, 약사 136cm, 미타 168cm,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도 29 현진, <진주 월명암 목조 아미타불좌상>, 1612, 목조, 80cm 진주 월명암
도 30 무염, <대전 비래사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1650, 목조, 83cm, 대전 비래사
도 31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1458, 목조, 57.3㎝, 경북 영풍 흑석사
도 32 <천주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1482, 목조, 72㎝, 국립중앙박물관
도 33 행사, <해남 도장사 목조 석가불좌상>, 1648, 목조, 109cm, 해남 도장사 대웅전

도 34 혜정, <군산 은적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1666. 목조, 43.5cm, 군산 은적사 지장전
도 35 천상·관해,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삼존불좌상>, 1650, 소조, 150cm, 군산 동국사 대웅전
도 36 회감, <군산 불지사 아미타불좌상>, 1666, 목조, 88cm, 군산 불지사 극락전
도 37 청헌, <완주 송광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 1641, 소조, 550cm, 완주 송광사 대웅전
도 38 행사, <공주 갑사 소조 석가삼방불좌상>, 1617, 소조, 269cm, 공주 갑사 대웅전
도 39 현진, <부여 무량사 소조 미타삼존불좌상>, 1633, 소조, 509cm, 부여 무량사 극락전.
도 40 <김제 금산사 소조 미륵삼존상>, 17세기 초, 소조, 879cm, 김제 금산사 미륵전
도 41 지영, <구례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 1653, 마본채색, 1195×776cm, 구례 화엄사

삽도 목록

삽도 1 17세기 초 금산사 가람배치
삽도 2 <나옹원불> 벽면 비로자나 삼방불
삽도 3 <고봉원불> 5자 진언
삽도 4 금산사, 선운사, 귀신사 특징 비교
삽도 5 법주사 가람배치도
삽도 6 동화사 가람배치도
삽도 7 화엄사 가람배치도
삽도 8 선운사 가람배치도
삽도 9 귀신사 가람배치도

도판

도 1 <김제 금산사 비로자나 5불상>, 17세기 초, 270cm, 소실

도 2 덕기, <김제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삼세불좌상>, 1620년대 후반, 소조, 428cm,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도 3 <고창 선운사 목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633, 목조, 295cm, 고창 선운사 대웅전

도 4 현진, <보은 법주사 소조 삼신불좌상>, 1626, 소조, 509cm,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도 5 <구례 화엄사 목조 삼신불좌상>, 1636, 목조, 280cm,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도 6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불좌상>, 1703, 목조, 366cm, 구례 화엄사 각황전

도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약사삼존도>, 1565, 비단 금선, 54.2×29,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8 <경천사 10층석탑 초층 남면>, 1348, 대리석, 국립중앙박물관

도 9 <원각사지 10층석탑 초층 남면>, 1467, 대리석, 서울 탑골공원

도 10 <진국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세기, 소조, 398cm, 산서성 진국사 삼불루

도 11 <자수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세기, 소조, 산서성 영석 자수사 대웅보전

도 12 <쌍림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세기, 소조, 371cm, 산서성 쌍림사 대웅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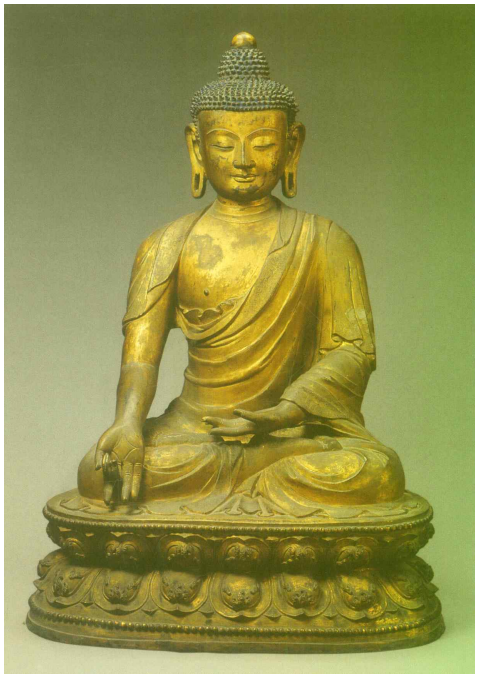
도 13 <구례 천은사 소장 전 나옹혜근 원불>, 14세기 말, 금동, 43.4cm, 구례 천은사

도 14 <순천 송광사 소장 전 고봉법장화상 원불>, 15세기, 금동, 16cm, 송광사 성보박물관

도 15 <다복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466, 소조, 산서성 다복사 대웅전

도 16 <남전현 수륙암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563, 소조, 산서성 남전현 수륙암 대웅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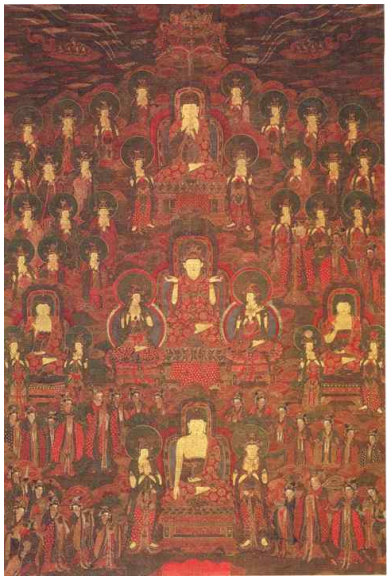
도 17 <자수사 약사전 약사불좌상>, 14세기, 소조, 산서성 영석 자수사



도 18 <京首都博物馆藏 药师佛坐像>, 1450,

도 19 <벽소암 마애 석가 삼방불좌상>, 1292, 마애, 복건성 천주 벽소암.

도 20 <항주 보성사 마애 석가삼방불좌상>, 원대, 석조, 절강성 항주 보성사



도 21 <쥬린지 소장 비로자나 5불회도>, 15세기, 비단 채색, 160×111.7cm, 일본 효고현 쥬린지

도 22 <경주 기림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16세기 초, 소조, 360cm,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도 23 원오, <논산 쌍계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 1605, 소조, 190cm, 논산 쌍계사 대웅전

도 24 원오, <김해 선지사 아미타불좌상>, 1605, 목조, 49.5cm, 김해 선지사

도 25 원오, <익산 관음사 목조 관음보살입상>, 1605, 목조, 152.5cm, 익산 관음사

도 26 현진, <서울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1622, 목조, 117.5cm, 서울 지장암

도 27 각민, <공주 동학사 목조 석가 삼방불좌상>, 1606, 목조, 112cm, 공주 동학사 대웅전

도 28 태전, <해남 대흥사 목조 삼방불좌상>, 1612, 목조, 약사 136cm, 미타 168cm,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도 29 현진, <진주 월명암 목조 아미타불좌상>, 1612, 목조, 80cm, 진주 월명암

도 30 무염, <대전 비래사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1650, 목조, 83cm, 대전 비래사

도 31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1458, 목조, 57.3㎝, 영주 흑석사

도 32 <천주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1482, 목조, 72㎝, 국립중앙박물관

도 33 행사, <해남 도장사 석가불좌상>, 1648, 목조, 109cm, 해남 도장사 대웅전

도 34 혜정, <군산 은적사 아미타불좌상>, 1666. 목조, 43.5cm, 군산 은적사 지장전

도 35 천상, <군산 동국사 소조 석가삼존불좌상> 1650, 소조, 150cm, 군산 동국사 대웅전

도 36 회감, <군산 불지사 아미타불좌상>, 1666, 목조, 88cm, 군산 불지사 극락전

도 37 청헌, <완주 송광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 1641, 소조, 550cm, 완주 송광사 대웅전

도 38 행사, <공주 갑사 소조 석가 삼방불좌상>, 1617, 소조, 269cm, 공주 갑사 대웅전

도 39 현진, <부여 무량사 소조 미타삼존불좌상>, 1633, 소조, 509cm, 부여 무량사 극락전

도 40 <김제 금산사 소조 미륵삼존상>, 17세기 초, 소조, 879cm, 김제 금산사 미륵전

도 41 지영, <구례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 1653, 마본채색, 1195×776cm, 구례 화엄사

부록 1 축성의례 관련 기록

	연대	저자	내용	출전	비고
1	고려말	백운 경한	無愧於心 祝香云 此一瓣香 根盤沙界 葉覆彌盧 以此淸淨戒香 祝延主上殿下萬萬歲	『백운화상어록』上 「신광사입원(神光寺入院小說)」	
2		원감국사 충지(1226-1293)	향화하는 하나의 장소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진하며 오직 岡陵처럼 억만 년 동안 장수하시리라고 마음마다 생각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만	『원감국사문집』	이하 축성 관련 내용은 순천 송광사가 원 황실의 원찰이 되었던 사실을 전제로 함.
3			그러고 보면 이렇게 향화를 올리면서 기원하는 것이야말로 총림에서 응당 행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4			하늘이 준 한조각 충성심을 늙을수록 더욱 돈독히 지니고서 날마다 삼호의 축수를 올리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5			총림에서 향화를 올리며 기도하는 간절한 정성 또한 육시에 두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중략) 수레를 돌려 우리 강토에 이미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뛸 듯이 기쁜 심정이 실로 평시의 두 배는 되니, 축원		

			하는 의식을 어찌 상례에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에 특별히 법석을 열어서 수승한 공덕을 맺으려고 하니		
6			과연 하늘의 도움으로 제대로 조회하였음은 물론이요, 황제의 우악한 은혜를 받고서 빨리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어찌 정진의 공을 다하여 갑절이나 더 간절히 영장의 축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7			성범은 같은 몸이니 어느 곳이나 모두 만물을 제접하는 문이 됩니다. 향화가 몸 가는 대로 따르니 어느 곳인들 임금님을 축수하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8			천만년을 사시라고 임금님의 장수를 축원하는 것은 사문인신의 직분입니다. 이에 승연을 베풀어 감히 미천한 정성을 펴고자 합니다.		
9			더구나 노물의 경우는 오래도록 큰 은덕을 입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매일 행하는 일은 오로지 임금님의 장수를 축원하는 일뿐입니다.		
10			마침 임금님이 탄생하신 令節을 맞아 부처님의 문에 요익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중략) 더구나 전요의 절일을 맞았으니, 어찌 산호의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청정한 범연을 펼쳐 특별히 성대한 불사를 닦게 되었습니다. 난초 같은 불		

			꽃이 빛을 발하여 요임금 시대의 서기를 빚어내고, 전단의 연기가 향을 내뿜어 순임금 궁전의 상서로운 구름으로 엉깁니다.		
11		나옹 혜근 (1320-1376)	신승은 단지 산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왕을 축원하고자 하니 성상의 자비를 바랍니다.	「나옹화상 행장」	나옹 혜근은 축성을 중시하였으며 『칙수백장청규』의 보급에 핵심적 역할
12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조사. 천하의 노화상이 산승의 불자 머리 위에 앉아 큰 광명을 놓으시면서 각기 다른 입에서 같은 소리로 황제를 봉축하는데…	광제선사 개당법문	원 광제선사에 개당축성의식
13			만약 여기서 깨치면 국왕, 부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신광사 입원」	청규에 나오는 입원(入院)의식
14			향을 사르며 왕의 어짊과 덕이 만세 만만세에 이어지길…'스님이 법좌에 오른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임금을 위해 축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니 '만년의 성일(聖日) 속 복이 영원하고 문무의 4법이 태양을 따르네.'	「결제상당」	
15			길에 가득한 노래, 황제의 덕화를 드날리고, 온 성안 칭송은 왕업을 도와 후세에 전하도다. 요풍과 순일이 언제나 펼쳐지니 당당한 우리 왕 만만세를 누리소서	「찬성화」	

16			언제나 허망을 버리고 진실을 닦아 임금을 축수하고 나라를 복되게 함으로써 규범을 삼았다.	『나옹화상어록』 후발문	
17	조선초	함허 기화 (1376-1433)	무릇 출가자로 하여금, 조석으로 분향하여 군주와 국가를 축원함이 없지 않게 하여야 한다.	『현정론』	
18			받든 직분은 충을 짊어지는 것 외 향로에 축성향을 사르는 것이네.(奉戢輸忠外。爐焚祝聖香)	『함허당득통화상어록』「與安注簿壽希」	
19	16세기 중반	허응 보우 (1515-1565)	뉘라서 알랴 병든 나그네가 공을 관하는 것 외에, 한 점의 등불로 임금을 축수하는 줄을(1,2수) 아침에 분향하면서 우리 임금 요순같게 되소서. 저녁에 향촉을 켜면서 우리 신하들 부열과 이윤 같게 되소서.(6수)	『허응당집』「山居雜咏」	
20			여러 선사는 지금 다행이 앞선 躅을 이어오니, 각각 이름난 가람을 가 축성을 부지런히 하세.	『허응당집』諸大選輩同受住持之帖各作一寺之主以	

				歸 以偈示之	
21			천봉에 풍설은 어둡고, 방 하나에 소삼하니 춥네. 세 왕조의 역사를 고요히 펼쳐 한가로이 만고의 마음을 읊네 연하는 선사의 걸상에 평온하고, 비와 이슬은 성은으로 깊구나. 분수하는 승려를 보답하고자, 두텁고 근면하게 각각 진심을 다하라.	『허응당집』示祝釐僧輩	
22			상 3개에 예경하고 3전축을 하고 다시 축원하니, 나무의 푸른 잎을 알지 못해 의관을 더하네.	『허응당집』淸平雜咏	
23			丹崖에서 삼봉불을 우러러 예경하니(정자의 동북에 석가, 미타, 약사의 삼봉이 있다.) 대궐에 아득히 멀리 4전하의 은혜를 갚고자 하네. 그러나 하늘을 축원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아니하여 부끄러우니 은하는 정수를 품어 적정하니 말이 없네.	『허응당집』洗心亭書懷	
24			이 회암사는 전국 가람에서 으뜸 가는 곳으로 여섯 가지로 화합하는 스님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절에서는 임금의 수명이 억만년 가기를 축수하는 맑은 범종소리가 온종일 울려 퍼지며,	『나암잡저』「회암사중수경찬소」	1565년 회암사 대불사 당시의 소(疏)
25	17세기 초	기암 법견(1552	엎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이후 남산은 무너지지 않고, 북두는 옛것에 의하며, 성수가 만만세	『기암집』「金剛山楡岾	

			이길 축원합니다. 상량 후 하늘만 오직 존재하여 학의 수명이 천천인 것처럼 늘어나길. 기린의 발자국이 진동하듯 금지옥엽의 이어짐은 오이처럼 면면히 되며, 文의 계획과 武의 굳건함은 빠짐 없으니, 모든 복이 반드시 지극하길. 영원히 변경의 울음이 없으며, 세 빛은 시듦이 없어, 쑥 밭이 육지가 되는 것을 앉아서 보시기를.	寺法堂上樑文」	
26		-1634)	주상전하께서는 팔천세를 춘추로 하여 장자의 동산의 춘수와 같게 하고,(중략) 왕비 전하는 곤의가 길이 한 사람을 받들게 하여 무궁한 수명을 함께 향우케 하고 더욱 많은 복을 받는 경사를 누리시는 가운데,	『기암집』 유점사 상량소	
27			삼가 원하옵건데 주상전하는 일월과 함께 밝음을 나란히 하고, 천지와 함께 수명을 가지런히 하는 가운데, 요풍이 길이 불어와 위로 병혁의 근심이 없게 하고 순일이 길이 밝아져 아래로 격양의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해주소서. 왕비 전하는 모의의 자리를 바르게 하여 항상 자손은 메뚜기처럼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곤재의 덕에 부합하여 면면히 이어지는 國祚를 향유하소서. 왕대비 전하는 선후의 애련을 받고 후왕의 봉양을 누리는 가운데	『기암집』「유점사 천왕상 조성점안낙성소」	

			재앙이 모두 물러나고 지혜가 원만한 복을 받게 하소서.		
28			날 저물고도 향화를 그만두지 않게 하여 성수가 억만이도록 축원하게 합니다.	『기암집』修粧勸善文	
29		정관 일선 (1533-1608)	조석으로 분향하여 군부를 범궁에서 축수합니다. 미수가 만년이길 굳게 믿으니 어찌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알겠습니까?	『정관집』「寒食祭文」	
30		영월 청학(1570-1654)	원컨대 산 사찰의 가진 것을 헤아리시어 병은 연하에 홀로 두시고 특별히 은혜와 인을 베푸시어 이곳을(=사찰) 있게 해 주신다면, 석실에 향화하여 날마다 왕의 교화함이 매우 오래도록 번창하길 축원할뿐이겠습니다.	『영월당대사문집』戊午年九大闕經營之時僧俗皆赴京師一日引聲僧俗言行不美故有罪僧之勢因爲此疏	
31	1625	중관 해안 (1567-?)	조종조 이래, 진호사탑은 명산 가운데 있어 조석으로 분향하여 군주가 천만년 누리길 축원함은 이것이 본래 사문의 직분이다.	『중관대사유고』「畣都體府捻戎使書」	
32	1631	중관 해안	운수단, 설선의 등의 글은 청허대사께서 여러 산의 운수납	『설선의』 후발	

			자, 산의 축리를 위해 근원부터 이르지 않고 한 별도의 수단이다.	문	
33	17세기 초	청매 인오 (1548-1623)	모든 생에 부모를 효로 대하고, 성품을 길러 천하를 평정하네. 매 아침 저녁 축리를 하며, 죽반은 선가를 생각하네.	『청매집』「진충효」	
34	17세기 중반	취미 수초(1590-1668)	아침 저녁으로 성군을 축원하니, 손으로 향 한조각 사르네.	『취미대사시집』寄賢天柱一懶庵安雪峰三開士	
35		허백 명조 (1593-1661)	구석진 곳에 사람 없어 세상과 끊어지니, 분향하여 성수를 축원함이 사립문에 기대네.	『허백집』戰敗後入長安山(二)	
36			성수를 축원하고자 향을 사르니 문은 낮부터 닫혀있고, 이 몸은 한가로우니 이 마음도 한가롭네	『허백집』佛影閑咏	
37	17세기 후반	동계 경일 (1636~1695)	당나라 때에 백장대지선사께서 도로써 크게 여니 대중에 이미 성행하였다. 만약 큰 당우가 아니라면, 선조의 가르침을 드러냄이 없었을 것이다. 황조를 축원하고자 여기에 대찰을 창건하니 총림이라 이름하였다. 규칙으로 묶어 중들을 거처하게 하니, 향화를 성실히 하여 성수를 축원하였다.	『동계집』「琵瑟山龍興寺事蹟記」	
38		허정 법	널리 천하에 존귀한 분을 붓다	『허정집	

			라 이르고, 일국의 주인은 왕이라고 하네. 붓다 또한 존귀하며 왕 또한 크니, 陵과 같이 축원하며 岡처럼 축원하네.	』「일용찬」	
39			향화가 끊이지 않게 하여 남산에서 성수를 축원하니, 그 여러 국왕, 법왕은 가히 그것을 忠良이라 이를 만하다.	『허정집』臥龍山湧泉寺碑銘	
40	1723	종(1670-1733)	벽에는 2개의 불화를 걸고, 탁자에는 세 개의 금상을 놓았다. 무릇 백가지 법구는 넉넉히 준비하지 않음이 없다. 이전 규식보다 배로 증가하여 그것이 공덕이 되었으니 가히 勝量이라 할 수 있구나! 일은 이미 끝나 향화를 설치하고, 붓다에게 기도해 성수를 축원하여 낙성을 하였네.	『허정집』寧邊鐵瓮城天柱寺記	
41	18세기	무경 자수(1664-1737)	이 하나의 향은 높음이 위없네. 우러러 미침이 없으니, 향로 중에 살라서, 단정히 축연하네. 주상전하의 성수가 하늘처럼 길고, 복이 땅에 오래 가기를.	『무경실중어록』「結制拈香」	
42		월파 태율	청산의 위에 홀로 서, 군주의 만세춘을 축원하네. 비록 방외객이	『월파집』「次玩	

			라 말하지만, 어찌 가까이 모시는 신하를 부끄러워 하리오?	星韻二」	
43			은혜 받은지 몇 일이 지나, 안회를 설치하여 천명이 모였네. 당 위에서 가곡을 연주하며, 군주를 축원하여 성수가 만춘하시길 축원하네.	『월파집』次設宴韵	
44		(1695-?)	신인 또한 은혜가 두터움을 알아, 자정과 정오에 분향하여 만추를 축원하네.	『월파집』歎玉體不安	
45			동쪽 군주는 교화를 만들어 처음 절기를 여니, 멀리 약산과 신선의 세계를 바라보네. 새벽과 밤에 밝은 달 아래 분향하니, 새벽과 밤에 옥등 앞에 축수하네. 만민은 모두 새로운 은혜가 두텁다고 생각하나 어찌 위대한 교화의 전부를 한번에 풀어낼까. 정식으로 조정에서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나 승의 축례함이 다음이라. 다만 푸른 바람에 병이 오래간 얽혀 오는구나.	『월파집』謹呈本府具使道閤下	
46		추파 홍유 (1718-1774)	무릇 정사를 만듦은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토목의 일을 하는 것은 불씨를 봉양하려는 이유와 천수를 축원하여 국가를 돕기 위함	『추파수간』	

			이라.		
47		조관 용담 (1700-1762)	우리 왕의 수만세를 위해 축원하니, 맑은 향, 뜨거운 곳에 상서로운 연기 일어나네. 속세에 또한 양친 부모 계시니, 영원히 밤의 단 앞에 더욱 하늘에 고하네.	『용담집』	
48		괄허 취여 (1720-1789)	갑술 봄을 지나 어떤 청신사가 있어, 그 이름을 취신이라 하니, 재물을 모으길 힘을 다해 소 암자를 건설했으니 이름을 영지라 하였다. 제도함은 비록 넓지 않으나, 상쾌하고 드높음이 선정하여 생각하기에 충분하구나. 향을 사르고 한촉 등불 밝히니 생령을 위해 축리의 장소가 되었네.	『괄허집』「七峯山靈芝庵記」	
49		해붕 전령 (?-1826)	옥과 같은 향촉, 금과 같은 향로. 조석으로 분향하니, 성수가 만세에 이르길 축원하네.	『해붕집(海鵬集)』	

부록 2 공양의례 절차

1.『진언권공』「작법절차」의 차서(次序)

절차	비고	절차	비고
1. 할향	향을 사름	29. 유해진언	가지 절차
2. 연향게		30. 육법공양	육법공양에 해당하며 찬탄-공양의 순서
3. 할촉	향촉을 사름	31. 찬향	
4. 연등게		32. 배헌해탈향	
5. 할화		33. 찬등	
6. 서찬게		34. 배헌반야등	
7. 삼귀의		35. 찬화	
8. 계개문		36. 배헌만행화	
9. 관음청	도량 엄정. 법당에서 요잡	37. 찬과	
10. 향화청		38. 배헌일엽과	
11. 삼청 후 쇄수게		39. 찬다	
12. 천수주-요잡		40. 배헌감로차	
13. 도량찬		41. 찬미	
14. 거불	법화, 화엄, 참경, 미타참, 지장의 5종.	42. 배헌선열미	
15. 염향		43. 향화송운	
16. 개경게	17의 경전 독송 사전 준비	44. 보공양진언	
17. 석제	釋題. 경전 독송 시 제목풀이	45. 보회향진언	현 의례에서 회향에 해당.
18. 동송	同誦	46. 반야심경	
19. 청불	請佛	47. 요잡	
20. 삼례청		48. 삼귀의	
21. 사부청	중단(中壇)을 소청	49. 명발	
22. 헌좌	소청한 붓다, 천선신중을 자리에 모심	50. 축원	환희장 마니보적불, 원만장보살 마하살, 회향장보살 마하살.
23. 헌전물	제수물을 올림	51. 향화공양 일체공경	바로 앞에 '齋前,齋後,初夜,後夜 通用,

			別例 香火供養 一切恭敬'의 지시문.
24. 명발	鳴鈸. 바라를 울림	52. 향화게	
25. 독소	讀疏. 소(疏)를 읽음	53. 찬례삼보	
26. 변식진언	가지(加持)절차.	57. 법화즉	14에서 법화거불을 했을 경우에 해당. 지심귀명례 구원겁중 성등정각 상주영산 설법화경 아본사석가모니불.
27. 감로수진언		58. 송거후 창혼	
28. 일자수륜관진언		59. 여의륜주	

2.『영산대회작법절차』의 차서

절차	비고	절차	비고
1. 할향		28. 정대게	
2. 연향게		29. 개경게	
3. 할촉		30. 청법게	
4. 연등게		31. 사무량게	
5. 할화		32. 창혼	이후 지심귀명례 구원겁중 성등정각 상주영산 설법화경 운운.
6. 서찬게		33. 정법계진언	"공양 올릴 때[進供時]" 정법계진언 사용. 이후 명발-축상작법
		* 삼전축원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제년. 세자저하 수천추.
7. 삼귀의 불보찬		34. 향수나열 운운	앞에 게송은 諸佛淸凉月 운운.
8. 법보찬		35. 변식진언	가지(加持)
9. 승보찬		36. 감로수진언	
10. 합장게		37. 일자수륜관진	

		언	
11. 고향게		38. 일자수륜관진언	
12. 개계문		39. 유해진언	
13. 관음찬	도량 엄정	40. 상래가지 운운	
14. 관음청		41. 향공양-찬	육법공양
15. 향화청		42. 등공양-찬	
16. 걸수게		43. 화공양-찬	
17. 쇄수게		44. 과공양-찬	
18. 천수주		45. 다공양-찬	
19. 사방찬		46. 미공양-찬	
20. 도량게		47. 향화송	
21. 거불	법화, 화엄, 참경, 미타참, 지장의 5종. 불보살에 해당하는 상단 소청절차	48. 화만기약 공양	
22. 청불기두		49. 수의향 등공양	
23. 삼례청		50. 제공양진영산	
24. 사부청	중단.	51. 보공양진언	
25. 소례단청불	짧은 의례를 할 대에 한하여 사용. 즉 선택사항	52. 보회향진언	
26. 헌좌진언	자리에 모심	53. 풍경	
27. 다약게	차를 올림	54. 게송	

표 2『영산대회작법절차』의 차서

3.『운수단 가사』의 차서

절차	비고	절차	비고
1. 향찬		31. 삼보공양	
2. 향게		32. 보공양진언	
3. 등게		33. 회향	경전 읽고, 축원. 이후 중위진공 5공양 운운.
4. 총게		34. 소청하위	하단작법

5. 삼귀의		35. 천수주	
6. 불귀의		36. 파지옥게	
7. 법귀의		37. 파지옥진언	
8. 승귀의		38. 보소청진언	
9. 개계문		39. 면해결진언	
10. 천수주	도량 엄정	40. 화엄경 여래현상품-진언	
11. 도량게		41. 삼귀의	석가모니, 관세음, 지장, 아난존자에 귀의
12. 정삼업진언		42. 지장보살멸정업진언	地藏菩薩滅定業眞言
13. 정법계진언		43. 관세음보살멸업장진언	觀世音菩薩滅業障眞言
14. 개단진언		44. 개인후진언	開咽喉眞言
15. 건단진언		45. 삼매야계진언	三昧耶戒眞言
16. 소청상위	상단작법	46. 암삼매야살달범	唵三昧耶薩怛梵
17. 보소청진언	널리 청함	47. 변식진언	가지 절차
18. 삼보 소청	불보 소청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미타불, 미륵불.	48. 감로수진언	
19. 헌좌	자리에 모심	49. 일자수륜관진언	
20. 소청 중위	중단작법	50. 유해진언	
21. 보소청진언		51. 선양성호	宣揚聖號
22. 보례삼보		52. 시아귀	
23. 헌좌안위	자리에 모심	53. 시무차법식진언	施無遮法食眞言
24. 상위진공	향수나열 운운	54. 보공양진언	普供養眞言
25. 배헌해탈향	육법 공양	55. 참회게	
26. 배헌반야등		56. 발사홍서원	
27. 배헌만행화		57. 12인연법	
28. 배헌일승과		58. 심경-정토왕생진언-염불	
29. 배헌감로차		59. 송혼	送魂-著語. 부른 혼령을 보냄
30. 배헌선열미		60. 착어	

표 3『운수단가사』의 차서

**『진언권공』「작법절차」와 『영산대회작법절차』의 표는 서정매, 「영제 <영산작법> 절차의 시대적 변천 연구」, 『공연문화연구』 26(2013)을 기반으로 필자가 보완하였다.

부록 3 귀신사 불사 참여자

승명	1620년대 불사	나한전 불사(1633)	기타 불사 참여
덕기(德奇)	비로자나 3존		서울 개인소장 발원문(1610년대)
염화	법당 중창		
신허(信虛)	법당 중창		
도헌(道軒)		나한전 화주	송광사 개창비 삼강(1636)/송광사 삼세불상 서기(1641)/송광사 나한전 시주(1656)/송광사 화주록 금강문 화주/ 군산 동국사상 시주질/고흥금탑사 명부전 목조지장(1659) 9등화원
지호(知浩)		아난대시주	
조능(祖能)		좌보제석천 시주	익산 숭림사 성불암 불상(1640) 미타3존 석가3존, 독성 등 조성 화원. 원 봉안처는 임피 취성산 불명사
인옥(印玉)		감재사자 대시주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상(1650)
처명(處明)		증명	서울 개인소장 발원문 참학/원오, 각민, 덕기./고창 선운사 비로자나 삼방불좌상(1634) 증명/보성군 천봉산 대원사 부도암 범종 명문 (1653) 시주(선암사 소장)
성열(性悅)		지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1628) 11위 화원
인균(印均)		수화원	
대오(大悟)		2등화원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1628년 공양주/ 화엄사 벽암대사비 음기(1663)/
신계(信戒)		3등화원	
관해(寬海)		4등화원	군산 동국사상(1650) 화원.
회감(懷鑑)		5등화원	여수 흥국사 지장보살상(1648) 首僧 懷甘/군산 동국사 석가삼존(1650) 청풍도

			인 대공덕주 /군산 불지사 아미타상(1666) 수화원(원 봉안처가 귀신사)
천고(天沽)		6등화원	
처심(處心)		7등화원	완주 송광사 삼세불상 서기(1636)/완주 송광사 나한전에 대선사(1656)
영관(靈寬)		8등화원	논산 쌍계사 석가 삼방불좌상(1605) 불상조성 대화사/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 지전, 증명(1628)/ 익산 숭림사 성불암 불상(1640) 증명, 원 봉안처는 임피 취성산 불명사/여수 흥국사 지장보살상(1648) 시주/
영인(靈印)		9등화원	여수 흥국사 지장보살상(1648) 시주/화엄사 벽암대사비(1663)
고경(沽敬)		10등화원	
상의(尙儀)		11등화원	여수 흥국사 지장보살상 2등화원(1648)/
학고(學沽)		12등화원	
법찬(法湌)		반두	法贊/도장사 석가불(1648) 대좌대시주 및 삼강/서울 화계사 지장보살상(1649) 제산지식
태능(太能)		숙두	
태순(泰順)		별좌	
처영(處英)		연화	
지민(智敏)		연화	
원감(元鑑)		연화	
신민(信敏)		연화	
신율(信律)		연화	군산 은적사 아미타불상(1666) 금산사 정수암이 원 봉안처. 공양시주.

표 1 1633년 나한전 불사 참여자

부록 4 17세기 전반 대형불상 조성 사찰

	연대	위치	도상	크기(cm)	조각승	사찰의 기능
1	1617	공주 갑사	석가 삼방불	269	행사	조선 초기 선교 36사
2	1624	김제 귀신사	비로 삼방불	428	덕기	원종 원당
3	1626	보은 법주사	삼신불	509	현진	세조 원당, 선희궁 원당, 순조 태실원당
4	1633	부여 무량사	미타삼존	521	현진	명종대 내원당. 17세기 지소사찰
5	1634	고창 선운사	비로 삼방불	295	미상	덕원군 원당
6	1635	김제 금산사	미륵 삼존	879	미상	세조 원당, 승병사찰
7	1636	구례 화엄사	삼신불	280	인균, 청헌	조선 초 선교 36사, 숙빈 최씨 원당
8	1641	완주 송광사	석가 삼방불	550	청헌	원종과 관련
9	17세기 초	김제 금산사	비로자나 5불	270	미상	원당, 승병사찰

표 2 17세기 전반 대형 불상 조성사례

Abstract

A Study on Early Seventeenth-century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Statues

Ko, Jiyo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the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of the first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which consist of Vairocana, Baisajaguru and Amitabha Buddha. Specifically, I focus on the Vairocana five directional Buddhas of Geumsansa Temple(金山寺), Gimje,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of Gwisinsa Temple(歸信寺), Gimje, and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of Seonunsa Temple(禪雲寺), Gochang. Iconography of these statues represents three directions which are the East, Center, and West, each corresponding to Baisajaguru, Vairocana and Amitabha. This thes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Vairocana five directional Buddhas and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are interpreted

as same concepts. I argue that these statues were utilized in the royal bless ritual, and that the socio-economic context significantly affected the function of the images.

First I examine the ritual function of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The three temples' statues were created in the early 17th century and were enshrined in the main Buddha Halls. Since the Buddha statues were the object of the ritual, there must have been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statues and the ritual. Therefore, I analyze the rituals that were performed in the main Buddha Hall in the 17th century. *Wunsudangasa*(雲水壇歌詞) and *Yeongsandaehoejagbeobjeolcha*(靈山大會作法節次) are 16th-century manual books for *gongyang*, or offering rituals. These two ritual manuals were routinely performed at the main Buddha Hall.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bless ritual for kings was newly listed in the ritual manuals mentioned above, and was compiled as an independent manual book as well. This ritual required the image of Buddha which encompasses all directions; since the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symbolizes all directions, those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are likely to have been the focus of such rituals.

However, it is interesting that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were created only in these three temples located near Jeonju. This can be explained through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temples. Buddha statues of the three temples were created in the order of Geumsansa-Gwisinsa-Seonunsa. Based on stylistic analysis, it can be assumed that this iconography was spread by Geumsansa Temple's Vairocana five directional Buddhas. Geumsansa Temple was rebuilt in the late 15th century by King Sejo and Prince Deokwon. At this time, the Vairocana five directional Buddhas were created. Geumsansa Vairocana five Buddhas, patronized by King Sejo, served as the object of the bless ritual for king. Subsequently, Geumsansa

statues were destroyed by the war and restored to the same iconography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fact that the restored version followed the original iconography indicates that the monks of Geumsansa Temple were aware of the ritual function of the iconography. The restored statues were also shrined in the main Buddha Hall where the bless ritual was performed.

The Vairocana three Buddhas statues of other two temples seem to have performed the same ritual function as the Geumsansa Vairocana five Buddhas. This is supported by these two facts: first, the Gwisinsa and Seonunsa statues were both enshrined in the main Buddha Hall of each temple; second, these two temples were under the influence of Geumsansa Temple. The monks of Geumsansa Temple participated in rebuilding Gwisinsa Temple and Seonunsa Temple.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of Gwisinsa and Seonunsa were influenced by the Geumsansa five Buddhas. Consequently, the bless ritual for kings is the key to understanding both the iconography and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main Buddha Hall.

The Buddha groups of three temples are monumental in their scales, being created at a comparatively early period. I argue that this can be explained in the economic context. Gwisinsa Temple was designated as a royal temple, *wondang*(願堂), by the royal family. Geumsansa Temple and Seonunsa Temple had been the royal temples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 royal temples belonged to the royal family's financial institution, *Naesusa*(內需司), and paid tribute to the royal family. In other words, the Wondang Temple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royal finances. When the Wondang Temple was destroyed by the Imjin

War, the royal family lost its financial base. Thus the reconstruction and sponsorship of the Wondang Temples were intended to stabilize the royal court's financial status as well. This royal patronage explains the early commission and creation of the Buddha statues of those three temples. This royal context also implies the significance of those statues in ensuring the survival of Buddhism in the postwar period.

In order to survive in the Confucian society, the Buddhist community needed to align with the fundamental value of Confucianism, loyalty(忠: chung). The temple practiced the value of loyalty through performing a bless ritual for king, and this led to the creation of the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which functioned as the focus of the ritual. Therefore, the creation of the these statues serves as a good example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Buddhist community.

Keyword : **Geumsansa, Gwisinsa, Seonunsa, Vairocana three directional Buddhas, wondang, royal bless rituals, 17th century**

Student Number : 2017-25548